



특집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경북의사회지

29호
2005

상복부에서 하복부까지 -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화불량증의 새로운 1차선택제 -

가나톤 50mg
(Itopride HCl)

- ▶ Dopamine D₂ receptor 길항작용과 Cholinesterase 저해작용을 통해, 상복부 뿐만 아니라 하복부 운동작용도 확실히 나타냅니다.
- ▶ 가나톤은 FMO를 통해 대사되므로, CYP450을 통해 대사되는 대부분의 약물과 병용투여시 확실히 안전합니다.

Reference 1. Tadashi T et al. Stimulatory action of itopride hydrochloride on colonic motor activity in vitro and in vivo The journal of pharmacology and experimental therapeutics 306 : 787-793, 2003 2. Miyahita N et al. Organ specificity of contractile response to HSR-803, a new gastroprokinetics agent, on gastrointestinal motility in conscious dogs. Journal of gastrointestinal Motility 3 : 190, 1991 3. Taisei M et al. The involvement of flavin-containing monooxygenase but not CYP3A4 in metabolism of itopride hydrochloride, a gastroprokinetic agent : comparison with cisapride and mosapride citrate Drug Metabolism And Disposition 28:1231-1237,2000 4. Yui et al. A novel water-soluble Dopamine-2 antagonist with anticholinesterase activity in Gastrointestinal Motor Activity Gastroenterology 1990



제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제품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제품문의처 : (02)840-6777



GlaxoSmithKline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http://www.gskkorea.co.kr

No.1은 다릅니다 세레타이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선택하는 흡입용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세레타이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 각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천식치료제입니다.

세레타이드는 기관지 확장과 항염작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세레타이드는 4세이상의 천식환자에게 효과와 안전성 Profile이 입증되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천식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이제, 세레타이드를 선택하세요.

†Based on IMS Monthly Midas. From 2002~Present.

■ 천식전문 사이트 <http://www.asthmacare.co.kr> sponsored by GSK

세레타이드™

크시나프산 살메테롤/프로피온산 플루티카손

지속성 천식치료의 '마스터 키'



2003년도 최우수모범지부상 수상

대한의사협회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2004. 4. 24)



CONTENTS



표지설명

2004년 5월 30일(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된 제26회 경북의학제 행사중 줄다리기(남·북부팀)

경북의사회지 2005년 제29호

발행인 변영우

편집인 정만진·김광만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 (053)941-7785, 7781

FAX (053)941-5557

http://www.kbkma.org

인쇄처 선진애드

TEL (053)555-3336

003 | 발간사 변영우

004 | 축사 이원기

005 | 축사 김재정

006 | 임원명단

6 |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10 | 시·군의사회 회장

12 | 시군별 종합병원·병원장

17 | 경상북도의사회 사무직원

018 | 시사 진 안동댐에서 / 윤태권

019 | 시

19 | 청자꽃병 / 손장락

20 | 너와 나의 신호 · 시간을 찍다 / 김의홍

21 | 낙엽 / 안길룡

22 | 분도에게 / 최해곤

23 | 패종시계를 기억한다 / 권세홍

024 | 수필

24 | 백원(100원)짜리 지폐 / 추성수

25 | 삼계탕 / 전경홍

27 | 산에 올라보니 / 윤용삼

29 | 나의 인생 2막은? / 정만진

31 | 가족사진 / 이봉구

33 | 인터넷 예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백두현

34 | 스트레스는 자기 하기 나름 / 사공정규

37 | 어느 시골 여의사의 기도 / 서경원

40 | 시간이 굽어치는 길목에 서서 / 김우석

045 | 시론 의학과의료는 한길 / 김두희

048 | 보고서 반다이체 의료봉사활동 보고서 / 변영우

060 | 산행기 북알프스 등정기 / 반재돈

072 | 여행기

72 | 청정자연의 나라 뉴질랜드 / 최호섭

75 | “하늘이 왜 빅토리아 폭포를 아프리카
이 외진 땅에 두셨는지” / 안길룡

077 | 행사후기

77 | 제1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참가기 / 최유근

79 | 제4회 대한의사산악회 등반대회 후기 / 전민

083 | 특집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120 | 유머

122 | 의학계 삼행시

124 | 화보

134 | 회무소식

166 | 회원동정

171 | 결의문

174 | 편집후기

의사윤리 선언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존중하고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현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 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 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 의사회
회장 변영우

발간사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생각하며...”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새롭게 기획되고 편집된 2005년도 경상북도의사회지 제29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경북의사회지는 우리 회원들의 문학 작품집이자 우리 의사회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우리 의사회지는 쉬지 않고 29호까지 이어져 왔으며, 해마다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옥고를 읽고 있으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도 남들이 볼 수 없는 예리한 시각으로 사물을 관조하고 잔잔하고 짜임새 있는 필력으로 주옥같은 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 현장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상의 경험들을 소재로 같고 다름고 그것을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승화시킨 여러분의 작품을 대할 때면 어느 세계적인 작품보다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의사, 내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다른 시도 의사회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특집을 만들어 실어 왔습니다. 2002년에는 “개혁과 위기의 의료계”라는 주제로 특집좌담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색 있는 회원들의 글을 실었으며, 2004년에는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의사가족들이 보는 의사 상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2005년에는 ‘원로 선생님의 미니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여섯 분의 원로 선생님들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미니 자서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했습니

다. 원로 선생님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잠자던 앨범을 뒤적여 퇴색한 사진들을 정리하고, 수십년 전의 일들을 정리하고 이야기 해 주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원로 여섯 분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의사들은 어느 집단보다 빠르고 정직하며, 어느 집단보다도 봉사적이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 된 의료정책으로 인해서 의료인들은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어려운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권 투쟁과 최고의 회비 납부율 등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최우수지부로 선정되어 지난 대한의사협회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국 최우수 모범지부’ 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의협 사랑운동’에 앞장서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합 단결 해준다면, 시대의 흐름은 우리들의 편에 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 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울듯이 이 한권의 회지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분은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여 그것을 기획 편집하고 때로 취재까지 해주신 정만진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보관 정리하여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편집기법을 동원하여 산뜻한 회지를 출판해주신 선진에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축사

경상북도사회대의원회
의장 이원기



“힘센 비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다 사다난의 甲申年이 지나가고 희망찬 乙酉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선생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29호 “경북의사회지”의 발간을 축하하며 옥고를 내어주신 선생님과 편집을 하시느라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의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수많은 문제들 중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한 실적이 없어, 선배의사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내부 분열로 비쳐진 중앙과 서울시 의사회와 고소고발사건을 볼 때의 심정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한해였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順理’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형편은 어느 것 하나 해결의 희망이 없으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 筆舌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산청과 대구에서 일어난 ‘의약분업철폐운동’을 뻔히 보면서도 戰意를 잃은 우리들은 수수방관하였으며, ‘선택분업 쟁취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의 끝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의약분업시행 5년 만에 ‘최초로’ 합의를 한데 의의가 있는, 쥐꼬리보다 못한 수가인상 실적에 위안을 하며 200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선생님

우리는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밤샘을 해가면서 죽도

록 공부하였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료들이 거룩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지역이나 동네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며, 좀 더 행복한 이웃의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여 경영난으로 자살을 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될 기미가 없는 형편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 봅시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달가스의 명언을 생각해 봅시다.

사이비 시민운동가들이, 의사에게 적개심을 품은 기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의료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정치꾼들이 무어라고 하든지 깡그리 무시하기를 제의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부끄러운 환부를 보이며 도움을 청하는 ‘호모 사피엔스’를 사랑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 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의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며, 동료의사들을 존경하고, 비록 가시적인 업적은 미미하더라도 회비 자진 납부를 비롯한 회원의 의무를 다 하는 의사로 살아가기를 제의합니다. 이리하여 먼 훗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의사로서의 나의 삶이 그런대로 ‘성공적’이었음에 홀로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김재정

축사

“8만 의사 모두가 당당한 모습으로
의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올해 새로 발간된 경북의사회지 제29호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경기가 활성화되어 온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특히 의권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 건강을 위해 전국 8만 의사 모두가 당당한 모습으로 의업에 매진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봄과 함께 시작되는 3월 의료계는 새해 예산과 사업계획을 짜야하는 매우 중요한 총회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북의사회는 3월 총회를 기점으로 의권 확립과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2005년도 새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천년의 고도, 화랑의 후예답게 경북의사회는 전국에서 가장 단합을 잘 하는 의사회로 모범을 보이며 의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의사회의 가장 큰 자랑인 울곧은 전통과 선후배간의 인화를 바탕으로 한 단결된 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원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우리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약대 6년제 추진 저지를 비롯하여 한의사 CT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의료계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외에 단독간호사법안과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법안 등 말도 안되는 신생법이 싹트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만 회원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건강보험 관련 고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제17대 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권 신장을 위해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의료계의 입지를 더욱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아픈 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듯이, 올해에도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설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경북의사회지 제29호에는 회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회원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의료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회원에 대한 미니자서전이란 코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차이, 또는 직역간, 진료과별로 다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모쪼록 의사회지를 통해 선후배간의 사랑과 끈끈한 정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경상북도의회 집행부



변 영 우 회장



정 만 진 부회장



이 석 균 부회장



김 옥 배 부회장



이 영 현 부회장



이 미 숙 부회장



백 승 인 기획이사



이 봉 구 기획이사



이 경 섭 학술이사



천 종 옥 재무이사



김 장 희 법제이사



이 경 수 보험이사



조 성 범 보험이사



전 민 의무이사



김 광 만 공보이사



김 용 탁 정책이사



김 대 환 정책이사



김 중 호 정책이사



송 재 영 정책이사



조 현 숙 정책이사



송 준 석 정책이사



하 상 호 감사



유 성 호 감사



정 능 수 감사



경상북도의회 임원

● 임원명단(제39대)

(2003. 4. 1 ~ 2006.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회 장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경주시 사정동 101-27
부 회 장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이 석 균	청십자의의원	053	815-7077	경산시 중방동 538-3
	김 옥 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054	452-5665	구미시 원평1동 534-8
	이 영 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70-8120	경주시 석장동 1090-1
	이 미 숙	이화산부인과의원	054	857-7659	안동시 남부동 169-20
기획이사	백 승 인	백승인소아과의원	054	746-0002	경주시 성건동 340-22
	이 봉 구	이피부과의원	054	742-1494	경주시 동부동 141
학술이사	이 경 섭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70-8266	경주시 석장동 1090-1
재무이사	천 종 욱	천내과의원	054	771-0503	경주시 동부동 113-3
법제이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보험이사	이 경 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구미시 황상동 280-9
	조 성 범	한빛연합소아과의원	054	742-5848	경주시 성동동 179-3
의무이사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054	247-7861	포항시 북구 죽도1동 103-1
공보이사	김 광 만	김소아과권방사선과의원	054	221-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28B
정책이사	김 용 탁	김용탁산부인과의원	054	743-6688	경주시 성동동 143-8
	김 대 환	베드로내과의원	054	331-5522	영천시 금로동 584-3
	김 종 호	김종호신경정신과의원	054	282-7575	포항시 남구 대도동 19-18
	송 재 영	송재영외과의원	054	373-0111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78-60
	조 현 숙	계림내과의원	054	742-8931	경주시 성동동 72
	송 준 석	연세가정의원	054	775-5563	경주시 감포읍 감포3리 383-12
감 사	하 상 호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의원	054	273-366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30
	유 성 호	평화산부인과의원	054	552-5959	문경시 점촌동 53-2
	정 능 수	동산연합의원	054	861-007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9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의장단



이 원 기 의장



김 홍 조 부의장



김 교 성 부의장

● 의장단명단(제12대)

(2003. 4. 1~2006.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의 장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부 의 장	김 홍 조	김홍조외과의원	054	452-4239	구미시 원평2동 158-8
	김 교 성	김내과의원	054	632-0999	영주시 영주4동 531-4

● 중앙(의협)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의협부회장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경주시 사정동 101-27
중앙이사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경산시 증방동 538-3

● 중앙(의협) 대의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정대의원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 1동 41-7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안 길 룡	안외과의원	054	432-9999	김천시 남산동 16-5
	장 의 현	장의현비뇨기과의원	054	453-5424	구미시 원평1동 371-4
	오 세 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054	241-696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53-21
	권 세 홍	권방사선과의원	054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교 체 대 의 원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054	247-7861	포항시 북구 죽도1동 103-1
	송 재 영	송재영외과의원	054	373-0111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78-60
	조 영 호	조정형외과의원	054	634-3375	영주시 영주2동 536-2



경상북도의사회 법률·세무고문



김인수 변호사



김상운 변호사



정연경 변호사



서한규 변호사



김태계 변호사



주영일 세무사

구 분	성 명	근 무 처	DDD	전 화	주 소
법 률 고 문	김 인 수	김인수법률사무소	053	742-3100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4-1 성광빌딩 401호
	김 상 운	김상운법률사무소	054	246-0300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8-4
	정 연 경	정연경법률사무소	054	742-9222	경주시 동부동 141
	서 한 규	서한규법률사무소	054	437-7447	김천시 삼락동 1243
	김 태 계	화산합동법률사무소	054	859-0634	안동시 정하동 244-3
세 무 고 문	주 영 일	세무사주영일사무소	054	742-1218	경주시 성동동 417-1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위 원 장	신 은 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부 위 원 장	유 동 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054	859-6737	안동시 동부동 152
위 원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안 길 룡	안외과의원	054	432-9999	김천시 남산동 16-5
	김 지 흥	김지흥정형외과의원	054	277-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구미시 원평1동 1064-4
	손 병 욱	손병욱내과의원	053	815-7900	경산시 중방동 862-3
	권 세 흥	권방사선과의원	054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간 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경상북도의회 시·군 의사회장



오 세 진 포항회장



김 장 희 경주회장



정 근 재 김천회장



김 재 왕 안동회장



장 의 현 구미회장



이 재 석 영주회장



이 지 옥 영천회장



원 규 돈 상주회장



강 찬 규 문경회장



장 기 호 경산회장



김 교 준 군위회장



이 봉 우 의성회장



정 철 청송회장



류 수 영 영양회장



강 래 균 예덕회장



박 해 동 청도회장



백 두 현 고령회장



방 중 경 성주회장



이 원 석 칠곡회장



차 광 국 예천회장



전 우 진 봉화회장



임 호 식 울진회장



시·군의사회 회장

(2005. 2. 현재)

시군별	성명	의원명	DDD	전화	주소	비고
포항시	오세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054	241-696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53-21	
경주시	김장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김천시	정근재	김천신경정신병원	054	432-5040	김천시 응명동 957	
안동시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054	856-7111	안동시 동부동 74	
구미시	장의현	장의현비뇨기과의원	054	453-5424	구미시 원평1동 371-4	
영주시	이재석	서울산부인과의원	054	636-9901	영주시 하망동 324-17	
영천시	이지욱	이내과의원	054	333-5203	영천시 완산동 1069-1	
상주시	권규돈	권내과의원	054	536-5757	상주시 서성동 117-5	
문경시	강찬규	강찬규내과의원	054	552-9777	문경시 점촌동 241-19	
경산시	장기호	사랑의원	053	814-8071	경산시 옥산동 73-1	
군위군	김교준	성누가의원	054	382-9911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390-2	
의성군	이봉우	의성경북의원	054	832-2177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738	
청송군	정철	대구의원	054	873-1407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357-3	
영양군	류수영	영남의원	054	683-3465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32-1	
영덕군	강래균	강구외과의원	054	733-9587	영덕군 강구면 강구2리 335-3	
청도군	박해동	박해동외과의원	054	371-6555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1-29	
고령군	백두현	고령백의원	054	954-3669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성주군	방종경	덕산의원	054	933-0644	성주군 성주읍 경산8리 713-4	
칠곡군	이원석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054	973-1147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0-2	
예천군	차광국	제일의원	054	652-2989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67-46	
봉화군	전우진	동산의원	054	673-6388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36-35	
울진군	임호식	누가의원	054	782-4979	울진군 북면 부구리 칠보프라자 B-102	
울릉군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1-400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시·군별 병원명단

(2005. 2. 현재)

시군별	병원명	원장명	DDD	전화	주소
포항시	동국대포항병원	배성환	054	273-81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한동대선린병원	이건오	054	245-5000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포항성모병원	장석범	054	272-0151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동선	054	275-0005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포항의료원	변승렬	054	247-0551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늘얼린동산병원	박영대	054	262-077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96-1
	사랑병원	문충배	054	277-33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5
	세명재활의학과내과병원	조종훈	054	283-08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2-2
	여성아이병원	허준호	054	255-5000	포항시 북구 우현동 7B 5L
	포항삼성병원	양정호	054	292-9264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35
	포항여성병원	윤철희	054	274-77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0-5
포항e병원	박기정	054	277-555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4-6	
경주시	동국대경주병원	이규춘	054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계명대경주동산병원	김종인	054	770-9500	경주시 서부동 147-2
	안강중앙병원	정수기	054	763-800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84-4
	현대병원	김종원	054	745-8118	경주시 성건동 211-4
김천시	김천의료원	송달효	054	432-8901	김천시 모암동 85
	김천신경정신병원	정근재	054	432-5040	김천시 응명동 957
	김천제일병원	강병직	054	420-9300	김천시 신음동 462-14
	신애정신병원	-	054	435-6009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2-1
안동시	안동병원	이윤호	054	821-1101	안동시 용상동 1592-31
	안동성소병원	박승국	054	857-2321	안동시 금곡동 177
	안동의료원	신현수	054	858-8951	안동시 북문동 470
	류병원	류동근	054	851-100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2
	류사랑병원	류호근	054	850-100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3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진원	054	859-3020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4
	안동여성병원	이윤호	054	820-3101	안동시 용상동 1445-1
구미시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이길노	054	463-7151	구미시 공단동 250
	포천중문의대구미차병원	이현우	054	450-9700	구미시 형곡동 855
	구미고려병원	신재학	054	453-7575	구미시 원평동 1036-9
영주시	성누가병원	박시균	054	633-6011	영주시 영주2동 536-4
	영주기독병원	서익제	054	635-6161	영주시 영주1동 547-2

시군별	병 원 명	원장명	DDD	전 화	주 소
영 천 시	영대영천병원	김 용 진	054	338-9000	영천시 오수동 307
	마아정신병원	김 경 승	054	336-3311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236-5
	영천중앙병원	-	054	331-5810	영천시 망정동 179-1
상 주 시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김 원 기	054	534-3501	상주시 남성동 33-27
	상주성모병원	황 정 한	054	532-5001	상주시 냉림동 350-5
문 경 시	문경제일병원	윤 임 중	054	550-7700	문경시 모전동 188
경 산 시	경상병원	정 다 출	053	811-7711	경산시 백천동 4-2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정 다 출	053	819-0782	경산시 상방동 242-3
	경산신동산병원	유 국 선	053	819-8600	경산시 중방동 848-4
	마미안여성병원	이 현 주	053	813-1100	경산시 중방동 849-1
	영신병원	허 영 수	053	819-7000	경산시 옥산동 793
	파티마재활요양병원	윤 진 국	053	810-0001	경산시 평산동 591-2
하양삼성병원	하양삼성병원	금 종 명	053	857-9114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57-3
	하양삼성병원	금 종 명	053	857-9114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57-3
군 위 군	군위삼성병원	이 종 택	054	383-3531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111-2
의 성 군	공생병원	김 선 영	054	834-3881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475-3
	성심병원	이 동 일	054	834-1048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8-11
	영남제일병원	김 인 기	054	861-91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3
	제남병원	송 오 달	054	832-2036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0-21
청 송 군	진보병원	-	054	874-7717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 66
	청송군보건의료원	남 시 현	054	870-7100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54
영 양 군	영양병원	김 득 수	054	682-0727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0-1
영 덕 군	영덕아산병원	김 연 수	054	730-0151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영덕제일병원	-	054	732-7717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22-2
청 도 군	청도대남병원	김 세 현	054	373-0606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00-1
고 령 군	고령영생병원	-	054	955-2661	고령군 고령읍 현문리 201-6
성 주 군	성주해성병원	정 해 훈	054	933-2064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5
칠 곡 군	시몬정신병원	-	054	976-0402	칠곡군 왜관읍 금남2리 315-1
	왜관병원	-	054	971-1002	칠곡군 왜관읍 왜관10동 174-54
	혜원성모병원	김 의 원	054	979-7114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10-12
예 천 군	예천권병원	권 규 호	054	654-6611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60
봉 화 군	봉화해성병원	-	054	679-1234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26-6
울 진 군	울진군보건의료원	지 청 현	054	783-125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63-5
	울진의료원	정 태 훈	054	785-7000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18
	울진중앙병원	지 용 광	054	787-1212	울진군 후포면 삼울리 530-48
울 릉 군	울릉군보건의료원	정 만 진	054	791-400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경상북도의회 종합병원 · 병원장

대학병원

(병원가나다순)



김종인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이규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배성한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이길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김용진
영남대학교
(영대영천병원)



이현우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이건오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병원

(지역병원)



장석범
포항성모병원(의무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



변승열
포항의료원



박영대
늘얼린동산병원(포항)



문충배
사랑병원(포항)



조종훈
세명재활의학과내과병원



허준호
여성아이병원(포항)



양정호
포항삼성병원



윤철희
포항여성병원



박기정
포항e병원



정수기
안강중앙병원(경주)



김종원
현대병원(경주)



송달효
김천의료원



정근재
김천신경정신병원



강병직
김천제일병원



이운호
안동병원



박승국
안동성소병원



신현수
안동의료원



류동근
류병원(안동)



류호근
류사랑병원(안동)



신재학
구미고려병원



박시균
성누기병원(영주)



서익제
영주기독병원



김경승
마아정신병원(영천)



김원기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황정한
상주성모병원



윤임중
문경제일병원



정다출
경상병원(경산)



유국선
경산신동산병원(의무원정)



이현주
마미안여성병원(경산)



허영수
영신병원(경산)



윤진국
파티마재활요양병원



김중명
하양삼성병원



이종택
군위삼성병원



김선영
공생병원(의성)



이 동 일
성심병원(의성)



김 인 기
영남제일병원(의성)



송 오 달
제남병원(의성)



남 시 현
청송군보건의료원



김 득 수
영양병원



김 연 수
영덕아산병원



김 세 현
청도대남병원



정 해 훈
성주혜성병원



김 의 원
혜원성모병원(칠곡)



권 규 호
예천권병원



지 청 현
울진군보건의료원



정 태 훈
울진의료원



지 용 광
울진중앙병원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경상북도의사회지 편집위원



정 만 진
편집위원장



김 광 만
편집위원



김 재 왕
편집위원



이 경 수
편집위원



이 덕 영
편집위원



경상북도의사회 사무직원



박재영
경상북도 사무국장



권순길
경상북도



김태희
경상북도



김두중
포항시 사무국장



김은명
포항시



이지형
경주시



윤진영
안동시



박민희
구미시



김명숙
영천시



최보화
경산시

구분	직책	성명	전화	휴대폰	주소
경상북도의사회	사무국장	박재영	(053)941-7785	011-512-043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리	권순길	(053)941-7785	011-9365-7268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리	김태희	(053)941-7785	016-520-8200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포항시의사회	사무국장	김두중	(054)281-0990	016-502-9786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간사	김은명	(054)281-0990	010-3128-1250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경주시의사회	간사	이지형	(054)774-9991	017-530-9992	경주시 서부동 255-31
안동시의사회	간사	윤진영	(054)857-6911	011-9578-6406	안동시 북문동 470(안동의료원 내)
구미시의사회	간사	박민희	(054)457-7646	011-9589-2280	구미시 원평동 534-8
영천시의사회	간사	김명숙	(054)337-8022	010-8337-8022	영천시 창구동 1(영천문화원 2층)
경산시의사회	간사	최보화	(053)812-0030	016-519-7658	경산시 중방동 538-18(열린약국 2층)



안동댐에서

제 소임을 다 해버린 후, 온 몸을 드러내어 놓고 왕년의 그 날을 아쉬워하는.....

윤태권

윤소아과의원 · 안동
TEL 054-857-6510
E-mail lennyoon@hanmail.net



시
Poem



손장락

손의원 · 안동
TEL 054-859-6288

청자 꽃병

아침 햇살을 받아
우아한 기품이 주위를 밝히고
정겨움이 배어난 따듯한 푸른빛은
아름답게 빠진 몸매를 휘 감았다
드높은 맑은 하늘이 좋아
현란한 오색 무늬를 싫어한다

조출하게 핀 국화 두송이
구름 한점없는 하늘에 그림자 새기고
오 가는 이 마음 멈추게 한다
응결된 그윽한 향기 내어 뿔어도
벌 나비 찾아오지 않으니
시절이 아님이 아쉽구나

오지랖이 넓어
모든 것 다 감싸 버리고
기다란 목에 커다란 아가리는
지금이라도
행복을 듬뿍 쏟아 낼 것만같다
마법의 물병처럼



시
Poem

너와 나의 신호



김의홍
김의홍산부인과의원 · 구미
TEL 054-452-5388

나만의 신호를
보내고 싶다
우리들만이 아는
신호를 송신하고 싶다

발신하던 당신만을
기억하고 싶다
과연 너에게로
가는 길은 없는 것인가

저 불확실한
신호의 변주곡들

가장 먼 신호를 찾아라
그것이다 바로 그것
너와 나의 신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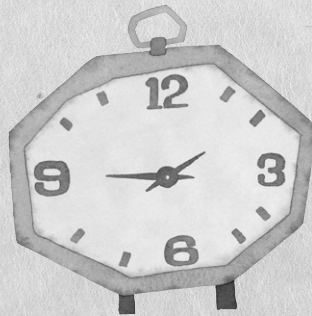
시간을 짝다

책장처럼 쉽게
넘어가는 시간들

추억이란 이름으로
비밀을 감춘 시간들

숨어있는 혹은
숨겨진 시간들이 있다

시간이 멈춘 곳의
피곤한 잔해들
사라진 없어진
시간들을 짝였다
마음껏 후회없이



시
Poem



안길룡

안외과의원 · 김천
TEL 054-432-9999
E-mail sj8211@yahoo.co.kr

낙엽(낙엽의 변)

찬란한 녹음을 칭찬했던 사람들이여
낙엽으로 떨어지는 나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지마오.

내꿈의 영원한 안식을 찾기 위해
이제 육신을 버리고
별이 떨어질때, 낙엽으로 가지를 털고
내년봄 잎이 필 뜨거운 앞눈을 남기고
낙엽으로 떨어진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
낙엽은 떨어져 깊은 묵상에 잠기고
소원은 다시 앞눈이 될 때
어디서 무엇이 되어 우리 다시 만날까.

찬란한 녹음을 칭찬했던 사람들이여
낙엽으로 떨어지는 나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지마오.



시
Poem



최해곤

최해곤성형외과의원 · 경주
TEL 054-773-7525

분포에게

오후내 불안하게 서성이던 바람이
황혼 무렵에는 수면에 길게 드리누워 버렸고
반대쪽 물가에는 외가리 한마리
오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가한 저녁후 향긋한 커피 한잔
산그늘 길게 뒤집고 잠든 수면에 찌를 밝히고
서두르지않는 시간 담배한대 물면
마음도 길게 드리눕는다.

우리들 사이 그렇게 수도없이 흘렀던 밤의 호수
까닭도 없이 따라 흘러보낸 투명한 시간들
그위로 별이 뜨고 달이 흐르고
인적에 놀란 물오리들이 밤안개 푸른 산허리 돌아
높게 날아오르면
우리들 가슴에도 그리움의 날개가 돋았다.

구하는 것 없으니 기대할 것도 없어 대물도 무위
다만 기다림 그자체 떨림만 오래 기억될 뿐
어름쫂 피어나는 저 물안개 가슴에 젖어들면
그날 못잊어 가만히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들
그리움은 하늘가득 별로 뜨는가
버려도 좋을 것들 버리지 못해
수도없이 떠남과 돌아옴을 반복하며
문득 예감하는 허무의 경계
남시는 핑계에 불과했다.

시
Poem



권세홍

권방사선과의원 · 안동
TEL 054-855-8444
E-mail sehong04@empal.com

과종시계를 기억한다

댕~
시간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내 청춘의 저음부를 울려 주던
과종소리

대청 지나 섬돌을 내려
녹슨 대문 좁은 골목 끝까지
댕 댕
허기처럼 따라 나서던 소리

달아나 버린 용수철과 나사못,
그 木棺 속 거미줄을 헤치고 나와
이제, 시간은
밥을 주지 않아도 흘러 가는데

기억 저편에서 耳鳴처럼
댕 댕 댕
치매 걸려 밥 달라고 조르는 소리,
그 늙은 시간의 울음소리를 기억한다.

詩作노트

빈 고향집이나, 어릴 때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나면 자주 그 소리를 듣게 된다. 때로는 幻聽을 부르는 대상이 오래된 골목길이나 나이 살이나 들 어 बी는 나무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느릿느릿 추억의 감회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듯한 절박하고도 애절한 소리로 들려 온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마치 옛날 LP판을 찾아 턴테이블에 올리듯, 그 소리의 기억을 되찾아 주는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掛鐘時計도 虛飢도 없다. 지금 젊은 세대는 늙어 치매에 걸려도 밥 달라고 떼 쓰지는 않을 것이다. 갈라 터진 樹皮에서 아비의 손발을 보는 것도 우리 세대로써 끝이다. 시대에 따라 풍경이 바뀌고 상상력도 언어도 변한다. 다만 그 풍경, 그 언어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스러울 때가 있다.

백원(100원)짜리 지폐

추성수 추이비인후과의원 · 포항 / TEL 054-247-3709



1945년 소련은 일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만주 국경을 넘어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은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무작정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군은 내가 거주하는 통화시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종전이 되고 며칠이 지나자 소련군이 통화시까지 쳐들어왔다. 어느 날 주민들이 병 둘러서서 소련군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 끼어 따발총을 메고 있는 군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여름이라 반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소련군 하나가 느닷없이 내 팔을 잡더니 팔뚝에 차고 있는 나의 시계를 뺏어가 버렸다. 참으로 귀한 것이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강탈당한 것이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이북의 강계로 이사를 하였다. 나는 서울로 가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곳 청년 2명과 함께 출발하기로 약속하였다. 6남매 중 외동아들이라 부모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삼팔선을 넘어 이남으로 간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하시면서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속옷 속에 다 꿰매어 안전하게 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여비와 학비로 사용하라고 하셨다.

우리 세 명은 사리원에 도착하여 밤중에 휴전선을 넘기로 하고 밤길 안내원을 사서 삼팔선까지 갔으나 소련군에게 잡혀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다. 세 번 시도 끝에 무사히 개성에 도착하니 미군들이 우리 몸에 DDT를 뿌려주었다. 서울로 들어오니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내가 전쟁터로 변해 있고 황폐해져 있었다.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학교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일단 헤어지기로 하였다. 나는 할아버님이 계신 군산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서울역 앞 동네인 도동의 일산가옥(日産家屋)이 100원에 팔린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속옷에 숨겨주신 100원짜리 지폐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100원의 가치는 어떠한가? 지하철 계단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의 바구니에 던져주는 돈이요, 아이들의 사탕 한개 값도 되지 못한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현재 우리 의사들도 많이 평가절하 되었다. 또 의사 수도 많이 늘었다. 포항 시내에 이비인후과전문의가 1명이던 것이 현재는 17명이다. 올해도 후배 의사들이 3,300명 넘게 배출되었다고 들었다. 의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의사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의사는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집 한 채였었는데, 요새는 막대사탕 하나도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왜 갑자기 요즘 의사들의 처지가 생가나는 것일까? 고령인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개업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성심성의껏 시민보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경북 의사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삼계탕

전경홍 동산가정의학과의원 · 문경
한국문인회회원 / 한국추천작가회원

TEL 054-553-0021 / E-mail dongsanhome@yahoo.co.kr



우 리집에서 30여 미터 거리 골목안쪽에 아늑하게 위치한 꽃밭식당이 있다. 내가 의원을 개원할 시기와 거의 같이 식당업을 시작하여 삼계탕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몇 년 전엔 KBS 맛자랑멋자랑으로 매스컴에 방영된 후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삼복 뎨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삼계탕 냄새도 맡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들이 많다.

나는 가까운 이웃이라도 꼭 하루 전에 예약을 한다. 손님을 대접하거나 먹고싶을 때 먹을 수 있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삼계탕 먹으러 온 손님들은 식당 종업원들의 애교 있는 거절로 섭섭하게 돌아가기 일수다. 손님이 넘쳐 다 유치 못함을 보고 상흔에 예민한 사람들이 ○○삼계탕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가까운 이웃에 몇 집 개업을 하지만 손님들이 별로 없다. 아마도 음식 솜씨에 숨겨진 노하우를 따라 갈 수 없고 식당건물자체가 한옥에다 여주인의 인심이 좋고 음식이 푸짐하고 별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정의 여인들이 가족 몸보신을 위해 정성들여 준비한 삼계탕을 먹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처가에 백년손님인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 주던 장모님의 사랑극치로 표현되든 때도 옛날 일로 사라졌고 편하고 편리하게 식도락을 즐기는 현대인으로 인해 거리는 식당가를 이뤘고 외식하는 것이 자랑인 듯 느끼는 가족들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꽃밭식당엔 삼복 때 친구들, 직장인들, 많은 가족단위로 삼계탕을 먹으러 온다. 나도 몇일전 둘째아들 내외가 건강한 아들 쌍둥이를 자연분만 하였다며 인사차 왔다. 어미가 수축해 보여 영양수액주사를 권했으나 사양하여 삼계탕을 사주었더니 ‘아버님! 힘이 생겨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건강이 회복될 것 같아요’ 하며 만족해하였다. 그곳이 워낙 손님들이 불어나 단층건물을 이층으로 증축하여도 내실까지 손님들이 점령하고 마냥 기다리기에 주방도 넓어서 한 번에 수십여 그릇을 동시에 끊어 낼 주방시설도 작년에 확장한 것으로 안다.

삼계탕 뚝배기에는 영양분이 풍부하다. 비교적 중담에 가까운 크기의 생담, 인삼, 찹쌀, 대추, 밤, 마늘 등등이 오목한 뚝배기에 담겨 뽀글뽀글 끓으면서 상위에 놓일 때 구수한 냄새가 먼저 군침을 삼키게 하고 반찬으로 매콤한 부추 절임, 상큼한 깍두기, 새콤한 식초에 담가둔 마늘쪽, 젓갈의 냄새가 나는 깻잎 반찬, 시원한 물김치 등이 식욕을 더욱 돋군다.

‘맛있게 드십시오’ 상냥한 그 집 딸의 인사가 끝나자 말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서비스로 나온 인삼주로 반주 한잔하고 가는 소금 반 숟가락정도 간을 맞춘 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를 그릇에 덜어 먹으면서 구수한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정말 맛이 일품이다.

이마에 땀을 뒹아가며 먹으면 배가 서서히 불리워 마음이 흡족해진다. 함께 먹던 친구들은 웃음 띤 얼굴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는 곳에는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은 없는데 원장은 원할 뎨 이것을 자주 먹

을 수 있어 행복하겠다’ 한다. 그래서 나는 친한 친구나 귀한 손님이 오면 내가 사는 이곳에도 KBS 멋 자랑맛자랑에서 소개된 식당이 있다면서 식사 접대 하러 이 식당에 자주 들리게 되었다. 정말 내 집같이 드나들게 되었고 단골손님 중에도 특별히 우대하는 듯이 명절 땐 좋은 선물을 가끔 가져온다. 지난해 둘째아들 혼사 땐 친척 중 언젠가 꽃밭식당의 삼계탕을 먹어본 분이 잔치 음식은 예식장에 뷔페만 하지 말고 구수한 삼계탕으로 하면 좋겠다는 강요로 두 곳에서 음식대접을 하였는데, 삼계탕을 드신 많은 분들이 다음에 또 오겠다고 찬사를 했다.



나로 인해 식당의 손님들이 늘어나는 줄 알고 나만 가면 ‘원장님 오셨어요’가 아니라 ‘회장님 오셨어요’ 깍듯이 인사를 한다. 내가 원장이지! 하면 ‘우리식당 이사장님 해주세요. 전 여사장 할게요.’ 하면서 여주인은 자지러지게 웃는다.

삼계탕의 칼로리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스테미너를 보충하기에는 좋은 음식으로 여겨진다. 점심으로 한-그릇 먹은 날 저녁식사시간이 될 때까지 든든하고 시장-끼를 느끼지 않아 간식이 필요치 않다.

나는 삼계탕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가 많다. 아버지께서 내 나이가 14세 때 별세하여 어머니 홀로 오남매를 키울 때 어려웠지만 몸이 허약하면 마음도 약해진다며 계절이 바뀔 때 꼭 해주시던 삼계탕 맛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다. 어머니 우리에게 삼계탕을 먹일 때마다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호로자식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행실도 바르고 공부도 남보다 잘해야 훌륭하게 자랄 수 있고 가문을 빛내는 것이라고 꼭 일러 주셨다. 어머니 말씀은 이해가 되나 물씬 풍기는 인삼냄새와 쓴맛이 싫었다. 삼계탕을 먹을 땐 꼭 투정을 하면서 먹었던 시절이 후회스럽고 어머니의 참사람을 몰랐던 때가 원망스럽다.

금년 추석 때 파주에 영면하시는 어머니 묘소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의 위치를 지켜 후손들을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은 어머니의 따뜻한 가정교육의 은덕임을 고백하는 순간 견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문을 몰라 침울해 보이는 가족들에게 모친께서 우리형제들에게 베푸신 자상한 일들을 말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 보려고 꽃밭식당에 자주 드나들지만 내 심정을 아무도 모른다. 식당 여주인과 종업원들은 자기네 삼계탕이 나의 식도락이라고 생각하는지 항상 반겨 극진히 대해준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께 늦게나마 감사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짜증이 날 때, 세상일이 실망을 줄 때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 끓여 주셨던 삼계탕 맛을 느끼려고 꽃밭식당을 즐겨 다닌다.

이 식당과의 인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나도 모르겠다.



산에 올라보니

윤용삼 윤내과의원 · 포항 / TEL 054-273-8788 / E-mail dryoongs@hanmail.net



드 산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여건이 안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산에 오르지 않는다.

개원의에게는 주말은 미루어 두었던 해야할 일을 처리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물론 아무 것도 아니하고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포항에서 개원 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산악회에 가입하여 제대로 산행을 한지는 2년여 밖에 안된다. 그 전에는 가끔 친지나 가족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에가서 한두시간 산행을 하고 식사하며 술한잔 하는 뭐 그런 등산을 하곤 했었다. 젊은 날에는 ‘등산은 힘들고 재미 없는데 왜 사서 고생하나’ 하는 생각이었으니까.

개원 후 처음 십여년 동안은 주말에는 바다 낚시가 좋아서 울진에서 감포까지 방파제와 갯바위를 찾아 다니며 보냈다.

간혹 산행을 권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낚시는 운동도 되고 고기도 잡아 싱싱한 회도 즐길수 있으니 등산보다 좋지않나?’ 하곤 했었다.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와서 좀 쉬고 있으려니 심심해서 시작한 것이 음악감상이었는데 soft ware 보다 hard ware에 집착하다보니 audio mania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십여년을 집에서 음악에 빠져 보내고 나니 체중도 늘고 배도 나오고 무기력해 지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동 좀 해야지 하며 집 근처의 야산에 아침에 한 시간정도 다녀오는 날은 종일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도 빼먹기 일수였다.

2년여 전에 포항시 의사회원중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포항시의사산악회'를 창립하게 되어 회원이 된 후 부터는 월 1회 회원들과 함께 포항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이내 거리에 있는 좀 이름이 알려진 산을 오르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무척 힘이들었지만 산행이 거듭 될수록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래도 선두 그룹에 질수는 없어 좀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다.

등산은 인내심과 지구력 근력 및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며 개인의 체력에 따라 속도와 거리를 조정 할수 있어 건강관리에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끝 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운동후의 피로를 푸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회원들과 둘러 앉아 도시락을 들며 소주 한잔 하는 그 맛!

그리고 돌아 오는 길에 온천에 들러 땀을 씻고나서 맥주 한캔 마실 때 시원한 맛! 이걸 해봐야 아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살고 있고 개원의의 일상생활이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면 햇볕 볼 일도 없다. 산에는 꽃과 나무, 바위와 계곡의 물이 있다. 그리고 산은 계절에 따라 색깔을 바꿔 옷을 갈아 입는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 산 정상에는 찬란한 설화가 피어난다.

산에 가면 몸은 땀으로 씻고 마음은 수려한 경치를 보면서 씻고, 일상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날려 보낼 수 있어 좋다.

한달에 네 번 있는 일요일 중 한번은 산행을 위하여 비워두자.

누구나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운동도하고 취미 생활도 하지만, 하루 쯤 모든 것을 잊고 산에 올라 보는 것도 인생을 풍요롭게하는 한가지 일임에 틀림 없을 것 같다.



나의 인생 2막은 ?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장 · 울릉 / TEL 054-791-0010 / E-mail jmj31@hitel.net



56년의 내 인생 행로에 갑자기 울릉도가 나타났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으로 시작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고, 12년 전 가족과 함께 2박3일간 울릉도 관광을 했을 때의 신비스런 기억이 가물가물한 울릉도가 서서히 클로즈 업(close up) 되면서 나를 향해 유혹의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 네가 꿈꾸던 2막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네가 악착같이 잡고 있는 이기적인 현실의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네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하는 소리 없는 외침이 들려오고 있었다.

물귀신의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천사의 부름 같기도 한 외침에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하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던 햄릿처럼, ‘To go or not to go, ...’ 하며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 하였다.

나는 정만진 소아과의 문을 닫고 2004년 6월 1일부터 영천을 떠나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으로 왔다. 56년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책 보따리 허리에 동여매고 뛰어다니던 초등에서 까까머리 중학까지 그리고 30년 가까운 의사 생활 중 20년을 보내면서 만수산 드령 첩 같이 엮히고설킨 인연을 만들어준 고향, 어느 산천 어느 골목도 사연 없는 곳이 없는 내 고향 영천을 떠나 울릉도로 왔다.

왜?

48년생, 지천명의 50대 중후반!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 누구나 한번씩 해보는 너무나 평범한 인생의 화두(話頭),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자신만의 명제일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무엇이 후회되는지 물어보니, ‘좀 더 즐겁게 살걸, 좀 더 인내하며 살걸, 좀 더 봉사하며 살걸.’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지금까지 나는 그런대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고, 욕먹지 않고 인내하며 살려고 노력하였고, 특별나지는 못했지만 봉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안식년을 생각하였고, 지난해 5월 짧은 시간이나마 전후의 이라크에 의료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그리고 친구가 2년간 의료 봉사를 다녀온 아프리카를 생각하였으나, 나이와 현실, 펼쳐버리기에는 아깝고 질긴 인간의 연(緣)에 얽매이며 지나왔다.

그런데 저기 2,300만 평의 울릉도 꼭대기, 984m의 성인봉이 나를 향해 유혹의 손짓을 하였던 것이다. ‘아프리카보다 가깝고, 이라크 보다 위험하지 않고, 5,6도의 나이에 공무원도 시켜주고, 먹고 살만큼 월급도 주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별것 같기도

동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울릉도로 갈거나
금수(錦繡)로 굽이쳐 내리던 장백(長百)의 멧부리 방울 뛰어,
애달픈 국토의 막내 너의 호젓한 모습이 되었으리니...

- 청마 유치환의 '울릉도' -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의료계와 고향에서의 여러 가지 직책과 인연들, 그것은 진료라는 직업적 행위와 더불어 나의 삶이자 생활이다. 이것들을 포기하거나 심하게 변형되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현실이 내 앞을 가로 막았고,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격언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베스트 셀러 '2막'의 저자 스테판 엠 폴란(Stephan M. Pollan)은 '2막이란 우리가 늘 꿈꿔왔으나 어떤 이유로든 이루지 못했던 삶을 말한다. 나이가 많은 경력이 적든, 우리에게겐 현재의 삶을 접고 2막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 이제 1막을 접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찾아 2막의 주인공이 돼라'고 하였다. 나는 내가 생의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변해보지 못한 나의 삶에 후회하지 않겠는가?'라는 자문(自問)을 하고 나의 망설임에 종지부를 찍었다. 생각만 하고 용기가 부족하여 NATO(no action, think only)만 하다가 2막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니 오싹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후회한들 어찌랴. 그래 한 번 변해보는 거야. 설사 2막이 불품없이 끝나더라도 말이다.

언제나 언저리만 맴돌았던 봉사의 중심부를 생각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한 편만을 쓰고도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마가레트 미첼을 흉내 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국토의 막내 울릉도로 왔다. 적어도 그 꿈을 이룰 모티브가 많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의약분업으로 풍량이 일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원가(開院街)의 호수에서 노닐다만 배가 뒤집힐 만한 거센 파도를 피할 수 있으려면, 이제 나의 2막 깃발을 올린 돛단배는 겁도 없이 언제 어떤 삼각파도가 몰려올지 모르는 거친 바다로 나와 버렸다. 행여 운이 좋다면 고래 아니 작은 돌고래라도 한 마리 잡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배가 뒤집혀 물귀신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고 말았다.

과연 나의 2막은?

솔직히 나도 궁금하다.



가족사진

이봉구 이피부과의원 · 경주 / TEL 054-742-1494 / E-mail bk2009@yahoo.co.kr



내가 참 웃기게 꼬장부리는 놈인가 20여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날 대하길 아직도 내내 어려워한다. 그래 그날도 아주 어려워했었다.

“여보! 우리 가족사진 찍을래요.”

정말이지 체면치레 잘하는 선비처럼 엄숙(?)할 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남편은 H 백화점인가에서 건네온 무료 촬영티켓으로 서너달전부터

“여보 찍을래요, 내가 촬영 유효기간 연기해 댔는데요.” 그말에

“알았어, 알았다구.”

그리고 대충 넘어가고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한참이나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유명하단 사진관과 무려 세달씩이나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은 아내의 정성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촬영전선에 나설 수밖에...

아들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니 이래저래 기념이 될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 아내와 아들, 모처럼 셋이서 같이 보는 예매가 정말이지 새롭고, 그간 별 얘기 나눌 수 없었던 나와 아들과의 사이도 목사님의 설교로 말은 안하지만 애비의 부족한 점이 채워지는거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좋은 날, 우리 가족은 상계동 그 사진관을 찾았다.

상계동은 내가 레지던트 할때 참 어렵게 살았던 곳이라 가끔 찾아 나서서 그 곳, 그 살던 곳을 확인하곤 했는데 정말이지 그동안 엄청나게 변했다.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다.

사진을 찍으려면, 그리고 결혼하고 사진관에서 처음찍는 가족사진이라서 옷차림부터 준비가 단단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갔던 차림으로 공짜라니까 찾아 나섰는데...전화로 이리저리 물어 찾은 사진관은 꽤나 후진 뒷골목에 자리잡고 있었다.

복도를 들어서면서 아들과 얘기했다.

“야! 우리 기왕이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음에 올래?”

은근히 아들의 응원을 요청했는데

“아빠! 그냥 찍어요.”

거침없는 답변에 어쩔 수 없이 공짜문을 들어서고, 사진관에 들어서니 약간 쑥스럽다. 몇 가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우리 차례.

아내는 분장실에서 딸, 아들 녀석 그리고 자기 분장에 바쁘다. 슬그머니 나도 그곳에 들어갔다. 아내가 내 얼굴에 분칠을 한다. 어색하지만 그냥 배우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아내가 자꾸 내 섬섬한 머리 손질에 신경을 쓰더니 시간이 꽤 걸린다.

그리고 촬영시간.



난 언제나 이 시간이면 유난히 안면근육이 뒤틀린다. 뭐랄까? 사진찍기 알레르기? 어쨌든 유쾌하게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사진기사 덕분에 힘든 그 시간은 지나가고 그리고 반가운 촬영 끝.

옆방에 가니 바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선택의 기회를 준다. 1번부터 7번까지 좋은 장면, 맘에 드는 화면을 골르란다. 이런 첨단 시스템이 고지식한 의사양반에겐 그저 감탄, 감탄일 뿐이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가족끼리 의견이 충돌한다. 각자 자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을 좋아하니 선택이 쉽지 않을 수밖에. 이럴 때 역시 주인양반은 빈틈이 없다. 무료는 이건데요(아주 볼품 없는 걸 가리키며),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러며 15만원, 30만원, 50만원을 나열했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구요. 잠시 침묵했다... 우리가 언제 가족사진 찍어봤나? 그리고 언제 또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겠나? 난 과감히 얘기했다. “거 15만원짜리로 해 주세요!”(아주 잔돌이인 아내는 그 말에 내손을 꼭 잡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어쩔거냐? 이미 뺀 말인데...) “근데 미안하지만 내 증명사진 하나 덤으로 찍어줄래요?” 난 아내의 손힘 팍조음에 평소엔 하지 않던 오버를 했다.

가족사진!

언제 또 찍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로선 오늘 큰 일 한번 해냈다. 한달 뒤에 찾으러 오겠는데 벌써부터 은근히 기다려진다.



인터넷 예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백두현 고령백의원 · 고령 / TEL 054-954-3669 / E-mail hkbddh@hanmail.net



우리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듯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假想空間, Cyber-Space)에서도 네티즌(Netizen)들이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이를 흔히 네티즌들의 에티켓(Etiquette), 줄여서 네티켓(Netiquette)이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얻기도 하고, E-mail을 보내거나 채팅을 하곤 한다.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하고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사람들이 악용하거나 오용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언젠가 대전 S중 2학년 유모(15)군은 대전시 교육청 홈페이지 토론방에 ‘귀고리를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다닌다’라고 자신을 욕한 글이 뜬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부산 모여대 신문에 복학생들의 문화를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비판한 글을 실은 여기자가 온갖 악랄한 욕설과 비방에 시달리다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익명성(匿名性), 다중성(多衆性), 쌍방향성(雙方向性)을 지닌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이버 훌리건(Cyber-hooligan)들이 득머섯처럼 통신의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폭력, 헛소문의 유포, 은어(隱語)의 남발 들로 인해 오염되고 지체되고 있는 통신 문화를 건전하게 유도하고 발전시킬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네티즌들이 지켜야 할 인터넷 예절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게시판 사용 예절이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지 말 것, 자신이 도움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할 것, 주제에 맞는 글로 일관할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전자우편(E-mail) 사용 예절이다. 꼭 필요한 내용만 예의를 갖추어 보낼 것, 전자우편 주소를 철저히 확인해서 선의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 폭탄메일, 광고성 메일(Spam-mail)을 보내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셋째, 채팅(Internet Relay Chatting) 예절이다. 간단명료하면서 문법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것, 동의없이 대화주제를 함부로 바꾸지 말 것, 상대의 말을 건전하게 비판할 것, 대화를 가로막고 함부로 끼어들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공유 예절이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 불법 소프트웨어를 공유하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공동감시로도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서 예절을 지키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컴퓨터 교과 시간을 통해서 네티켓을 지킴으로써 양질의 사이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의 질이 그 나라의 문화의 질로 평가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네티즌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우리모두 인터넷 예절을 반드시 지켜서 밝고 유익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스트레스는 자기 하기 나름

사공정규 동국대포항병원 정신과교수 · 포항 / TEL 054-288-2139 / E-mail skjk40@hanmail.net



“스트레스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은 예전에 최진실씨가 모 CF에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한 말을 내가 패러디한 것인데, 이 말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귀는데 딱 맞는 표현이라 생각해서 내가 즐겨 쓰는 말이다.

스트레스의 시대라 할 만큼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직장인들은 능력별 연봉제다 성과급제다 하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경제적인 경쟁력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또,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가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거기다가 아이까지 키우자면 정말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기란, 사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이만 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교통 스트레스도 많다.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당당히(?)’ 세계 1등이라고 한다. 가히 ‘인명재천(人命在天)’이 아니라 ‘인명재차(人命在車)’라고 해야 할 판이니, 길에 나서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쉽게들 쓰는 말이지만 정작 질문을 받으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현실에 존재하거나 상상 속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그 개인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자극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자극 또는 사건이다. 실직이라는 자극을 받아도 스트레스이고, 생존자 증후군 처럼 실직 당하지 않고 회사에 나가더라도 “언제 실직 당할까(언제 잘릴까)” 하는 상상 속의 자극 역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원래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는 ‘Stressor’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학문적 의미에서 Stress는 이 Stressor, 즉 자극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 신체의 불균형상태를 말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Stress로 해서 말해보기로 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똑같은 반응을 보일까? 답부터 말하면,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전화 벨 소리라도 빗쟁이의 경우는 혹시 채권자 일까봐 깜짝 깜짝 놀라지만 애인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은 몇 시간 전부터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벨이 울릴 때마다 슬라이딩해서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전화벨 소리는 희망의 소리고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이다.

신혼 첫날밤 아주 젊고 혈기 왕성한 신랑에게는 신부의 샤워 물소리가 신선한 자극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초죽음이 되고 어깨에 힘이 없는 요즈음, 밤이 무서운 중년 남자분들, 흔히 말하는 ‘고개 숙인 남성’에게야,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서 듣는 마누라의 샤워 물소리는 공포의 소리요 고통의 폭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그 사람의 정신적, 생물학적(신체적 상태), 사회적 상태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받아들인느냐에 따라,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자극 또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 하면 부정적인 의미부터 떠오른다. 학문적으로는 좋은 스트레스를 ‘eustress’, 나쁜 스트레스는 ‘disstress’ 라고 한다. 이렇게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신과 신체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몇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겠다. 너무 복잡해서, 다 이야기하면 독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말하기로 한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뇌가 피곤해진다.

원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 전달물질이 있어서 서로 정보 전달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분을 적정하게 유지 해준다.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 여기에 장애가 와서 불안, 우울, 사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를 일으켜 신체에 아무 장애가 없는데도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오게 된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서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 등을 일으키게 된다.

무월경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불임에 이르기기도 한다.

네 번째, 스트레스가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쳐 병에 쉽게 걸리게 한다.

암의 발병에도 스트레스가 관여한다고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미니 AIDS’ 라고 하기도 한다. AIDS는 알다시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다시 말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스트레스도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데서 얻은 별명이다. AIDS는 무슨 말의 준말일까? 아(A)이고 이(I)체 더(D) 이상 살(S)수 없구나.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에이즈의 무서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이다. 죽음의 병 에이즈에 비교될 정도로, 스트레스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현대병의 주범은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스트레스를 피해야 할까?

스트레스는 자극이라고 말했다.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삶이 있는 곳에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야말로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자극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자기실현을 이루게 한다. 학생 시절, 시험이라는 자극 덕분에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현재 직업, 현재의 자기 역할을 하는 등 자기실현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내일이 시험인데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고 잠만 자는 사람은 자기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혼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청량제’, ‘인생의 조미료’이다. 스트레스는 없앨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고통이기보다는 도리어 미래의 전진을 위한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어느 시골 여의사의 기도

서경원 서경원소아과의원 · 경주 / TEL 054-761-4883



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작은 시골의 읍내 시장 옆에 있다. 이곳은 아직 5일장 이 서는데, 특히 이 지역 특산물인 고추를 수확하는 계절에 고추장이 열리면 시장뿐 아니라 자동차가 다니는 근처 도로마저 자루에 가득 넘치게 담긴 고추와 흥정하는 인파로 북새통이 되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한가하고 조용한 그런 동네 이다.

내가 이곳에서 작은 동네병원을 시작한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세상이 많이 각박하다지만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참 많다. 봄철에는 뒷산에서 캔 봄나물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와 진료실에서 수줍게 내밀고 가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가을철에는 갓 수확한 사과며 감, 곡식을 병원에 들고 와서 환하게 웃는 웃음이 있기도 하고, 김장철에는 점심시간에 금방 버무린 김치를 접시에 담아 급하게 오시는 이웃 할머니의 정겨움도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부부의 이혼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린 아이들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겨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동희(가명)라는 다섯 살 난 사내아이도 그런 경우이다.

동희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뻣뻣하게 야윈 몸매에 초라한 옷차림과 얼굴과 팔에 뗏국이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지만, 명랑한 성격과 맑은 눈망울, 귀여운 미소를 가진 아이였다. 부모님은 2년 전 사업부도 후 아이를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께 떠맡기고는 행방을 감춰버려 소식이 두절됐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살림도 어렵고 아이 키우기가 힘에 부쳐서 동희를 자주 씻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셔서 얼굴에 그늘진 곳 없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 동희가 어느 날 진료실의 봉제 곰 인형을 보고는 꼭 안고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인형을 사 두었다가 다음에 왔을 때 선물로 주었다. 당시에는 별 말씀 없시던 할머니께서 며칠 후 동희를 데리고 손에는 작은 비닐 봉투를 들고서 병원에 오셨다. 할머니께서는 늙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동희가 안쓰러운데 그때 인형을 사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비닐 봉투를 내 손에 쥐어 주셨다. 거긴 검은 콩이 몇 줌 들어 있었는데 직접 농사지은 것이니 밥에 넣어 먹으라며 눈물을 흘리신다. 할머니께선 동희가 아플 때면 ‘어미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며 진료실에서 자주 눈물을 보이신다.

아이는 비록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머니의 아주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몸도 마음도 비교적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현대의학과 첨단기술보다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수련의 시절 경험했던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관한 경험을 떠올려도 그렇다. 레지던트로 신생아실을 담당할 때에 아이가 다운증후군 환아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설명해 주면, 어떤 경우는 실망

하고 염려스러워하다가 다시는 면회도 오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더러 있었다. 이런 아기들은 이상하게도 건강이 더욱 나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부모 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태어난 아기가 다운증후군 환아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부터 그 아기를 더욱 더 극진히 보살피며 혹 아기에게 소홀히 하게 될까 봐 동생 가지기도 포기하고 아기만 돌보아서 비교적 건강하게 잘 커가는 경우도 보았다. 특별히 차이 나는 치료를 한 것도 없는데 이처럼 아이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레지던트 2년차 때였던가 보다.

여름 한 철 주치의가 되어 진료했던 다운 증후군 아기가 있었다. 처음 입원 시 10개월 된 남자아기로 선천성 심장질환과 심부전,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 여러 중병을 앓고 있던 유난히 얼굴이 희고 귀여운 아기였었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집을 떠나 몇 년씩 떠돌이 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어머니는 아기가 2개월 때 가출한 상태로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도 아파트 청소부로 일하시며 힘들게 생활하고 계셨다.

입원 후 처음 며칠간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보호자로 있었으나 열흘 쯤 후 보호자들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아기만 중환자실에 버려지듯이 남게 되었다. 그때 난 보호자도 없이 중병을 앓고 있는 아기가 유난히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서 가능하면 한번이라도 더 등도 두드려 주고 가래도 좀더 자주 제거해 주고 우유도 내 품에 안고서 토닥거리면서 먹여주고 빨리 건강해지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곤 했다. 간호사들도 정성껏 돌봐서 아기는 힘든 투병생활을 잘 견뎠다.

그럭저럭 한달쯤 지난 후 갑자기 할머니께서 나타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아기를 보육원에 맡기겠다고 퇴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는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마침 손에 있던 여름 휴가비를 할머니 손에 쥐어 드리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라도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부탁드리며 설득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입원치료를 애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할머니의 마지못한 승낙으로 아기는 계속 입원해 있었고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덧 아기는 입원 중 첫돌을 맞이했고 간호사들과 함께 초코파이 등을 준비해 조출한 생일파티도 열어 주었다. 그리고는 입원한 지 100일정도 지난 후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무렵 할머니께서 다시 병원에 오셔서 아기를 퇴원시키셨다. 병원에서 입원비를 많이 탕감해 주었다는 것과 아기를 바로 장애아 보육시설로 보낼 것이라는 말을 할머니께 들었다. 나는 그렇게 그 아기와 헤어지는가 생각하며 건강하게 커가기만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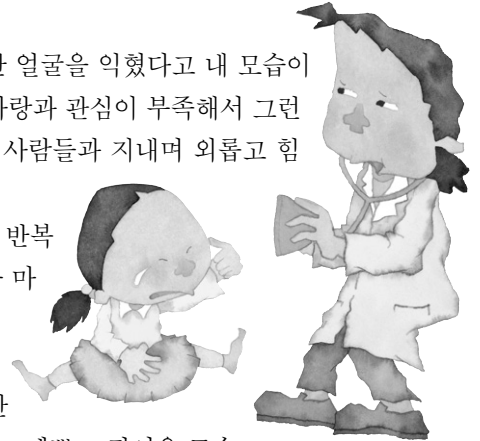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 아기를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 퇴원 후 겨우 3일 만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다시 오게 된 것이다. 마침 응급실 당직 중이던 내가 응급실로 급히 내려가 보니, 작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울고 있던 아기가 날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뚝 멈추고 반갑게 웃는 것이 아닌가!



다운증후군이라서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였는데도 몇 달 동안 얼굴을 익혔다고 내 모습이 깊이 각인돼 있었던 것일까. 혹시 아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것은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가족에게 안겨 보지도 못하고 보육시설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며 외롭고 힘들었을 아기를 생각하니 눈물 맺힌 웃음이 너무 애처롭게만 보였다.

결국 아기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그 해 겨울 결국 심부전과 전신성 진균 감염증으로 짧은 삶을 마쳤다. 지금도 그 아기가 떠오를 때면 가슴이 저려온다.

세상에서 천진하게 방긋 웃는 아기의 얼굴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모습이 또 있을까. 아장거리며 걷는 아기들의 걸음걸이만큼 귀여운 모습이 또 있을까. 부모들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해 주었을 그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함께 나누며,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의 고통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소아과의사들의 특별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열린 마음과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더 쉽게 친밀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환자를 대할 때도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배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나는 겸손한 사람들이 좋다. 진료실에서 내 진심어린 말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믿고 따라주는 환자들이 좋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겸손한 의사가 되기를 노력한다. 환자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픈 상처를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 의사의 임무가 인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라면-물론 인간의 고통을 다 알 수도 없고 덜어줄 능력도 없다 하더라도-과학적 지식에 의해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이 가지는 내면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고, 아직은 서툴고 잘 안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내가 처음 이곳에서 진료를 시작했을 때 강보에 싸여 있던 아기들이 이젠 초등학생이 되었다. 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듯이 나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되고 일손을 놓을 때가 올 것이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마지막 일손을 놓을 때까지 환자를 따듯이 배려하고 친절할 마음으로 대하며 성실한 의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오늘 아침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일과를 위해 기도드린다.

내 작은 병원 문을 들어서서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린다.

심하게 아픈 아기가 있으면 조바심 내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다 나았을 때에는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아이들의 병은 먹는 약이나 주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린다.

시간이 곱이치는 길목에서서

김우석 포항태항외과의원 · 포항 / TEL 054-273-1777 / E-mail drwoosuk@hanmail.net



차가운 겨울아씨의 치마 속에서 아직 늦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때.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고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따라 나부낀다.

내가 있는 병원 앞에는 은행나무가 많아, 길을 걸으면 가을바람과 함께 떨어지는 은행잎들이 겨울아씨가 파란 도화지에 노란 물감을 흩뿌리는 듯하다. 그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나간 추억들, 생을 논하고 철학을 얘기했던 친구들, 술 한 잔 기울이며 밤새워 얘기 나누던 선배와 후배들.

추억의 돌담을 더듬다보면 그 담 한 모퉁이에 또렷이 새겨진 후배가 있다.

※ ※ ※

K는 내 대학후배이자 동아리 후배였다. 키가 크고 잘 생기기도 했지만 사교성이 좋아 선후배들에게 모두 인기 있었다. 운동을 좋아해서 나와 같은 농구동아리에 있었지만 산악부에 들어가 산을 타는 것도 즐겼다. 운동을 한 후 샤워장에서 장난을 하며, 학교 뒤편에서 김치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취기가 오르면 함께 목청 높여 노래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절은 바람처럼 빨리 지난다. 그렇게 우리의 학창시절도 지나갔다.

시간은 흘러 나는 외과전공의가 되었다. 누구나 그렇듯 잠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외과전공의의 생활은 과거 동아리활동이나 후배와의 관계는 잠시 접어둔 채 4년을 보내게 된다. 그렇듯 망각의 어둠 속에 잠시 묻어둔 K의 모습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이식수술파트에 있었다. 이식수술은 장기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때 행해지는 치료다. 또한 정상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이기에 장기를 주는 사람이나 받을 환자 모두에게 위험이 따르는 수술이기도 하다. 신장은 사람마다 2개가 있으므로 가족들에게나 타인에게 이식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간이나 심장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장기이므로 장기를 이식하는 순간 장기를 주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생체간이식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간이식이나 심장이식수술 모두가 뇌사환자에게서만 장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를 기증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장기 기증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이식할 장기가 건강해야 하며, 뇌사상태에서 시간을 끈다면 이식할 장기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항시 대기상태로 있어야 했고, 간을 이식해 줄 환자(뇌사상태의 환자)가 있다면 즉시 수술준비에 들어가야 했다.

어느 날 사고로 추락한 뇌출혈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간을 이식할 의향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부리나케 달려갔다. 그날따라 유난히 중환자실의 심전도 기계소리가 신경 거슬리게 울리고 있었고 한쪽구석에는 한 젊은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단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대학 외과의사라는 특성상 혼수상태 환자는 자주 볼 수 있지만 이식을 할 환자의 모습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뇌사는 비록 뇌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이식수술이 결정되고 수술이 시작되면 환자는 완전한 죽음을 맞게 된다.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중간단계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다는 사실은 항상 미묘한 감정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나에게 던지곤 한다.

사실 이런 경우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환자를 보게 되는데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약간의 충격을 느낄 정도로 놀랐다.

K!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후배였다. 항상 웃음 짓던 입가를 인공호흡기가 가리고 있었고, 정겨운 목소리 대신 심전도 기계음이 내 귀를 울렸다. 암벽등반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다.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 전부터 뇌손상과 출혈이 심하여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K의 아버님은 의사였는데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가업을 이을 수 있게 의대에 들어간 아이가 K였다. 슬픔이 크셨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왜 아들의 장기를 이식할 결심을 하셨을까? 아마 아버님으로서는, 어차피 떠날 목숨이라면 의학도답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죽음을 맞게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아버님은 장기기증 의향을 밝히셨고 우리 팀에 연락이 온 것이다.

※ ※ ※

이식은 장기를 제공하는 환자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뇌사의 판정이 엄격하다. 일정시간 동안 뇌파의 움직임이 없어야하는 외에도 수십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며 담당전문의 외에 전문의 두 명이 모두 뇌사 판정에 동의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필요한 시간의 흐름은 이식할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검사가 진행될 동안 환자의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예기치 않게 판정이 지연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판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판정이 지연되면 이식할 장기의 손상가능성이 커지고, 손상이 일어나면 이식수술을 못하게 되어 아픔을 감수한 보호자의 결정은 덧없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일로 이식수술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이식수술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의 실망감도 말로 못할 만큼 커진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은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도 스크린의 영화처럼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니 평소와는 똑같은 모습이 내게만 그렇게 비춰졌는지도 모르겠다. K의 어머니는 떠나보낼 아들의 모습을 보기 힘드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만이 담담하게 이식수술을 담당하실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수술동의서. 단지 검은 잉크에 물들여진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사인을 하시는 아버님의 손은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 ※ ※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이식할 장기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가 나빠지므로 시간을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술준비는 환자보호자의 승낙과 함께 바로 시작된다.

K의 뇌사판정이 시작되고 동시에 수술준비도 시작되었다. 수술부와 마취과, 그리고 외과가 하나가 되어 바쁘게 움직였다.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이식할 장기 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반사반응과 뇌파검사가 시행되었다. 이식수술을 받기 위한 환자도 병원에 도착했고 수술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간이식을 받을 환자가 먼저 병원에 도착하고 뒤이어 신장이식을 받을 두 명의 환자도 도착했다. 각각의 담당주치의들은 수술준비를 시작했고, 중환자실에서도 수술 후 간호하게 될 이식환자를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다. 수술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K가 뇌사상태라는 사실은 그 시간까지 당연시되었다. 다만 완전한 판정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때 잠시, 아주 짧게 뇌파의 반응이 보였다. 그리고 다시 반응이 없었다. 판정을 위한 각 과의 과장님들이 다시 모였다.

뇌사상태판정 유보, 수술취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럴 때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있다. 이것으로 이식을 못하고 그냥 후배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아들 앞에서 조그마한 가치나마 살리고 싶은 아버님의 뜻도 힘없이 꺾이는 것이다.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던 환자는 더욱 큰 실망감에 휩싸인다. 이런 경우 겨우 견디고 있는 병마와의 싸움에서 힘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면 차라리 이식결정을 하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아주 짧디 짧은 뇌파의 움직임... 이런 경우라면 뇌사라고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당시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미 없는 삶을 사느니보다 차라리 가치 있는 죽음이 낫지 않을까? K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과연 내가 저기에 누워 있다면, 그리고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결국 그 날 수술은 취소되었다. K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다시 시간은 흘렀다. 이식파트에서의 내 시간은 끝나고 다른 파트에서의 바쁜 시간이 시작됐다. 그렇게 다시 K의 기억은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K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달음에 달려간 중환자실에서 본 그의 눈은 분명 나를 보고 있었다. 비록 말을 할 수 없었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K는 분명 눈을 뜨고 있었다. K의 주치의였던 동료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정말 살아 날 줄은 몰랐어.”

생명의 신비로운 힘은 어디까지일까? 생각지도 못했던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숨을 거둔 경우도 있었다.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환자가 마침내 완쾌되어 웃음을 짓는 모습도 보았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보듯 삶과 죽음의 시간을 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지혜의 공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K의 경우는 이식수술을 바로 앞두고 수술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다.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는 일말의 가능성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 때 그냥 이식수술을 했더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것이고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차피 사그라질 생의 촛불이라면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은 심지를 잘라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꺼질 듯한 생의 촛불이라도 완전히 사그라질지 다시 피어날지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시간은 흘러 K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바쁜 전공의 생활에 빠져 그에 대한 일도 다시 기억 저편에 잠겨들었다.

전문의가 되고 추억어린 군의원 생활.

군 생활이 끝나고 나는 대구 근교 중소병원에 취직해 외과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출근 첫날, “똑똑”노크소리와 함께 “형, 오랜만이네요”하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K였다.

“1년 전에 의사시험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인턴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겁도 나고 해서 아버님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어요. 형! 많이 가르쳐 주세요”

조금 살이 붙은 그의 모습은 건강해 보였다.

신임과장을 환영하기 위한 회식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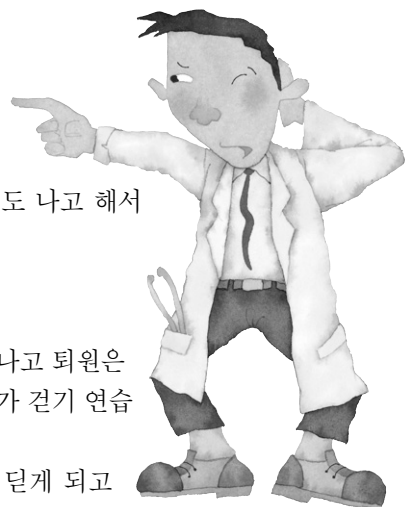
K와 가까운 분에게 이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랜 병원생활이 끝나고 퇴원은 하였지만 당시 K는 걸음도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 매일 산에 올라가 걷기 연습부터 시작할 모양이었다.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걷다가 넘어지고...

신은 인간이 이길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했던가? K는, 조금씩 걸음을 던게 되고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즈음 다시 의대에 복학했다. 하지만 기억력에 장애가 있어 학과공부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한 모양이었다.

의사국가고시!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험에 보란 듯 합격했지만 인턴생활을 하기에는 K도 힘들어했고 병원도 난색을 표했다. 그 무렵 의사이셨던 아버님이 병원을 세웠고 K는 병원실습을 겸해 아버님의 병원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K의 모습은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억에 장애가 있고 미세한 손의 움직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말을 할 때도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다. K는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위해 클래식기타를 배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환자와 이야기도 하고, 내가 회진을 돌 때는 나를 따라다니며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였다. 수술을 할 때도 수술하는 나의 옆에 서서 열심히 지켜보곤 했다.

환자에게는 실력이 있는 의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를 필요로 할 때가 더욱 많다. 비록 K가 지금 있는 장애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훌륭한 실력을 가진 의사가 못 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한 의사는 될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본 사람만이 진실로 생의 기쁨을 느낀다고 했던가? 그러나 의사이지만 의사의 일을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간호사들의 미묘한 시선들 속에서 갈등이 심한 모양이었다. 처음에 모든 일에 열심이었던 모습과는 달리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고 주위사람들에게 신경질도 심해지고 엉뚱한 일도 벌이곤 했다.

햇살이 따사롭던 5월이었던 것 같다.

아침에 환자를 회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느린 걸음으로 따라오는 K를 보았다.

“힘들지? 아직까지 몸도 마음 같지 않고, 조그마한 봉합술도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되고...하지만 네가 겪었던 일은 너 외에는 아직까지 겪어본 사람이 없다. 수많은 환자를 보고 수많은 수술을 경험한 의사도 네가 겪었던 경험은 해 본적이 없어. 그만큼 너는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생명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너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그 경험을 기억하고 키울수록 너는 분명 멋진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다.”

회진이 끝나고 병실 앞 의자에 앉아 K에게 건네준 말이다. 풀이 죽은 듯 그의 모습이 안쓰러워 해주었던 그 말이 다소 위안이 되었는지 K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은 나에게 봄날의 사진처럼 따스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다음 해에 K는 어느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 무렵 나도 그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K와의 연락은 끊어졌다.

4년이 지난 후 공항에서 K를 만났다. 서울학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K도 학회에 참여했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다. 지금은 산업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한다고 했다. 직접 환자를 보는 것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나로서도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결혼은 했다고 했다. 아이는 둘이 있다고 했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 ※ ※

글을 쓰는 동안 창 밖의 은행잎이 바람에 실려 책상머리에 앉았다. 햇살은 노란 잎에 살짝 앉았다가 다시 나뭇가지 사이로 올랐다.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다시 내려 주위를 둘러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보인다.

아파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듯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는 사람들.

아픈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우리도 그들과 우리를 다른 선상에 놓고 본다. 그들이 아프듯 나도 아플 수 있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듯 나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작은 지식의 상자를 가지고 우쭐거리지 말고 큰 지혜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겠다. 우리 주위에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다. K를 생각하면 주어진 시간에 더욱 열심히 살고 싶어진다.



시론



김두희

경북대 의대 명예교수
E-mail doohie@hanmail.net

의학과 의료는 오직 한 길

1. 독소적 언어조작을 배격해야 함

의료시혜(醫療施惠)를 위한 법을 시행함에 있어 그 근본을 흔드는 언어가 생겨나고 있다. 지적에 앞서 우선 시혜의 뜻이 수혜자(受惠者)의 건강회복이나 생명연장과 직접적 영향으로 연계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병고를 해결해 주는 행위를 시혜라 하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을 수혜라 한다. 그래서 그 대가를 수가(酬價) 또는 보수(報酬)라 한다. 고로 시혜는 의사와 비의사가 의학(醫學)이라는 학문을 공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보험사회 도입이후 법률적 용어를 자주 쓰는 자칭 보건학자라는 이들의 논문 또는 토론장에서 의료공급-의료소비라는 말로 대치함으로써 그 격을 격하시키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의료는 물건이 아니다. 히포크라테스나 손사막이나 동봉행림(동봉행림)과 같은 의료윤리 정신은 어디론가 팽개치고 일반 시장경제 용어인 수요공급이라는 말에 적용시켜 시혜자를 의료공급자로 수혜자를 의료소비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은 의료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고자하는 위험한 의도가 들어있다. 환자에게 보내는 자비와 사랑 정신에 찬물을 끼얹어 물건처럼 사고파는 의료, 즉 환자를 두고 흥정까지 유도할 수 있는 언동으로밖에 볼 수 없기에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흘러나오는 말은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여 내년(2006)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이어 청와대에서 홍창선의원의 주최로

열렸다는 “바이오산업 어떻게 될 것인가(2월21일 의협신문)”라는 세미나에서는 박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앞으로 의료업의 정의를 바꾸어 영업세를 부과하려는 시도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 세미나에서 획일적인 저가의료보험수와와 민간의료보험의 부재가 의료산업화를 막는 핵심이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산업화라는 말에는 역시 저항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의료의 근본을 뒤흔드는 소행이라 볼 수 있다. 비록 너무나 저렴한 의료보험사회이기는 하지만 본래의 자비와 사랑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최근 또 다른 일각에서는 법에도 없는 새로운 의료인의 명칭이 탄생되어 나도 몰래 코웃음이 튀어나왔다. 이게 바로 무법천지이란 것을 직감한다. 도대체 [의과의사]가 무엇인가? 한의사·치과의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임은 감으로 알겠으나 만약 그렇다면 한의학과 치과의학은 의과의학이 아니란 말인가! 의사이면 되었지 굳이 그렇게 의과라는 접두어를 붙여 대비해야하겠는가. 물론 분화의 역사를 모르는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하여 다른 한 쪽이 격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마도 일본의 명치유신 시절의 시볼트(Siebold)사건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모양이다. 오늘에 우리는 그런 불상사를 되풀이하는 것 보다 의학은 하나라는 개념을 버려서는 아니 될 것 같다.

2. 원시의학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인가?

의료 인력에 대한 지각변동이 감지된다. 옛날부터 의사들의 손이 모자라서 보조자로 길러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그 학문의 독립성이 인식되자 첫 번째로 약사, 두 번째로 치과 의사가 독립진료를 하게 된지 오래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는 약사는 약사법에 의하여 독립되어있고 의사는 치과 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조산사 및 간호사까지 의료인이라는 대열에 올려진 지 수십 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조산사에게 이상(異常)분만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고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물며 일반간호사에게 독자적인 진료(診療)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한 때 무의촌 해소책을 명분으로 하여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동원령을, 일반 정규의사 국시 불합격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외국으로 나가는 의사에게 그리고 전공의 수련과정에 보건지소 근무 6개월간, 그리고 간단한 치료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지역사회보건요원(CHP=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자격을 주어 각각 오지에 배치시켰고 또 가정간호사를 양성하여 의사 손이 닫기 어려운 가정을 방문 간호하는 등의 정책적 응급조치를 하는 이면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증원을 도모하여 1960년대의 8개 의대(연간 320여명 배출)가 오늘에 41개의 의대로 늘어나 매년 3천3백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게 되어 방방곡곡의 지소에 배치하여 무의촌은 없어졌으나 의사 수가 필요이상으로 넘쳐나게 되었다.

이중 지역사회보건요원과 가정간호사는 역시 수 준의상의 진료는 지도의사의 소관으로 연결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근본적인 진료행위를 독립적으로 하겠다니 참으로 무례하다. 그래서 그런지 하물며 의료기사들까지도 독립 체제를 갖추고자 법을 입안 제안하고 있다니 정말로 쓴 웃음을 금치 못한다. 현행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보건, 마취, 가정간호, 정신, 중환자, 산업, 감염관리, 응급, 호스피스, 노인간호)를 두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전문 의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물의 없이 만들어진 것인데 난데없이 그들로 하여금 해당 전문의들의 일까지 단독진료를 위한 병·의원급과 같은 형태의 진료센터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은 옳지 못하다 하겠다. 여러 개의 분과전문의까지 만들어낸 내과 의사들과 전문간호사들과 동격으로 볼 수 있을까.

또 최근에는 한의사가 CT촬영을 처방하고 판독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로써 지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분화되어 있는 의료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짚으려 해도 잘 짚이지 않는 병소를 주먹으로 짚어서 치료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암도 육안은 고사하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유전자치료를 시도하는 마당에 옛날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쓰다듬어 복통을 치료하는 시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일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럴 경우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CT나 MRI 등의 영상의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런 류가 아님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고는 하나 서양의학도 갈레누스의학 시절(약 1,400년간)까지만 하여도 약초가 주된 처방이었던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말하자면 현미경을 발명한 이후부터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다. 오늘까지의 한의사의 교육과정에 최첨단 의술로 진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있다고 하더라도 실습과정이 생략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강의는 의대 교수를 초빙하여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의학적 접근을 하라는 뜻이지 직접 이런 정밀 진료를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참으로 무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분수에 넘치는 일을 저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 맡은바 의무를 다 하며, 서로 도우며, 업무에 임하게 되면 사랑이 절로 일어나게 될 것으로 안다. 여기서 교과과정 이야기는 생략한다.

다만 의학은 분화하였지만 적용되는 환자는 오직 한 사람의 환자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전문인도 아닌 사람이 초 전문영역을 함부로 처리한다면 과오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라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의사는 자기가 배운 범위 안에서 서서로 양심껏 진료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식이 곧 성문화된 법률의 저변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다만 즐거운 미래상은 보여주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지나친 양상이 안타깝기만 하다.

3. 의학은 하나

근본을 흔들어대는 정책 의료사회의 경향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저렴한 보험료로 수혜를 바라는 심정을 이용한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간주된다. 인도주의적 민주국가를 구현하는 국민으로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부여하려한다면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정신이상, 치매, 고혈압, 당뇨 등의 퇴행성 장기질환자의 수용시설을 고무적으로 장려해서 만들고 보다 격조 높은 복지정책을 유도하여

넘치는 전문일력을 흡수해야할 것이다. 혁신적으로 뒤집을 것이 따로 있지 아무거나 뒤집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나 저렴한 의료보험료와 요양 없는 의사의 증원(90년대 초 5년 사이에 10개의 의과대학을 허가)에, 또 부적절한 의약 분업까지 설상가상으로 오늘의 의료계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의 소식에 한약재의 간장독성문제와 관련하여 양·한방간공방의 해결책으로 가까운 기간 내에 이를 분석하여 유효성분을 입증하겠다는 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데 대하여 극히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의 사회는 국민 각자가 기른 능력만큼 대우를 해주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소리높이면서 의료계에 대한 예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의사들은 나름대로 어렵게 배운 모든 것을 사회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처럼 혹독하게 냉대하여도 되는 것인가! 발상지가 다른 한의학이라도 의학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이니까 한 개의 전문분과로 인정하고자 하는 소위 통합의학을 주장하는 그룹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의학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의료계 간부들이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고맙게 생각된다. 그리고 일부이지만 선진 의료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대학원 대학(의료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기성의학자들도 한림원을 만들어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이 가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의 근기로서 그런 소망의 의사나 학자가 되는 길은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 해외재난 한국 민·관합동의료지원단 |

반다아체 의료봉사활동 보고서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
TEL 054-743-2645 / E-mail woo1801@hotmail.com

편집자 주

본회 변영우 회장(의협 부협회장)은 지난 연말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은 서남아시아중 제일 피해가 극심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반다아체지역에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 국제보건의료 발전재단을 포함한 '해외재난 한국 민·관 합동의료지원단'의 단장으로 참가하여 2005년 1월 12일~22일까지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신고자 한다.

재난, 구호활동도 세계화

지난해 바쁜 년 말, 지구촌 서남아시아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수십만 명의 사망, 실종의 인명피해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 수만 채의 가옥과 도로, 교량, 선박이 파괴된 금세기 최대의 재앙으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들을 돕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선진부국들은 거금의 구호기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각국 국가원수들이 긴급히 한자리에 모여 구호활동을 논의하면서, 국제적 재난구호에 지구촌이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구호활동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을 보면서 지구촌의 세계화란 비단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참사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슬픔을 나눌 줄 아는 국민, 또 얼마나 신속하게 도울 태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도덕성등 세계화의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나라도 구호 지원국으로 당당히 참여하고 있으며 “지구촌 대재앙을 돕자”라는 범국민 캠페인을 펼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의료진 구호팀들이 피해현장으로 달려가 난민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료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지진해일로 서남아시아 11개 국가가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는 40여 개 국가에 달하니 이제는 재난도 세계화가 되었다.

출발

“해외재난 한국 민·관합동의료지원단”(인원 24명)은 의사 10명, 간호사 6명, 약사 1명, 기술자 1명, 행정요원 3명, 보도 1명, 통역 2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두들 건강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분들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진료 및 구호 활동을 해주었다. 인천공항에서의 발대식은 민관 합동의료지원단 명칭에 어울리게 각 단체의 많은 내빈들이 참여



해서 장도를 빌어주었다. 출발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는 우리가 활동 할 재해 지역에 연일 진도 6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창궐이 우려되며, 아체 지역에 반군들의 총격전이 있어 현지 경찰 1명이 사망하고 구호단이 구호물품을 강탈당하여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기사와 함께 조만간 반군의 최후 공격이 시도 된다는 원주민들의 소식이 실렸다. 단장으로서 모든 단원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걱정으로 온몸이 긴장되었다.

반다아체 공항

인천에서 7시간을 비행한 후 자카르타에 도착하니 마침 그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자카르타의 많은 간선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우리를 태우러 온 버스가 2시간여 지체 되었다. 밤 12시쯤 인도네시아 의사회관에 도착해서 1진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후, 잠자리에 드니 새벽 2시다. 2시간정도 눈을 붙인 뒤 4시에 기상해서 약품 상자를 챙긴 후 새벽 7시 반다아체로 향하는 ‘가루다’ 항공기를 탔다. 3시간 정도 걸려 피해지역인 반다아체 상공에 도착했다. 지진 발생 후 보름이 지난 후이지만 쓰나미가 휩쓸고 간 황량한 해변은 경계가 들쭉날쭉 흐릿했으며, 가운데로 누런 황토물의 아체 강이 흐르고, 해변가 바닷물의 색깔도 황토물로 띠갈



2진과 인수인계 설명 중인 독일의사 플로렌

이 누렇게 길게 얼룩져 있고, 누런 물웅덩이, 부서진 건물, 드문드문한 야자수 나무가 당시의 참혹했던 모습을 전해주고 있었다.

반다아체 공항은 작았지만 총을 든 군인들, 주민들과 각국의 구호단원들로 북적되었고, 냉방장치가 없어 후덥지근 하였다. 대형 군용기가 도착하여 구호용품을 내려놓고, 공항입구 벽에는 실종자를 찾는 사진, 쪽지들이 빈틈없이 뽁뽁이 붙어 있어 지난날 남북이산가족 찾기 모습을 보는 듯 했으며, 공항마당에 군용천막과 이재민천막이 많이 쳐져있어 대재앙의 긴장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료소와 숙소

진료는 도착하자마자 오후부터 시작했다. 난민촌 중 제일 규모가 크다는 마따이 난민촌 진료소다.

난민촌 가장자리 약간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천막 진료소이다. 막사주위에 배수가 잘 안되어 하루에 한 번씩 내리는 소낙비에도 천막내로 물이 들어오고 진료소 바닥이 질퍽거리 진료하는데 많이 힘들었다.

1진들은 더 악조건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산원 양성소의 교실을 빌려 숙소와 약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직접 수해를 당한 지역으로서 건물주위와 길 전체가 하수도 진흙으로 넘쳐 있어 발을 옮겨 놓기도 매우 힘들었으며 장화 없이는 숙소 밖으로 한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오물의 악취가 코를 찌러 참기 힘들었다. 숙소는 교실 한 칸을

빌려 남녀단원이 같이 사용했고, 교실 모퉁이에 담요를 쳐서 만든 간이 탈의실이 어려운 사정을 말해주었고, 화장실은 한곳이 있는데 사용 후 바가지로 물을 떠서 씻어내도록 되어 있어 여성단원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었겠구나 걱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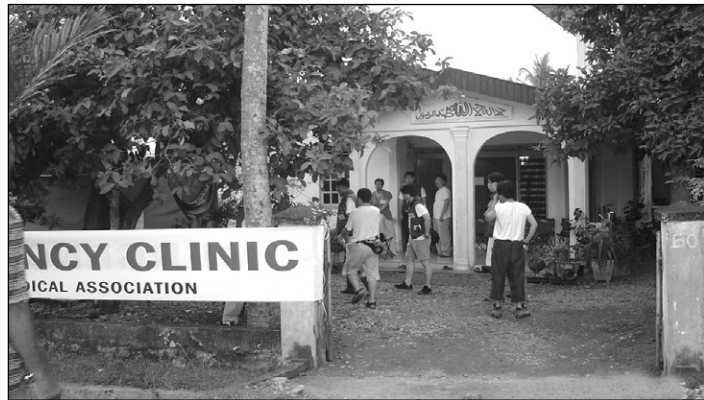
점심은 햇반, 참치 캔, 김, 컵라면으로 했다. 아체 지역에 있는 동안 식사메뉴는 똑같았다.

일본 구호단

케다방 지역의 진료실은 수해를 입지 않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료지원단은 이곳을 본부로 사용했다. 이곳 또한 조금만 비가와도 발목이 잠길 정도의 물구덩이로, 장화가 꼭 필요한 진료소였다.(그래서 장화를 긴급 공수해왔다.) 이곳은 일본 자이카



아체공항에서 만난 외교부 직원



케다방 진료소



진료팀별 회의



다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난민촌 천막

진료팀(JAPAN DISASTER RELIEF MEDICAL TEAM)이 먼저 진료를 하고 있는 곳으로서 인도네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는 앞마당에 여러 동의 멋진(?) 천막을 치고, 총을 든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진료하고 있었다. 우리 들은 일본진료소 모퉁이에 진료소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옥신각신 끝에 일본팀이 진료하는 시간을 피해 진료하겠다고 약속한 뒤, 겨우 한쪽 모퉁이에 큼지막한 천막 진료소를 설치했다. 일본팀 진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2시부터 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어제 오후에 진료 받았던 환자들 이 아침부터 오기 시작했다. 오후까지 기다려 달랄 수도 없어 진료를 시작하니, 일본 단장이 약속

이 틀린다면서 항의를 해왔다. 약속은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배짱을 내밀고 계속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뒤에 서로 방문해서 사과를 하고 풀었지만 한 동안 서로 불편하던 시기도 있었다.

일본팀과 한국팀 모두 국가 대표팀으로 왔는데 모든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났다. 일본팀은 진료소 설치장소 선정,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이들의 안전을 위한 경비, 좋은 숙소, 좋은 차량 이용 등 이것이 국력의 차이인가! 우리나라 관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슬그머니 화가 났다. 그러나 일본은 잦은 지진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과 준비가 뛰어났다. 진료소용 천막, 장비 등 모든 것이 사전에 셋트화 되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듯 했고, 의료진들도 진료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듯 능숙



미니버스로 이동중인 지원반



기능이 우수하고 세련된 일본팀 진료 천막



일본진료팀과 함께

했다. 우리들이 배울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팀이 진료가 끝난 뒤 일본 진료소를 돌아보고 사진에 담아두었다. 돌아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우리팀이 훨씬 더 친절하고 성실했으며, 실력도 더 있는 것 같았다. 매일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일본팀은 3진이 온다고 하다가 갑자기 2진을 끝으로 철수하였다.

방역 및 간이 정수시설

우리 팀의 방역활동도 케다방, 마파이 난민촌 등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 때가 우기(雨期)라서 많은 비가 자주 내려 곳곳에 웅덩이와 습지가 생겨 모기가 많아 켜고 위생이 불결했다. 두 지역에서 아침 저녁 하루 2회씩 포그기로 멩게구름 흰 연기와 함께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천막촌과 마을을 돌았다. 지역민과 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군인들도 천막 안에 뿌려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수해 재난 때



프랑스 구호팀이 설치한 간이정수장치

할 기회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난민촌 내에 간이 정수장치시설을 해서 난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시설자체도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도 않았다. 수해재난 지역에 구호활동을 나갈 때는 꼭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정수기 판매 선전을 보면 정수기술도 세계적인 것 같다. 이외의 장비로는 발전기, 위성폰 전화기, 천막 및 야전용 침대 등을 준비했다.

진료팀의 하루 일정

진료팀의 하루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하루만 진료하려면 시간에 관계없이 오는 환자를 다 보아야겠지만 여러 날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짰다. 아침 6시 기상, 7시30분 식사, 8시부터 아침 미팅, 9시부터 진료, 12시부터 점심, 1시부터 오후 진료시작, 5시 진료 마침, 7시 저녁, 8시 저녁 미팅, 10시 취침으로 정했다. 진료시간은 5시까지 오는 사람은 다 진료해주니까 보통 6시쯤 진료가 끝난다. 그리고 응급환자는 시간에 구애 없이 언제나 진료를 해주었다. 아침 미팅 시간은 종교에 관계없이 각자 눈을 감고 5분정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



아침, 저녁으로 방역활동



케다방 진료소

는 대민봉사를 위해 필히 준비해야 될 장비다. 장비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이번에 선진국에서 많은 구호 팀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호주팀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난민촌을 방문

했다. 그리고 오늘 할 계획들을 전달하고 열심히, 친절하게 진료하고 스스로 안전을 위해 조심 할 것을 강조한 뒤 단원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을 힘차게 외치며 진료실로 향했다.

안전수칙은 진료소를 될 수 있는 한 떠나지 말고 혹시 외출하더라도 2명 이상이 같이 행동하고 꼭 진료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대부분의 물이 오염되어 있어 식수뿐만 아니라 양치도 생수로 하고, 외부 음식은 될 수 있는 한 삼가하라. 아체지역에서는 면도는 하지마라, 상처가 나면 혹시 파상풍이 염려된다.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에 따라 복용해라. 환자 진료 후 개인위생에 신경 쓰라 등이었다.

환자 진료

이번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지금까지의 지진피해로 인한 인명손상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인 지진피해 시는 사망이 적고 부상자가 훨씬 많은 것이 보통인데, 이번 지진 해일은 대부분 사망, 실종이 대부분이고 부상자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우리가 진료한 많은 환자들도 쓰나미 당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기보다는 그 후 복구하다가 다친 사람, 감기, 설사, 피부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일반질환과 만성질환으로서 응급환자는 드물었다.

마따이 진료소 옆에 있는 요르단 이동외과병원은 좋은 건물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의사는 5명으로

전침대에 누워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다. 환자가 많아 땀 흘리며 치료하고 있는 우리 진료팀과 비교가 되었다.

마따이 난민촌 진료소에 젊은 나이의 남자 주민이 찾아왔다. 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며칠간 먹지 못해 다 죽어 간다며 왕진을 와달라고 했다. 반군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라 약간 망서려지기도 했지만, 환자상태가 급하고 또 우리가 고용한 현지운전기사가 있고 해서 간호사, 통역과 함께 따라나섰다. 진료소



진료 모습



두부를 심하게 다친 환자 수술장면



마따이 진료소

작은 수술을 할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0일정도의 진료기간동안 맹장염 수술 1건, 항문주위농양수술 2건, 창상부위 조직제거술 2건정도로 시설에 비해 진료량이 너무 적었다. 의사들은 아

에서 차로 약 5분정도 걸리는 골목 구석 안쪽에 사는 일반 가정이었다. 환자는 약 2년 전부터 뇌졸중 상태로 고생해오다가 최근 더 악화되고 먹지도 못

해 혼수상태, 전신쇠약, 엉덩이에 욕창이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였다. 진찰 후 수액제를 연결하면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CT촬영을 권하였으나, 자기들 경제적 형편으로서는 치료가 어렵다며 우리들에게 치료를 요청했다. 그 후 매일 왕진을 하며 영양수액을 충분히 갈아주고 욕창치료를 해주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정성껏 치료를 해주어 환자도 전신상태가 약간 호전 되어서 가족 친지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과를 대접하기도 했다. 우리가 떠나며 인수인계를 잘되어서 3진과 4진도 계속 왕진을 해주었고 4진이 철수 할 때까지 환자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하니, 지역민들에게 한국의사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진료하는 좋은 인상과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 뒤에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참혹한 피해현장

일요일 아침 식사 후, 진료시간 전에 피해지역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처음 쓰나미가 들이 닦친 바닷가로 나갔다. 군인들이 길 입구에서 총을 들고 통제하고 있었다. 한국 구호팀이라고 하니 꼭 마스크를 쓰라고 하며 통가시켜주었다. 길거리 양옆으로 재해지역에서 가져온 재난 쓰레기 더미가 줄을 이어 넘쳐나고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 쓰레기더미 사이로 작은 여인으로 보이는 시신의 일부가 덮여둔 천 조각 사이로 보인다. 시체를 담은 검은 비닐봉

지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지진해일이 처음 닦친 해변은 모든 가옥이 파괴 되었고, 큰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갔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한국인이 경영했다던 시멘트공장도 폐허가 되어있었다. 가이드는 20M 쯤 되어 보이는 야자수 나무를 가르키며 해일이 저 나무를 넘어서 덮었다고 전해주었다.

시내 재난 지역은 더 참혹했다. 상가지역, 변화가, 관공서 지역 등 중심지역은 모두 침수, 파괴 되었으며 큰 강 옆으로는 부서진 큰 배들이 높은 다리위로 걸쳐 있고 강 양옆으로 이어진 모든 마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몽땅 파괴되어 폐허가 되어있었다. 시내 중심가 대사원 옆의 연못에는 군인과 경찰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치우면서 연신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찾아내고 있었다. 시신의 신원 확인은



실종자를 찾기위한 쪽지들



악취가 심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



아체강 주위의 파괴된 선박과 잔해

육안으로는 거의 불가능 해보였고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시신에서 반지 목걸이를 빼내고 검정비닐 봉지에 시신을 담은 일들을 무표정하고 덤덤하게 하고 있었다.

저것이 정녕 인간이 죽은 시신이란 말인가! 정말 죽고 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울적해지며 가슴 깊숙이 무거운 것이 북바쳐 오면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모두들 말이 없었다.

저녁식사 후 모든 단원이 모여 처음으로 열대과일 잔치(?)를 했다. 달고 맛이 있었다, 망고, 람부다, 망기스, 말리스, 뚜구, 굴 등.



끝없이 펼쳐진 폐허

반군

아체 지역은 본래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옛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는 곳이다. 아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독립군이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반정부군이다. 그래서 총격소리와 인질납치 등 늘 소요가 잦은 곳이다. 평소에도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이곳에 잘 드나들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처음에 쓰나미 피해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아체 지역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까봐 피해상황을 축소해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규

모가 너무 엄청나게 커지므로 어쩔 수 없이 세계의 구호팀들이 들어오도록 개방 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 쓰나미 피해지역이 세계에 타진 될 때 지진 발생지역인 인도네시아보다 몇 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스리랑카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했으며, 수십만이 죽고 실종 되었으며, 수백만명의 이재민들이 생겼다고 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도 아체 지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이 지역이 노출되고 주목을 받는 것이 두려워 3월 이후에는 모든 외국 구호팀이 아체 지역을 떠나줄 것을 발표했다. 제2의 동티모르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아체 지역은 이번 재난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 독립의지를 전달하는 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나, 이번 재난으로 독립을 이끄는 이지역의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희생되어 오히려 독립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2천만으로 세계 4번째 대 인국으로 이슬람 국가이다. 4개의 큰 섬을 비롯한 약 14,000개의 섬과 300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언어도 서로 다른 종족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독립일처럼 인도네시아도 1945년 네델란드로부터 독립되었으며 수카르노, 수하르트 등 전설적



숙소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군인

인 대통령들이 있었다. 세계제일의 금생산국이나 모든 경제는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어 있고 화교들이 상권을 잡고 있다고 한다. 지난 동남아시아에 불어 닥친 IMF때 큰 타격을 받아 지금도 헤어가지 못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일백만 루피아(한화 약13만원정도)정도이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착하고, 눈이 마주치면 웃음으로 인사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눈은 너무 맑고 유난히 빛나고 아름답다.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며 하루 5번 기도를 한다. 우리와 함께한 간호사, 운전기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빈국에서 흔히 있는 부패상도 눈에 띈다. 공항에서 화물을 찾을 때 급행료가 없으면 찾기가 매우 힘들다. 교통수단은 대부분 일제 오토바이이

며 보통 2명이상타고 다니며 많게는 한가족 5명이 타고 가는 것도 보았다.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바자이’이라는 삼륜차도 있다.

오토바이 탈 때는 모두 헬멧을 쓰는데, 그것은 수하르트 3째 아들이 헬멧 공장을 해서 법으로 헬멧을 쓰도록 정했다고 하는 우스갯말이 있다.

의료지원단의 문제점

이번 해외재난 민관 합동 의료지원단은 명칭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소위 한국을 대표한다는 구호팀이 어떻게 진료장소 하나 확보하지 못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본 진료팀 마당 모퉁이 물구덩이에 겨우 진료소를 차려야하나, 정부보다 못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아체지역 시장



요르단 이동외과병원을 방문하고



임시천막학교



외교부 참사관과 함께

한(?) 서울시청, 적십자와 글로벌 케어등 우리나라 NGO 구호팀들까지 육군병원, 시립병원 등 진료환경이 갖추어 있는 곳에서 진료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데 민관 합동의료지원단은 진료소를 찾지 못해 헤메고 다니고, 숙소, 통역, 차량 지원 등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구했으니, 관의 역할이 도 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와 함께 조인해서 활동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의 역할도 미흡했다. 간호사 1명을 지원해주고 의사협회장의 격려방문이 있는 정도로 우리들의 진료활동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규모면이나 능력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철수 때 2트럭분의 약품과 의료소모품, 발전기,

포그기, 텐트 등 의료장비를 김재정 의협회장님의 뜻에 따라 인도네시아 의사사회에 기증하기로 하고 품목서를 전달했다.

이번 민관합동지원단이 활동하는 시기에 한국 구호단 약 170여명 정도가 아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시청, 적십자, 글로벌 케어, 기아대책, 코이카 등이다. 의료구호단 인원으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참여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한국 구호단 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누가 어디서 활동하고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남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대사관을 중심으로 봉사단끼리 서로 연락하고 대표자 미팅도 주기적으로 열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협이 이 역할을 맡아도 된다. 타국인을 도우러 가면서 외국에서 우리 국민끼리 서로 연락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이곳에 한국 의료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각 단체를 찾아보았다. 참사관님도 만나 현지 사정에 대해서 들었고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구호팀과는 모자라는 비타민과 소아시럽 약을 보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통역 2명을 지원 받아 큰 도움이 되었고, 있는 동안 서로 의지가 되고 든든했다. 또 케스담 육군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서울시청팀, 인도네시아 의사사회 진료본부도 방문했다.

우리나라는 각 유명 언론사, 대형병원, 종교단체 NGO에서 의료지원단이 많이 참가했다. 참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지원단을 보면 재해지역의 사정보다는 이 언론사가 가니까 경쟁사인나도 가야겠다. 이 대학병원이 가니 우리도 가야겠다며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는 듯한 감을 받았다. 준비도 미비한 점이 많았다. 진료장소도 결정된 것 없이 그저 떠나는 것 같다.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도 해외재난시 자주 구호활동을 나갈수 있는 국력이 되었다. 외국에서 재난시 내국인 보호와 구조활동을 조직화하고 선진국형 구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나



트럭으로 이동중인 아름다운 천사들!

사람들에게도 일정기준의 자격과 준비를 갖추도록 준비, 교육시켜야 하고 법률로도 정해야한다.

재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활동이 되어야한다. 민과 관이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료단의 활약

우리 한국의료지원단들은 타 국가에서 온 의료지원팀들보다 진료에 필요한 각과 의료진을 고루 갖춘 대규모 지원단이다. 또 의료진들이 난민들의 상처와 마음을 아주 친절하고 성실하게 치료하고 어루만져 주는데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았다. 타국의 의료 지원단에서 치료하던 사람, 멀리 있는 다른 캠프에서도 소식을 듣고 진료 받으러 왔다. 진

료일이 경과 할수록 환자수가 눈덩이 마냥 불어났다. 하루 450여명의 환자를 본 날은 진료진 모두가 파김치가 되었다.

자카르타에 나오니 이 지역 신문에 아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 중 한국의료진이 가장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료해 주어, 날로 많은 환자들이 한국진료소를 찾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며 한인식당 여주인이 반겨주었다.

그러나 우리 2진 의료진중 5명이 본국에 돌아온 후 고열과 두통, 혈액검사소견상의 이상으로 오랫동안 입원치료 하였다. 병명은 집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로 판명되었다.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률이 꽤나 높은 질환이다. 그러나 모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완쾌 되어 다행이다. 단장으로서



난민촌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



코이카 진료팀 이용만 선생님과 함께



케스담 육군병원에서 진료하는 서울시청 의료팀과 함께



돌아오는날 지역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모습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장의 격려 방문



3진 단장이신 서울아산병원 문기찬 교수와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대재앙으로 가족, 재산,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이들에게 우리들의 구호활동이 위로가 되고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일조 했기를 바라며, 생사를 초월한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멋진 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재앙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했다는데 대해서 나 자신 자랑스럽고 무척 행복하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2진 및 3진 의료팀이 다함께 기념촬영

산/행/기

북알프스 등정기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



上高地 버스터미널에서 일행



반재돈

삼성정형외과연합의원 · 청도
TEL 054-373-2700
E-mail jdban33@hanmail.net

10년 전 대학 “동창회보”에서 부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동기가 투고한 북알프스 산행기를 읽었다. 그 몇 년 후에 대한산악
연맹 이사를 지낸 분이 고희 기념으로 혼자
서 3 주간 북알프스를 등정한 산행기를 “山”
誌에 연재한 것을 읽었다.

알프스라는 이름 때문에서였는지 꼭 한번
등정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북
알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는 등한했
다. 그러다 인터넷으로 <일본 트레킹 투어>
의 북알프스 등정 안내를 보고 연락했더니
산행일정과 북알프스의 개념도를 보내왔다.
처음으로 북알프스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들어왔고 내가 갈 수 있는 산이었다. 서둘러
신청하여 참가했다.

<기상예보가 7월 30일쯤에 일본이 남태평양
에서 발생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했
다. 그러나 여행사 측에서는 등정에는 별 영
향이 없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했다.>

북알프스는 일본 중부에 위치한 산악국립
공원으로 그 둘레가 지리산의 열 배가 넘는
엄청난 산이다. 최고봉 오쿠호다카다케(奥穂
高岳 3,190m 일본 3위)를 비롯하여 표고
3,000m이상의 봉이 12봉, 일본의 마터호른
으로 불리는 야리가다케(槍ヶ岳), 자연경관
이 뛰어난 가미코지(上高地), 만년설, 빙하의
침식으로 생성된 계곡, 고산식물 등 일본 근
대등산의 발상지다.

이곳 전체를 등반하려면 최소한 16박 또는
1달 이상이 소요되고 11월말 첫눈이 온 날부
터 4월말까지는 동면에 접어들어 출입이 통
제된다.



7월 28일

오전 10시 30분, 10명이 인천공항 J 카운터 앞에 집결했다. 모두 인터넷을 통해 산행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젊은 전문가이드 한 사람까지 일행은 모두 11명. <일본 트레킹 투어> 김창희씨로부터 산행일정표와 등산개념도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

13시30분 JL994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4시50분에 일본 고마츠(小松)공항에 도착했다. 小松공항에서 가미코지(上高地)까지는 25인 승 전용 버스로 3시간 반 걸렸다.



平湯정류장

上高地로 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서울-무봉산악회 趙회장(연세대 교수)과 회원 2명, 인천-심통산악회 柳회장 내외와 총무 내외, 우리 내외와 내 매부, 우선 일행들이 마음에 들었다.

15시37분 北陸自動車道(북륙자동차도-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잠시 日本海(東海)를 끼고 달리다 도오야마(富山)IC에서 국도로 나와 18시20분에 히라유(平湯)에 도착했다. 平湯정류장에서 上高地까지는 셔틀버스로 바꾸어 탔다. 셔틀버스는 배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별도 연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가미코지(上高地)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산허리를 깎아 도로를 만들었고 웬만한 산길은 모두 지붕이 덮여 있는데 이는 겨울에 엄청난 폭설로 인한 눈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로 곳곳에 약 5m 높이의 화살표 안내판이 서있다. 겨울에는 이곳까지 눈이 쌓여 눈 높이를 알려주는 표지기라 하니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를 짐작케 했다.

上高地로 들어가는 입구가 1차선 터널이라 신호를 기다렸다가 통과한다. 19시가 넘으면 통행을 통제한다.

19시에 上高地 버스타미널에 도착하여 행장을 메고 캠프센터까지 걸어갔다. 가이드가 캠프센터에 들려 입산수속을 하고 산장을 배치 받아 짐을 옮겼다. 산장을 목제로 지었는데 왼편 것은 오래된 산장이고 오른편 것은 근래 새로 지은 것이다. 첫 날은 오래된 산장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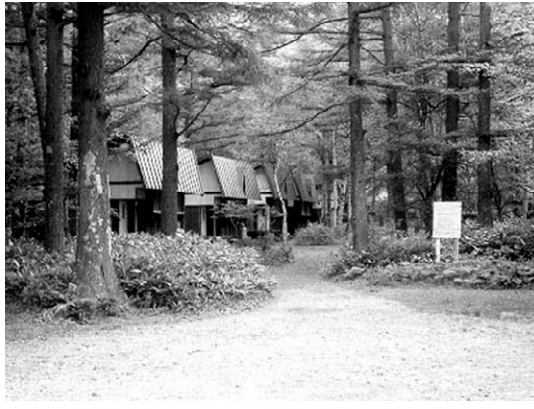
오래된 산장은 우리나라 자연휴양림 산막처럼 통나무 집 같은 한 동(棟)에 방이 두 개 붙어있다. 방마다 화장실과 자그만 거실이 있고 가스레인지와 TV가 비치되어 있다. 한방에 다섯 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 방에 3, 3, 4명씩 들었다. 새로 지은 산장 역시 목재로 네 개의 방이 붙어 한 동(棟)이 돼있고 한 방에 5명 수용, 화장실은 별채로 깨끗이 지었

다. 저녁식사를 캠프센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일식으로 하고 다음 날 산행을 위해 곧장 산장으로 들었다.

7월 29일

아침 일찍 잠이 깬다. 산책 삼아 캠프센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상외로 엄청 넓은 자리에 방문자센터 관광리조트 캠프센터 캠프장 산장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버스터미널에 上高地 종합안내소가 있고 잠시 오르면 五千尺호텔, 왼쪽에 갑바쓰하시(河童橋)다리가 있다. 조금 올라 清水橋를 건너면 上高地방문자센터가 있고 바로 위에 이정표 <河童橋 0.1km 明神 3.0km 徳澤 6.5km>가 있다. 조금 더 오르면 오른쪽으로는 등산로, 왼쪽으로는 캠프장을 지나 캠프센터 그 위로 산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를 고타시다이라(小梨平)라 불렀다.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왼쪽 캠프센터와의 갈림길에 이정표 <河童橋 0.4km 明神 2.7km 徳澤 6.2km 주차장 0.7km>가 있고 작은 다리를 건너면 캠프센터이다.

캠프지역과 리조트지역 사이에 아즈사가와(梓川)강이 흐르고 있다. 梓川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계곡으로 아리가다케(槍ヶ岳)에서 발원한 본류가 산골짜기 골짜기에서 용출(湧出)한 지류와 합류하여 강이 되어 아래로 다이쇼호(大正池), 하류에 발전소가 있다.



上高地 산장

河童橋가 양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架橋)로 上高地를 상징한다.(폭 3.1m 길이 36.6m의 조교(弔橋), 다리 위에서 맑은 계류와 穂高岳연봉과 焼岳의 조망이 일품이다. 관광리조트지역에는 호텔 온천장 위락시설 등이 있고 차도와 별도로 산책로가 明神池 위까지 뒹여있다. 늪지대로 새소리가 들려오고 일명 자연탐방로라 불린다. 上高地 전지역이 전나무 숲으로 어우러져 운치가 더했고 해발 1505m 고지대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아침 7시에 식당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고 짐을 정리하여 보관소에 맡기고 8시30분에 산행을 시작했다. 보관료는 무게로 받는 게 아니고 개수로 개당 2,000엔(2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행사에서 부담했다. 등산로가 승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도로다. 왼쪽으로 아즈사가와(梓川) 강이 흐르고 키 큰 나무 숲길이라 산책로 같다. 평탄한 길이 요오꼬(横尾)까지 이어진다.



가미코지(上高地)가 해발 1,505m 우리나라 지리산 노고단 높다. 上高地에서 横尾까지 11km가 능선이 아니고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계곡에 넓은 강이 흐르고 큰 나무가 우거진 숲과 늪지대이다. 上高地-横尾 사이에 산장과 매점을 겸한 휴게소가 세 곳 있다.

노고단에 호수가 있고 노고단-천왕봉 주능선 25.5km 그 절반 거리가 평탄하고, 거기에 강을 낀 숲 속 산책로가 이어져있고 옆으로 날카로운 암봉이 솟구쳐있다고 상상하자!!



德澤園

그것이 上高地에서 横尾까지의 등산로다.

무봉산악회팀이 앞장서고 우리는 후미로 따랐다. 아침인데 벌써 내려오는 등산객도 더러 있었다. 上高地-横尾 11km를 보통 3시간 30분. 우리는 무리 없이 걸었는데도 2시간 15분 걸렸다. 등산객 가운데 한국사람은 우리들뿐이고 거의가 일본사람이었다. 그들은 캠핑준비를 하여 무거운 배낭에 행장이 대단하고 추월하는 일 없이 꾸준히 걸었다.

산행을 시작하여 30분만에 묘신(明神)館에 도착했다. 이정표 <明神池 0.7km 上高地 3.0km 德澤 3.4km 표고 1550m> 明神橋 건너편에 있는 明神池가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3.0km 거리에 표고는 겨우 50m정도 올랐으니 평지와 다름없었다.

明神館(산장) 앞에서 쉬었다가 40분을 오르니 도꾸자와(德澤)이다. 초원지대로 원래 우마(牛馬)의 방목장(放牧場)이었는데 1934년 중부산악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폐쇄되어 현재는 산장과 캠프장으로 바뀌었다. 도꾸자와로지(德澤lodge), 조금 위에 德澤화장실, 여기서서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거나 휴지를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러 억지로 소변을 보았다. 잠시 오르면 德澤園(산장)이다. 많은 등산객이 몰려 쉬고 있었다. 前穂高岳의 동벽이 조망됐다. (9:50-10:10) 이정표 <上高地 6.4km 横尾 3.9km>

德澤園에서 30여분 오르면 요오코(横尾)이다. 横尾에 들어서면 먼저 작은 대피소 <横尾避難小屋>가 눈에 띄고 화장실 수도(水道)를 지나 横尾山莊 앞 광장에 닿는다.

横尾는 梓川の 본류와 横尾계곡이 합류하는 지점이고 야리가다케(槍ヶ岳)와 가라자와(涸澤) 두 코스 of 갈림길이다. 계곡 위에 横尾大橋가 놓여있다. 横尾大橋가 철구조로 가설한 조교(弔橋)로 인상적이었다. 다리에 <2,258m² 1999년 8월 건립>이라 새겨져 있다. 山莊 앞에 갈림길 이정표<槍ヶ岳 11km, 德澤 6km 上高地 11km 표고 1615m>가 있다. 上高地에서 横尾까지 거리 11km에 표고 차(差)는 110m에 불과했다. 2시간15분 걸렸다. 모두들 横尾大橋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수통에 물을 채운다. 다음 산장까지 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槍ヶ岳는 梓川 주계곡을 오르고 澗澤는 横尾大橋를 건너 横尾계곡을 오른다. 야리가다케(槍ヶ岳)→오꾸호다가다케(奥穂高岳) 코스가 가라자와(澗澤)→奥穂高岳코스에 비해 길고 험하여 1박을 더 요한다.

<산장 이름이 다양하다. 山莊 館 園 小屋 로지(lodge) 휘테(Hutte) 등 크기와 시설에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국립공원 대피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케(岳)는 뾰족한 봉우리(峰)를, 다이라(平)는 평지를 이른다.>



横尾大橋

横尾大橋를 건너서부터는 등산로다. 돌과 작은 바위를 오르내리면서 고도를 높인다. 고사목이 눈에 띄고 德澤本谷橋(표고 1,780m)까지는 수월하다. (11:50) 혼다니바시(本谷橋)는 출렁다리이고 다리 건너편에 병풍암이 자리하고 있다. 대개 등산객들이 다리를 건너 계곡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캠프센터 식당에서 마련해준 도시락이 신선하고 깨끗했다. 먹고 남은 것은 어떤 것이든 배낭에 넣어 가야한다. 과일 껍질 하나라도 계곡에 버려서는 안

된다. 일본 어디서나 쓰레기 수거가 철저하고 생활화 돼 있었다.

계곡 물이 차서 손을 5초를 담글 수 없었다. 아예 발을 담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카프를 적서 목에 걸쳐 더위를 식혔다. 돌 위로 흐르는 계곡 물이 맑고 주변이 깨끗하여 함부로 덤빌 수도 없었다.

여기서부터 힘든 산행이 시작된다. 좌측으로 병풍암을 끼고 경사진 돌길을 빙 돌아 오른다. 오를수록 바닥 돌이 커지고 나무가 적어지고 계곡이 아래로 멀어진다. 20분 정도 오르니 계곡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먼 쪽 横尾本谷(주계곡)은 상류에서부터 계류가 흘러내리면서 빛을 발하듯 영롱한데 아래쪽 澗澤계곡에는 물이 없었다. 너덜 아래로 서며 흐르는 것으로 짐작했다.

한참 오르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북알프스 산행 시에는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하루 한번 이상 비가 쏟아진다고 한다. 우산을 꺼내어 썼다. 비가 내리니 주위가 어두워 적막했다. 둘러보니 우리 셋이 선두였다. 계속 오르니 澗澤계곡 상류 너덜지대다. 우리나라 너덜에 비할 바 아니게 거대했다. 길이 뚜렷하지 않고 너덜에 붉은 색으로 칠한 ○×↑안내표기를 따라 올랐다. 한참을 오르니 계곡에 물이 흘렀다. 너덜에서 솟아나 흐르는 것이었다. 물은 여전히 찼고 만년설에 의한 빙하였다. 계곡을 건너니 澗澤휘테와 가라자와



산장(澗澤小屋) 갈림길에 안내 팻말이 서있다. 가라자와산장(澗澤小屋)을 향해 언덕에 올라 서니 눈앞이 만년설계곡이다. 순간 “우와”하고 탄성이 터졌다.

그 왼쪽 아래에 澗澤휘테가 자리하여 있고 오른쪽 위로 가라자와산장(澗澤小屋)이 절벽아래 암자처럼 아늑하게 위치하고 있다. 8월의 澗澤은 암벽과 눈(雪)의 전당이라고 한다. 만년설을 중심으로 펼쳐진 파노라마에 압도되어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로 위축됐다.

방향을 바꾸어 澗澤휘테(2,309m)로 갔다. 등산객이 몰려 라면이며 음료수를 마시면서 약간 혼잡했다. 갈증도 나고 해서 생맥주 750cc 두 컵을 사서 나누어 마셨다. 한 컵에 800엔(8,000원)이다. 맑은 날씨면 오후호다가다케(奥穂高岳)가 마주 쳐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



澗澤계곡

만년설계곡으로 올라가니 마침 趙교수 팀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표면은 거무스레하나 속은 단단한 백설이었다. 겨울 내 쌓였던 눈이 빙하가 되어 그 넓은 강물이 되고 있다니 한편 신비스러

웠다. 10여분 올라 드디어 가라자와산장에 도착했다.(14:20) 표고 2350m 절벽 같은 암벽에 작은 나무와 야생화가 에워싸 있었다. 가을철 澗澤 단풍이 절경이라 한다. 穂高岳과 北穂高岳 두 코스가 산장에서 좌우로 갈라져 오른다.

이곳 산장에서는 남녀가 따로 방을 쓴다. 우리나라 설악산 중층대피소와 구조가 비슷하나 내부 시설과 이용법이 다르다. 우리 남자들이 배치 받은 방은 산장 2층 화실(花室)이다. 정원 9명으로 다락처럼 아래위로 칸을 넣어 위에 4명 아래에 5명이다. 환기 팬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별로 요 이불 그리고 베개 하나다. 누워보니 그런 대로 편했다. 방안 소등은 9시다. 1층에는 식당과 화장실 매점이 있고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했다. 저녁 식사는 5시부터 팀별로 정해진 시간에 질서정연하게 했다.

저녁 식사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산장 테라스에 나가 澗澤카르를 조망을 했다. 고요하고 아담했다. 문득 알프스의 샤모니(Chamonix)와 융프라우(Jungfrau)를 연상케했다. 북알프스 산록에 자리한 산장에서 澗澤의 넓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감회가 더 할 수 없었다. 하늘은 잔뜩 구름이 끼어 정상을 가리고 서서히 어두움이 깔려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조교수(趙教授)가 내놓은 양주를 나누면서 내일 날씨를 걱정했다. 만약에 태풍이 닥친다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모처럼 이곳까지 와서 정상 등정을

못하고 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할 수가 없겠다. 비가 오더라도 바람만은 안 불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런 분위기로 나누어 마신 술에 시동이 걸려 휴게실로 나가 柳회장이 맥주 20캔을 샀다. 한 캔에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이다. 술기가 도니 마음을 열었다. 모두 산행에 일가견을 가진 분들이었다. 국내 산을 두루 섭렵했고 柳회장은 히말라야를 비롯한 동남아 최고봉 키나발루 등 해외 원정도 여러 번 다녀왔다.

9시가 다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TV기상특보에 의하면 내일은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많겠다고 해서 안심이 됐으나 잠이 깊이 오지 않았다. 이곳 산장 이용료가 밥 두끼 도시락 하나하여 우리 돈으로 10만원 정도였다.

7월 30일

새벽 4시에 잠이 깨어 밖으로 나가 먼저 날씨를 확인했다. 구름이 어제보다 얇아졌고 간혹 별도 보였다. 그러나 정상 쪽은 여전히 어두웠다. 투숙객 가운데 일부는 벌써 산행에 나섰고 우리는 배낭을 정리하여 5시에 식사를 했다. 날이 밝았고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끼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潤澤산장에서 北穗高岳으로 오르는 등산객도 여럿 있었고 우리는 穗高岳산장을 향해 올랐다.(5:30) 穗高岳산장까지는 2km/2:30 예정.

처음부터 가파른 너덜길이다. 광대하고 군데군데 잡목과 야생화가 서식하고 있었다. 중간중간 등산로가 뚜렷하지 않고 돌에 표기한 ○ × ↑ 등을 확인하여 오른다. 가파른 너덜길이 한시간 가량 계속되다가 너덜 사면으로 20분 오르니 처음으로 평평한 쉼터 언덕이었다. 바위에 “산장 780m”라고 적혀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몸이 좀 무거웠다. 그 곳에서 모두 쉬었다. 오르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등산객과 더러 마주쳤다. 등산에서는 오르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다.



만년설

여기서부터 경사가 심한 암릉을 오른다. 나지막한 잡목과 야생화가 우리를 반겼다. 좁다란 암릉을 한 줄로 오르는 행렬이 멋있고 아름다웠다. 암벽에는 쇠사슬이나 작은 쇠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팀들은 모두 비슷한 속도로 잘 올라갔다. 도중에 “산장 20분 전”이라는 안내(案内)가 돌에 적혀 있었다. 고도 탓인지 아니면 힘겨워서인지 약간 가슴이 답답했다. 3분을 쉬면서 호흡을 조절했다. 그리고 다시 급경사 암릉을 쳐 올랐다. 돌에 적힌 대



로 20분만에 穂高岳산장에 올랐다.(7:44) 涸澤산장→穂高岳산장 소요시간 2시간 30분을 우리는 2시간 15분 걸렸다. 바람이 거세고 찼다. 奥穂高岳가 잠시 모습을 들어냈으나 이내 구름에 가렸다. 아래로 만년설 涸澤휘태가 아담하게 전개됐다.

穂高岳산장(2,983m)은 奥穂高岳(3,190m)와 北穂高岳(3,106m) 사이 안부를 정지하여 그 위에 세워진 산장이다. 산장 앞뒤가 깎인 듯 굴러 내린 너덜이다. 다른 산장에 비해 높이는 낮고 폭은 길었다. 산장 앞에는 견고하게 담까지 쌓았다. 헬기로 공수되는 물품 하치장도 견고하게 설치돼 있다. 강풍에 날라 갈 수 있는 위치라 고심해서 세운 산장이라 짐작되었다.



奥穂高岳와 산장공수헬기

헬기가 계속 산장에 물품을 공수했다. 바람과 헬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수 없었다. 남은 코스가 최대 난코스라 행장을 다시 하여 화장실을 다녀오니 일행이 보이지 않았다. 그사이 모두 올라 갔나하고 쳐다보니 아내가 저만큼 올라가 손짓을 했다. 또 헬기가 날라 왔다. 헬기가 물품을 내리고 떠난 후 서둘러 올라갔다. 奥穂高岳까지는 급경사 너덜길이다. 0.5km/0:40 예정.

급하게 올라가서 숨이 찼다. 고소증상인가 했으나 조금 지나니 괜찮았다. 아내와 둘이서 긴장하여 올라가니 가이드가 쉬고 있었다. 그가 선두라 했다. 여기를 몇 번 안내한 젊은 그도 힘들어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였다. 가이드는 후미를 기다리고 우리 내외가 앞서 갔다. <나중에 보니 일행은 화장실에 다녀와서 산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뒤늦게 출발한 것이었다.>

무거운 안개가 스쳐가면서 시야를 가렸고 등산객들은 한 두 사람 짝을 지어 무거운 걸음으로 올랐다. 한참 올라도 정상은 보이지 않고 돌뿐이었다. 길이 온통 돌이라 ○ × ↑의 표기를 찾아 오르지 않으면 엉뚱하게 빗나가 헤매게 되고 자칫 조난을 당할 위험한 코스였다. 상당한 시간을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 겨우 30분이었다. 정상 200m 산장 800m라고 적힌 표말이 눈에 띄었다. 산장-정상 0.5km라 했는데 어찌 된 영문이지? 어쨌든 4/5을 오른 것이다.(8:43)

오를수록 짙은 안개와 거센 바람에 휩싸여 주위가 어두워 돌 자국만 보고 올랐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겨우 비껴나갈 수 있는 좁다란 고개에 올라서니 앞이 트였고 양쪽으로 커다란 돌무덤 같은 게 솟아있었다. 정상이었다. 돌뿐이고 좁아 오래 지체할 자리가 못되었다. 돌아보니 우리 내외뿐이었다. 몸이 움츠러졌다. (8:57) 잠시 망설이는데 아래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대개가 북풍과 안개 속을 헤매면서 올라와 정상에 올랐다. 정상을 넘어서면 남벽이라 바람이 약해졌다. 정상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넘어 갔다.>

정상 양옆의 돌무덤 같은 곳에 동쪽 꼭대기에는 자그마한 진자(神社)가, 서쪽 꼭대기에는 돌을 쌓아 시멘트로 원통을 만들어 그 위에 원탁을 얹어 가운데 구멍을 뚫어 평면에 지형도를 새겼다. 일본인 등산객들은 진자(神社)에 정중히 참배했다. 나는 지형도가 새겨진 원탁을 잡고 사방을 살폈다. 북알프스의 최고봉이라 360도의 대 파노라마가 펼쳐질 위치였다. 날씨가 맑았으면 멀리 후지산(富士山), 남알프스의 연봉 그리고 뒤로 야리가다케(槍ヶ岳), 다테야마(立山)연봉, 하쿠바다케(白馬岳)로 이어지는 파노라마가 환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웠다. 이따금 구름사이로 서쪽으로 니시호다가다케(西穂高岳)와 아래로 마에호다가다케(前穂高岳)가 모습을 들어냈을 뿐 끝내 야리가다케(槍ヶ岳)와 미나미다케(南岳)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바람을 피해 神社아래 오목한 자리에 앉아 일행을 기다렸다가 함께 만나 등정의 감회를 나누었다.



정상 오른쪽(서편), 지형도 원통

정상에서 南陵으로 내려섰다. 첫 봉에 “南陵の頭”라는 뜻말이 있고 절벽 같은 암벽에 쇠사슬이 메어 있다. 암벽을 내려서 암릉에 오르니 시야가 트였다. 좌우로 펼쳐진 파노라마가 처음으로 북알프스를 실감케 했다. 왼쪽으로 涸澤카르 만년설 涸澤산장 涸澤휘테가, 오른쪽으로 岳澤계곡이 아름답게 펼쳐있다. 등산로는 날카로운 암릉 아래 사면으로 기미코다이라(紀美子平)까지 이어진다. 돌길 바위 언덕을 여러 번 넘는다.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10시47분 紀美子平에 도착했다. 紀美子平은 전망이 좋은 평평한 바위 언덕이고 前穂高岳와 다케사와(岳澤)와의 갈림길이다. 구름에 가려 잠깐씩 奥穂高岳 西穂高岳가 모습을 드러내 보였고 前穂高岳가 머리 위에 솟아 있었다. 아래로는 岳澤 上高地 大正池로 이어지는 긴 계곡이 펼쳐졌다.

일본인 등산객들은 前穂高岳(표고 3090m)으로 올랐다. 우리 일행은 다소 지쳐 아무도 前穂高岳으로 오를 엄두를 내지 않고 주저앉아 도시락을 폈다. 趙교수가 잊지 않고 등정주(登頂酒)를 돌렸다.(10:47-11:25) 紀美子平 이정표 <前穂高岳 0.4km 奥穂高岳 1.8km 岳澤 2.4km 上高地 5.0km>



紀美子平에서 岳澤휘테까지가 예상 코스가 아니었다. 그늘 한 점 없는 급경사 너털 암릉 리지 등으로 2시간 반 동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난코스다. 紀美子平에서부터 거의 절벽에 가까운 암벽을 쇠사슬을 잡고 내려갔다. 30분 동안 계속 급경사 너털 길이 이어졌다. 잠시 멈추면 아래가 가마득하여 현기가 일어날 정도였다. 손으로 너털을 잡고 기어 내려가기 일수였다. 그리고 얼마간 암릉 리지 코스가 이어진다. 리지 끝자락에 닿으면 岳澤휘테가 바로 내려다보인다.



‘岳澤파노라마’ 아래

그곳에 “岳澤과노라마” 뜻말이 있다.(12:02) 등산객들이 岳澤휘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여기서 잠시 절벽을 쇠사다리 쇠사슬을 잡고 내려가면 돌길이 岳澤계곡까지 이어진다. 계곡 건너기 전에 前穂高岳登山入口 입간판이 있고 계곡을 건너면 岳澤휘테이다.

岳澤휘테가 上高地와 前穂高岳 奥穂高岳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전망이 좋고 上高지가 내려다보인다. 岳澤휘테에 선두는 13시20분, 후미는 14시에 도착했다. 이제 어려운 코스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캔맥주를 사서 나누어 마셨다. 그 시각에도 前穂高岳으로 오르는 등산객이 더러 있었다. <岳澤휘테 표고는 2,230m>

岳澤휘테에서 河童橋까지는 숲길이다. 잡목 숲으로 시작하여 내려가면 키 큰 나무 수림(樹林)이다. 이제 어지간히 내려와서 수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숲 사이로 큰돌을 비껴가며 내려가니 무릎이 아파 왔다. 柳회장 부인과 내 매부가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하여 우리 다섯은 천천히 내려갔다.

1시간 30분 가까이 내려가니 갑자기 이끼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왔다. 옆에 風穴(풍혈)이란 뜻말이 서있다. 우리나라 밀양의 얼음굴과 같은 곳이었다. 북알프스에서는 여기 말고도 몇 곳 더 있다고 한다. 건너는 계곡에는 통나무를 쪼개어 건널목을 만들어 놓았고 철제 로 만든 시설물은 볼 수 없었다. 안내입간판도 모두 나무로 만들어 세워져있었다.

岳澤휘테에서 河童橋까지가 여간 지루하지 않았다. 風穴을 지나 맥없이 30여분을 내려가니 뜻밖에 “穂高岳 岳澤登山입구”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도로였다. 입간판<中部山岳國立公園 岳澤휘테 4km/2시간 前穂高岳 8km/6시간>

하산이 끝났다. 여기가 유명한 갑바쓰하시(河童橋) 건너 늪지대였다. 도로와 산책로가 따로 있다. 도로 옆으로 늪지대를 그대로 살리면서 나무로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양쪽으로 걸어

갈 수 있게 되어있다. 산책로를 따라 10분 내려가니 <明神池 3.0km 河童橋 0.3km> 이정표가 있다. 上高地알프스호텔, 白樫莊호텔, 산장 등 上高地 리조트지구이다. 河童橋를 건너 캠프센터에 도착하니 가이드가 방을 배치했다. (16:00)

오늘은 새로 지은 산장이었다. 들어가 보니 전통 일본식 통나무 구조로 방바닥은 다다미 6매(枚)로 탁자와 TV를 모두 새것으로 비치하여 별장 같았다. 배낭을 두고 센터로 내려가 목욕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비가 내렸다. 저녁을 나누면서 한결같이 이번 등정에 만족하며 건배를 들었다.

7월 3일



梓川 계곡

그곳에서 穂高岳를 바라보는 전망이 일품이라 한다. 전날 내리운 岳澤의 깊은 계곡이 훤히 보였다.

大正池를 지나 조금 내려오니 가마(富)터널이다. 터널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고 경사길로 고개를 넘는다. 히라유(平湯) 정류장에 와서 전용버스로 바꾸어 타고 다카야마(高山)시로 향했다.(8:40) 平湯에서 다카야마(高山)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산악지대를 시속 50km로 달렸다.

高山시가 해발 600m가 넘는다. 일명 “작은 京都”라 불리는 高山市에서 명소 두어 곳과 전통거리를 관광하고 高山驛에서 趙교수팀과 헤어졌다.(10:30) 趙교수팀은 나고야(名古屋)로 가서 배낭 여행을 하고 나머지 우리 8명은 계속 산악지대를 차창으로 구경하며 細入村을 지나 富山IC에서 北陸고속도로에 올랐다. 그 사이 크고 작은 터널과 댐을 수 없이 보았다. 산악지대를 내려오는 동안 민둥산이란 볼 수 없었고 도로를 제외하고는 삼림이 울창했다. 계곡 물에 길러 있는 찌꺼기를 구경할 수 없었고 물이 깨끗하여 탄성이 나왔다. 버스가 달리는 도로

아침 6시50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8시10분 주차장에서 일행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버스를 탔다. 들어올 때는 늦은 시간이라 그냥 왔는데 나가면서 차창으로 주위를 살펴보니 깨끗하고 아름다움에 다시 놀랐다. 차가 겨우 교행할 정도로 좁은 도로 양 옆으로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흘러내리는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5분 정도 내려가니 오른쪽에 다이쇼호(大正池)가 있고 도로와 大正池사이에 大正호텔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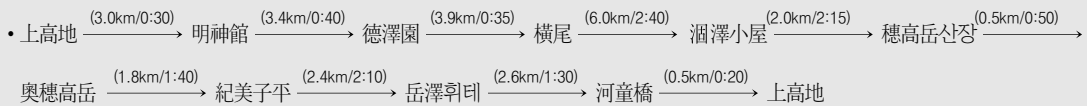


아래로 철로 터널이 여러 번 교차하며 장관을 이루어 일본 터널 문화의 일면을 보는 듯 했다.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었다. 산장 음식보다 나왔으나 몇 일 계속되는 일식(日食)으로 김치와 된장 생각이 간절했다.

가네사와(金澤)시에 들러 금박공예공장에서 공정과정을 구경하고 금분(金粉)이 든 술을 시음(試飲)했다.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오른 편으로 잠시 바다를 관망하고 小松공항에 15시에 도착했다. 16시05분 JL993機편으로 小松공항을 이륙하여 18시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번 북알프스 등정을 통해 일본의 산악문화와 그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부러웠다. 산이 좋고 아름다운데다가 그들이 소중히 가꾸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북알프스 奥穂高岳 등정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고 힘들지 않았다. 고소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나라 산을 제대로 산행할 능력이면 어렵지 않게 등정할 수 있는 산이었다. 上高地→横尾→槍ヶ岳→奥穂高岳 코스를 밟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여전히 미련을 버릴 수 없다.

2004. 8. 3.



• 표고

上高地(1505m), 明神(1550m), 德澤(1562m), 横尾(1615m), 涸澤휘터(2309m), 涸澤산장(2350m), 穂高岳산장(2983m), 奥穂高岳(3190m), 前穂高岳(3090m), 岳澤(2230m), 槍ヶ岳(3180m), 南岳(3033m)

• 마터호른 [Matterhorn]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지대의 페나인알프스의 한 준봉(峻峰). 높이 4478m, 프랑스명으로는 몽 세르뱅, 이탈리아명으로는 몬테 체르비노로 불리고 있으며, 피라미드형의 아름다운 산의 자태는 알프스의 상징적인 존재로 되어 있다.

- 북 알프스는 경관이 수려하고 온천지대도 많아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기도 높다. 일본 알프스라는 말은 1881년 영국의 W.가우랜드(외국인 최초 槍ヶ岳 등정)가 북알프스를 보고 알프스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영국의 선교사 W.웨스턴이 1888년에 지금의 중앙 알프스와 남 알프스까지 일본 알프스라 부른 게 유래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정자연의나라 뉴질랜드



최호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1내과 과장
TEL 054-785-716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정자연의 나라 뉴질랜드를 오래 전부터 동경해왔는데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 만년설산, 빙하호수, 구름, 끝이 없이 광활한 푸른 초원 등 태고적 원시적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다.

제1일 11. 27(토)

약 11시간의 비행 끝에 현지 시각 정오 12시경 이 나라 제1의 도시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하다. 농축산업이 기간산업이라 음식물 검역이 까다롭고 농림부 공무원의 발언권이 세단다. 전 인구 4백만명 중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뉴질랜드 최대 관문 도시다. 무역 상업 경제의 중심 도시다. 수도는 북섬 남단에 웰링턴이라는 행정 중심의 도시가 따로 있다. 오후엔 시내 전경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에덴 동산 미션베이, 한국전 참전 용사 위령탑 등 방문하다.



로토루아 동물농장

제2일 11. 28(일)

오클랜드 남동쪽 200km 자동차로 3시간 걸려 와이토모 동굴 관람하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석회층유동굴로서 특이한 것은 동굴 속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가 캄캄한 동굴 천정과 벽면에 붙어서 독특한 빛을 발생시키는데 동굴 속에 흐르는 강 위에 배를 타고 가면서 쳐다보면 마치 여름 밤 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과 은하수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오후엔 로토루아로 이동하여 원주민 마오리족의 역사를 볼수 있는 전통 가옥과 민속 박물관 관람하고 진한 유향 냄새를 풍기며 힘차게 내뿜는 간헐천을 보고 근처 노천 유향온천에서 잠시 피로를 푼다. 석식으로 Hangi(증기로 고기를 익혀 먹는 마오리족의 전통 음식)를 먹은 후 마오리족 민속 쇼를 1시간 관람하다.

제3일 11. 29(월)

로토루아 근교 레드우드 수목원으로 가다. 나무 껍질이 붉은 빛을 띤다고 붙여진 이름이고 캘리포니아 원산지로 일백년전에 수입되어 현재 135m 높이로 자란 나무를 비롯 하늘을 찌르듯 쪽쪽 뻗어있다. 여기서 약 1시간 삼림욕을 즐긴다. 동물농장으로 이동하여 양털깎기 쇼, 양몰이 개의 시범 본 후 트랙터 비슷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양떼, 사슴, 알파카 관찰, 먹이 주면서 촬영. 키위 농장에 들러 키위 와인도 시음하며 동물 농장 체험을 마친다.



마운틴 쿡 전망대



쿠카키호수

제4일 11. 30(화)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로 이동, 인구 약 50만명으로 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공원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공원이 넓고 많다. 시내 한가운데 216,000평의 해글리 공원이 있고 여기를 에이번강이 관통한다. 만년설이 덮인 마운트콕(3,753m)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쿠카키 호수까지 버스로 5시간 걸린다. 멀리 사틴 알프스의 설산연봉, 산허리를 휘감고 있는 솜털같은 구름, 시속 팔구십km로 서너시간 달려도 끝나지 않는 빙하호수, 넓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광활한 초원, 거기에 방목되어 풀을 뜯는 양떼, 소떼, 사슴떼를 바라보면 버스여행이 지루하지가 않다.

만년설로 뒤덮힌 남알프스 연봉은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호수물은 푸르디 푸른 비취색을 띤다.

쿠카키 호수에서 휴양도시 퀸스타운까지 다시 3시간 걸린다. 퀸스타운 주민은 7천명 정도지만 년8개월간 스키가 가능하고 천하절경 밀포드사운드로 가려면 이곳에서 숙박해야 한다.

최근에 영화 반지의 제왕 3편 중 80%가 이 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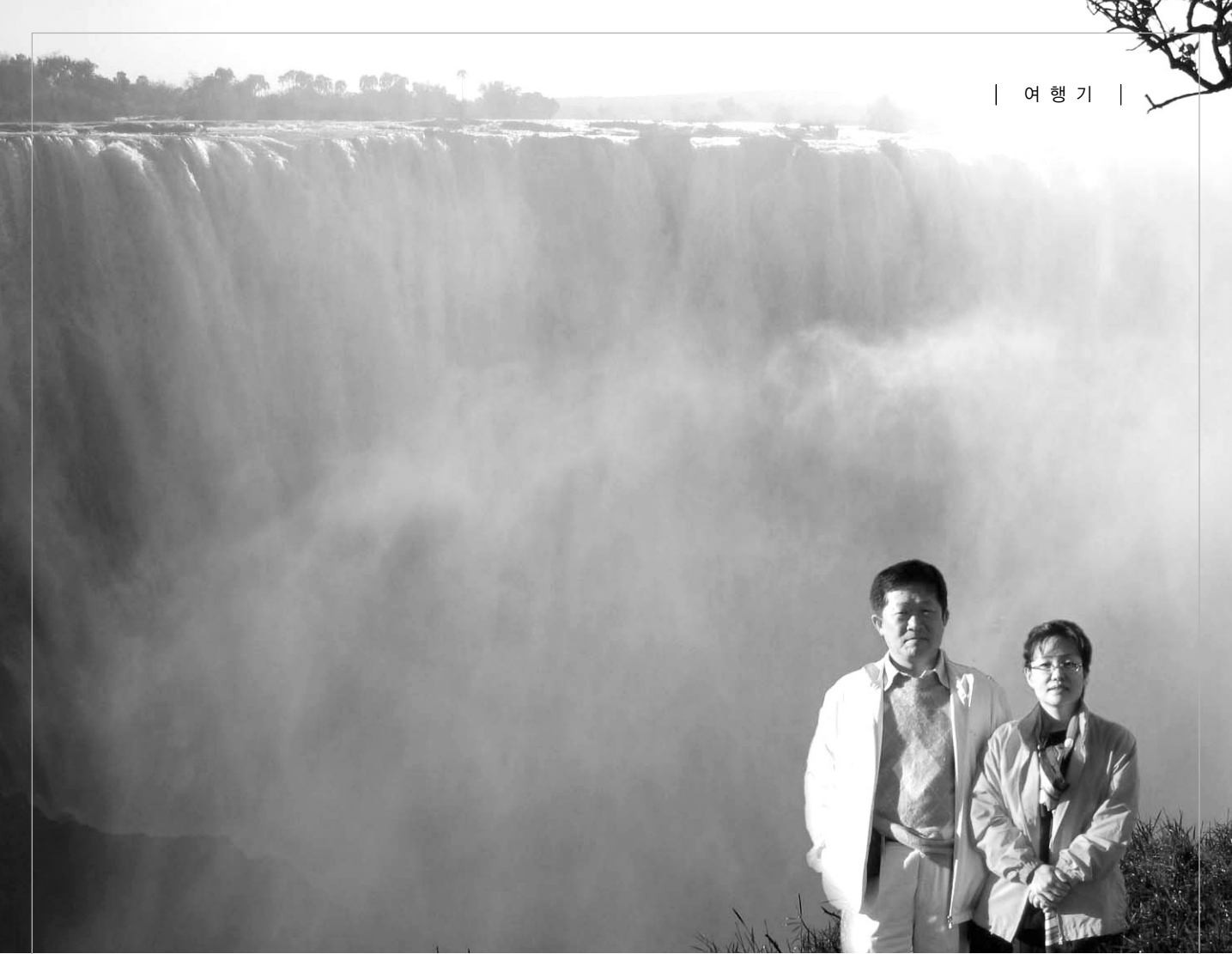
촬영되었고 관광객이 매년 수백만명 된다고 한다. 석식 후 우리 교민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이곳에만 자라는 크레이프씨(게의 일종) 회로, 삶아, 구워 먹어 보니 영덕 대게는 저리가라다.

제5일 12. 1(수)

Queenstown에서 Milfordsound로 이동하여 유람선을 1시간 30분 타면서 약 1만 2천년전 빙하에 의해 형성된 Fiord(피요르드)해안의 비경, 기암절벽, 만년설산의 눈이 녹아내려 형성된 폭포, 물가 바위 위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물개 등 보며 크루즈 관광을 즐긴다.

제6일 12. 2(목)

퀸스타운을 출발해서 크라이스트처치로 회귀하면서 옛날 탄광촌을 본다. 약 50년전, 주로 중국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했다 한다. 번지점프의 원조가 뉴질랜드다. 43m 높이의 시설에 마침 점프하는 사람이 있어 직접 목격하긴 처음이다. 쿠카키 호수 변에서 쿡 산을 다시 조망해 본다. 중식에는 호수에서 잡아올린지 몇시간 되지 않은 연어 회를 곁들여 먹다. 쫄깃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이로서 북섬 1,000km, 남섬 2,000km의 대장정이 끝나다. 스위스나 놀웨이의 자연경관은 뉴질랜드에 비하면 게임이 안된다.



“하늘이 왜 빅토리아폭포를
아프리카에 외진 땅에
두셨는지”



안길룡

안외과의원 · 김천
TEL 054-432-9999
E-mail sj8211@yahoo.co.kr

어린 시절 학교에서 빅토리아 폭포와 희망봉을 배울 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라 길을 떠났다. 빅토리아 가는 길은 멀었다. 집사람과 단들이 나선 여행이라 일정이 순조롭기를 바랬지만 처음부터 꼬였다.

홍콩에서 갈아타야 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가는 비행기가 취소되어 홍콩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12시간 비행후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지만, 예약된 빅토리아 폭포로 가는 비행기를 놓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또 하루를 묵고, 다음날 빅토리아에 도착했다. 새까만 흑인 미스터 아드가 승합차를 가져와 우리 부부를 반갑게 맞았다.

검은대륙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강이 흐르지만, 4대강으로 꼽히는 잠베지강은 야생 짐승들의 밀림을 길게 길게 흐른다.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경계에서 대륙이 쪼개져 거대한 협곡을 만들고, 길을 잃은 잠베지 강물은 1.5km폭으로 150m 아래 낭떠러지로 와당탕쿵탕 곤두박질하고, 거대한 굉음과 50km 밖에서도 볼수 있는 높게 치솟는 물보라의 장관을 이룬다. 세계 3대 폭포인 빅토리아의 위용이다.

하늘의 신께서 왜 빅토리아를 이 외진 아프리카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인간사 희노애락, 미움, 저주, 갈등과 눈물 이 모든것을 쓸어와 적막한 검은 땅 밀림속에서 한꺼번에 패탕이 치는 것이리라.

폭포 떨어지는 물기둥을 바라보고, 또 보아도, 자꾸 폭포는 새롭게 떨어지고, 마음은 참선처럼 편안했으며, 내 작은 육신은 떨어지는 물속으로 서서히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였다.

이 폭포를 발견하고, 이 곳에서 아내를 잃고 한없이 울었던 리빙스턴은 지금 작은 동상이 되어 폭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잠비아로 건너가 헬리콥터를 타고 폭포를 돌며 하늘에서 또 빅토리아를 보았다. 이를 devil's flight(악마의 비행)이라 했다.

다음날 사파리 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보츠와나로 건너가 잠베지강을 따라 초베국립공원 동물사파리를 했다. 수백마리의 코끼리떼 행렬은 장관이었지만, 십년전 여행한 케냐의 사파리의 동물 규모 보다는 많이 적었다.

다음에 다시한번 더 와서 폭포에 여러날 머물면서, 동이 트는 이른 아침의 폭포, 햇별 쏟아지는 대낮의 폭포, 황금 석양질 무렵의 폭포,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장관의 오케스트라를 보고 듣고 싶다.

폭포방향으로 석양이 아름다운 레인보호텔, 모기장을 친 침대, 모닥불을 피워놓고 4인의 흑인이 부르는 영가를 들으며, 흑인들이 구워준 얼룩말, 악어, 타조, 멧돼지, 누 고기의 바베큐 저녁과 포도주를 밤늦게까지 즐겼다.

고개를 들어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쳐다보니, 내가 정말 떠나면 땅 아프리카에 와 있는 것을 실감케 했다. 또 빅토리아 공항에서 예약한 좌석이 “오버 북킹”되어 좌석이 없다가에 특유의 언성과 실량이 끝에 비지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케이프 타운을 향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끝, 인도양과 대서양이 맞닿는 곳, 옛날 세상의 배들이 희망을 안고, 불안을 안고 떠나면 이 땅끝 희망봉을 돌아갔다.

지금은 차갑고 거친 파도만 계속 밀려오는 등대가 지키는 언덕이였다.

이 땅끝 희망봉 봉우리에 서서 파도 가득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한국에 내가 돌아가면, 인간사 사소한 일로 절대로 아웅다웅하지 않으리라.

이정부 위정자들의 의료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으리라.

어떤 때, 어느 장소에서도 뜻있는 삶의 의미와 여유를 잃지 않으리라.

제1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참관기



이 번행사는 경북의사회가 주최가 되어서 전북의사회 회원들이 방문하는 차례로 진행되었다.

2004년 10월 9일(토) 19:00~10월 10일 15:00의 일정으로 경주 코오롱호텔(화랑홀)에서 백승인 기획이사의 사회로 변영우 경북회장의 환영사 및 회원소개, 김학경 전북회장의 답사 및 회원소개, 신현우 울산회장, 이원기 경북의사회 대의원 의장의 축사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친선의 목적은 지역적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니 일년에 한번이라도 만남의 기쁨을 나누고 정다움을 서로가 느끼는 것이다.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여야 하겠지만 대표가 되는 의사회 임원, 각 지역 의사회 회장, 일부 회원만이 참여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예산의 항목에 따라 행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서 알리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참석을 못한 정만진 울릉군보건의료원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는 기쁜 소식과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008년이면 대한의사협회가 1908년에 창립되어 100주년의 해를 맞이한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신현우 울산회장의 의사에 대한 국가시책이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나아가는 현실을 힘주어 개탄했다.

2부 순서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견배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친교의 시간이었다. 지난해 남원에서는 창도 듣고 배우는 특별 순서를 가졌는데 단출하게 우리만의 잔치로 치루었다. 손님에 대한 마음의 정성을 보임으로서 경북의 투박한 인심을 느끼게 했다고 자부한다고 하면 긍정이 될는지 모르겠다.

마침 같은 테이블에서 양형식 부회장과 더불어 지역의 관심사이고 국가 사업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다.

객관적으로 사업이 계속될 때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가, 완성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나의 상식으로는 공장을 짓는다, 도로를 낸다, 주택을 짓는다 하면서 농토를 잠식하면 줄어든 면적 만큼 확보를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농특세를 징수한다. 그 자금으로 간척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엄청난 국토 확장 사업이다. 양형식 부회장도 인정을 해주었고 논밭도 넓어질뿐 아니라 연안의 수심이 깊어서 항구로서의 조건이 안성맞춤이란다.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미래의 전망과 영합되면 아무리 큰 배라도 정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의 의견을 가진 상대를 설득하여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강안 무주회장은 경주와 경쟁을 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유치가 자기로서는 경주에 오기를 바란다고 겸양을 표시했다. 지역이기주의는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무주는 강원도 평창과도 동계올림픽 개최를 서로가 유치 경쟁을 하는 사이이다.

이튿날은 골프팀과 산행팀으로 나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남의 건강을 돌본다는 사명



으로 막상 자기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람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나로서는 먼저 경주 남산에 처음으로 산행을 했기에 이번에는 보문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게 되었다. 나는 임원조로 유인상, 장전, 김남주(여)에 1조 IN코스로 하였다. 유인상 원장님은 같은 안과의

사로서 대선배이시고 익산에서 오신 장전 원장님은 스포츠맨으로서 성적은 훨씬 앞서시는 분이셨고 김남주 회원은 기본기를 갖춘분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본기도 갖추지 못했고 연습도 부족한 나는 타수를 줄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동심에서 자치기하던 어린시절을 추억삼아 넓은 초원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채를 휘두를 때 그 즐거움은 한량이 없었다. 조원들과 서로를 위로 하면서 담소하고 지도도 받고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시간은 18홀이 부족했다.

산행팀과 합류한 곳은 경주에서 유명한 뉴부산횃집에서 정갈한 횃감과 반주를 곁들이는 점심식사는 식욕을 한껏 채워주었다.

시상은 오신 손님 대접이라고 거의 전부 전북팀에게 수여되었는데 김병주 명예회장님은 8순 노인답지 않게 성적도 우수하고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특별상을 안겨드림으로 예우했다. 메달리스상은 엄정한 타수 기록을 하여 진실되게 최소타의 장본인에게 시상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각 지역회장이 준비한 선물을 교환했는데 안동에서는 김재왕 회장이 하회탈 목걸이를 준비해서 전달했다.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전주, 남원, 익산, 무주 등지로 5시간 이상의 여정을 위로하면서 내년에는 전북에서 만나기로 기약하면서 헤어지는 손길을 차창으로 보냈다.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 안동 / TEL 054-854-5775 / E-mail cyg4112@hanmail.net

제4회 대한의사산악회 등반대회 후기



2003년 5월 2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백산 국망봉 산행을 한 후 풍기읍내 식당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의사산악회 총회는 날씨만큼이나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 대한의사산악회 부회장이었던 최호섭회원(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이 제2대 회장으로 피선됨으로서 경북에서 집행부를 맡게 되었고 2004년 제4회 대한의사산악회 등반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

대한의사산악회는 서울시의사회 산악회가 주축이 되어서 창립이 되었는데, 2001년 제1회 등반행사를 무주 속리산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초대 회장으로 이상석회원(서울 이상석비뇨기과의원)이 추대되었다.

그 당시 전국에서 산악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그 밖의 중소 시 군 단위 몇 군데 정도였다. 이렇게 조직된 대한의사산악회는 2회 등반대회를 2002년 소백산에서, 3회 대회를 다시 소백산에서 개최를 하였고, 참가 인원도 매년 늘어나 3회 대회에는 200여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참가지역도 서울, 대구, 경북, 경남, 전북 등지로 늘어났다. 경북의사회는 2002년 2회 대회부터 경북의사회 가족산행 행사로 참가를 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산악회 회장으로 최호섭 회원이 피선되면서 2004년 행사를 경북에서 주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당시 경북에는 포항시의사회 이외에 산악회가 조직된 곳이 없었다. 포항시의사산악회도 2002년 11월 조직되어 매월 정기산행을 하고 있었지만, 참가인원이나 재정 등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서 3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행사를 주관해야 하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최호섭회장님은 포항시의사산악회 회장을 겸하고 있었고, 나는 총무를 맡고 있었으니, 회장님이 전국회장이 되었으니, 총무 자리도 고스란히 나한테 떨어질게 뻔했다. 조직도, 인원도 재정도 약한 지방에서 전국행사를 주최해야되게 생겼으니 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산에 다니는 선배들에게 총무를 맡아 줄 것을 간청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들 사양을 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밖에 없었다. 경북의사회 임원들을 모두 산악회 임원으로 참여시켜서 경북의사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실무진은 경북의사회 임원들로 짜고, 고문, 부회장은 각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한의사산악회 집행부가 그럴듯하게 구성이 되었다.

2003년 10월 26일 계룡산 등반을 마친 후 동학사 입구 모 식당에서 인수인계 모임이 있었다. 이상석 전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집행부를 맡았던 서울시의사산악회 임원들이 참석을 하였고, 경북에서는 최호섭 회장, 이경수 고문, 전민 총무간사, 예재명 섭외이사과 포항시의사산악회 회원들이 참석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계내역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고, 다음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동동주에 취하고 단풍으로 가을 정취가 물씬한 계룡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나누다 보니 짧은 가을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어, 모두들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계룡산에서 돌아 온 그 날부터 내 머리에는 항상 행사에 대한 중압감이 떠나지를 않았다. 경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며, 행사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며,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하나도 결정된 것도 없이 그저 걱정만 하다가 이력저력 해가 바뀌고 봄이 왔다.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시기가 온 것이다. 먼저 행사날짜와 행사지를 정해야 했다. 최호섭 회장님의 의견에 따라 김천 황악산(1,111m)을 행사지로 잠정 결정을 하고, 행사날짜는 5월 셋째 일요일인 16일로 정했다. 그리고 3월 28일 팔공산 수태골에서 경북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모여서 팔공산 등반을 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행사계획을 확정짓고, 성공적인 행사준비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기로 다짐을 하였다. 4월 초 첫 공문이 전국시도의사회에 발송되면서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행사 경비는 그 동안 최호섭회장님, 변영우 도의사회회장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행사 준비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합동 산행 후 점심식사 및 총회장소를 황악산 입구 식당에서 하느냐 아니면 근처의 학교를 빌려서 하느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였다.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4월 5일 식목일날 나는 집사람과 함께 황악산을 예정 코스대로 등반을 하고 식당에서 음식도 먹

어보고, 직지사 인근에 있는 직지초등학교도 가 보았다. 등반코스는 올라가는 길은 그다지 험하지 않았으나 하산길이 경사가 매우 급하여 노약자에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 4~5시간은 걸릴 코스라서 만만하지는 않았다. 직지사 입구에는 산채비빔밥 전문식당 등이 즐비했다. 사전에 김천시 의사회에 자문을 구해서 음식 맛을 봤는데 상당히 수준급이어서 음식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장소였다. 제일 큰 식당이 200명 정도 수용을 할 정도여서 300여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인근에 있는 직지초등학교를 가 보았다. 직지에서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였지만 버스가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는 인파가 엄청 많이 모여서 300여명 되는 인원이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 후 도의사회장님이 직접 직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장소 사용 약속을 받기까지 했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학교 운동장에서의 행사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비록 한 자리에 모든 인원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냥 식당 두 군데로 분산을 하여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다. 최호섭 회장이 직접 직지사 앞 식당을 방문하여 두 곳을 선정을 했다. 이재백 등반대장(포항, 이재백안과의원)은 직접 등반코스를 답사하고, 미리 제작해 둔 대한의사산악회 리본을 곳곳에 부착을 하여 행사 당일 등반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전국에서 먼길을 찾아온 회원들에게 가급적 좋은 기념품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품 선정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재정 상태가 넉넉하다면 더 좋은 기념품을 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대로 기능성 티셔츠와 소형 손전등을 기념품으로 선정을 했다. 김천시 의사회는 대형 현수막 두 개를 만들어서 직지사로 들어오는 도로에 걸기로 했다. 그리고 김천시와 협의하여 입장료 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되었다. 행사 당일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을 다른 등산객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마크를 가슴에 부착하도록 제작을 했다. 마지막으로 행사 팸플릿 제작을 의뢰하는 것을 끝으로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제 행사 당일 무사히 등반행사 및 총회를 치르는 일만 남았다.

제4회 대한의사산악회총회 및 등반대회는 제3회 경북의사회 가족등반대회를 겸하고 있으므로 행사당일 경북에서 100여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하였으며, 서울, 대구, 경남, 전북 등지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이른 아침에 속속 직지사 주차장으로 모여들었다. 구미시 인명구조단원 6명을 회원들 도착 1시간 전 미리 등산로 곳곳에 배치시켜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했다. 오전 10시 주차장에 마련 된 접수처에서 도착하는 순서대로 각 지역별로 기념품, 팸플릿, 식권 등을 배부하고 바로 산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오후 3시까지는 하산을 하도록 당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전북지역 회원들을 올려 보내고, 접수처를 철수하고 식당으로 옮겨서 총회 준비를 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다른 지역보다 1시간 일찍 올라간 대구회원들이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들면서 직지사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 식당 주위는 매우 혼잡했다. 다행히 가슴에 부착한 대한의사협회 마크 때문에 회원들의 식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 산악인들은 몇 차례의 합동산행에서 낮이 익은 얼굴들이 많았고,

서로들 반갑게 인사하며, 시원한 동동주 한잔으로 땀을 식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식사를 하면서 총회가 시작되었다. 최호섭 회장의 환영의 인사말에 이어 변영우 경북의사회장의 환영사, 각 지역 의사산악회장 소개, 참가한 내빈 소개 등이 있는 후 신임 회장으로 백경열 서울시산악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서울, 경남 등 먼 지역부터 귀가 길에 올랐다. 내년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전국에서 온 버스들이 줄줄히 직지사를 떠난 후 경북회원들은 따로 모여서, 뒷풀이 겸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300여명이 참가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경북의사회가 성공리에 치르게 된 것은, 최호섭 산악회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변영우 도의사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상북도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고하신 산악회 임원여러분들과 도의사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산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제2대 대한의사산악회 임원 명단

직책	성명	병원명	지역	직책	성명	병원명	지역
고문	신형균	신형균산부인과의원	서울	총무이사	백승인	백승인소아과의원	경주
"	반재돈	삼성정형외과의원	청도	기획이사	이봉구	이피부과의원	경주
"	이경수	이안과의원	포항	총무간사	전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포항
명예회장	이상석	이상석비뇨기과의원	서울	홍보이사	권오일	중앙산부인과의원	안동
회장	최호섭	울진의료원	울진	섭외이사	예재명	신세계산부인과의원	포항
부회장	백경열	백정형외과의원	서울	재무이사	천중욱	천내과의원	경주
"	이원보	이원보산부인과의원	경남	의무이사	이경섭	동국대경주병원	경주
"	김덕근	김덕근내과의원	부산	여의사	김남주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의원	포항
"	김철수	김철수산부인과의원	대구	등반대장	이재백	이재백안과의원	포항
"	백진형	동제의원	군산	감사	하상호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의원	포항
"	권순대	권순대외과의원	인천	"	장태식	장태식비뇨기과의원	포항
"	조종남	조윤희산부인과의원	서울				

전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 포항 / TEL 054-247-7861 / E-mail med828@hotmail.com



특집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 참여해 주신 원로 선생님(연령순) ❖

- | | | |
|-----------------------|------------|-----------------------|
| • 이 덕 진 : 85세(1920년생) | 평인의원(영천) | 의사생활 60년, 멋쟁이 의사 이덕진 |
| • 조 성 래 : 79세(1926년생) | 연일의원(포항) | 오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
| • 박 창 희 : 76세(1929년생) | 성누가의원(안동)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
| • 김 홍 웅 : 76세(1929년생) | 대구의원(경산) | 가르치는 선생님에서 치료하는 선생님으로 |
| • 박 재 호 : 73세(1932년생) | 대산외과의원(구미) | 연세는 70대, 열정은 40대 |
| • 유 환 무 : 69세(1936년생) | 유내과의원(경주) | 의사 성악가 유환무 |

여기 경북의사회 원로 선생님 여섯 분의 지나온 발자취가 투영된 사진첩을 펼쳐 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70세에서 85세까지, 심지어 의사생활 60년 까지, 선생님들의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들은 곧 의료계의 역사요, 들려주는 이야기는 곧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여섯 분 모두 자료정리에도 너무나 적극적으로어서 우리 편집위원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성이 가득 담긴 원고를 쓰시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수많은 사진첩을 들춰내어 그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재미있는 사진들을 골라내어 하나하나 설명을 붙여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편집위원들은 원로 선생님들의 정성에 감동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섯 분 모두 훌륭하고 개성있게 살아오신 만큼 후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찌 여섯 분들만 그러하겠습니까? 경북의사회의 모든 회원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저희 편집위원들은 이번 '원로 선생님의 미니 자서전'을 기획하면서, 그 대상자의 선정에서 편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정되신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동서남북의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행여 저희들의 선별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알아야 오늘을 바로 볼 수 있고, 오늘을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의료계의 현실 속에서 원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위한 충고이자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추억의 사진첩을 뒤적여 알찬 자료를 보내주신 여섯 분 원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일동)

이덕진 원장 최근 모습



SPECIAL Interview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이덕진 원장
평인의원 · 영천
TEL 054-334-2028

“후배의사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업에 뛰어들지 마세요,
의사들은 다른 직종에서 닳고 닳은 사람들과
부딪치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의사생활 60년, 멋쟁이 의사 이덕진

의사생활 60년!

1920년 12월 6일생인 영천의 이덕진 원장님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모어(humour)가 넘쳐나고 활동적인 멋쟁이 선생님이다. 영남 3대 누각의 하나인 조양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양공원의 골목길을 내려오면 고색이 창연한 붉은 벽돌집에 「평등의원」간판이 붙어있다. 오는 10월 10일이면 개원 회갑을 맞이하는 이덕진 원장님의 추억이 어린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선생님의 미니 자서전을 써 보려고 한다.

삼척의 일등양반

이덕진 원장님은 산 높고 물 맑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셨다. 여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보통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공부를 잘 하여 늘 학급에서 1등을 하였다. 그래서 학교 선배들이 “일등양반~, 일등양반~”하며 불렀다고 한다. 이때부터 자신도 남 못지않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원장님은 어릴 때부터 총명한 아이로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소화 20년(1945년)의 일본어 의사 합격증

해방되던 1945년 당시에는 병원도 의사도 드물 때다. 그 당시 강릉을 중심으로 6개 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강릉 도립의원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은 일본인 이었고 부원장으로 경성제국대학(서울대 전신) 2기 출신의 박건원이란 유명한 외과 의사가 계셨다. 이분은 특히 appendectomy를 잘 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이 분이 도립의원 부원장 직을 사임하시고 “정목의원”이란 이름을 달고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덕진 원장님이 그 병원의 조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원장님이 의료계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경성의전, 평양의전, 세브란스의전, 대구의전(경북의대 전신) 등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 조선 사람은 10~20%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사람들이었다.

이 때는 의전을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고 한다. 병원 조수로 근무하다보니 의사가 되고 싶어졌다. 그래서 22세때부터 열심히 의학공부를 하여 26세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하는 의사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의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병원 조수에서 의사로 변신하게 되었으니 승천한 기분이었으리라. 그것이 60년 전 1945년 해방되던 해 봄의 일이다.

26세 젊은 원장

5월에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8월에 해방이 되자 박건원 원장님은 미국 통치가 시작되자 강원 도지사로 임명되어 가시고, 이선생님은 그 해 10월 10일에 “평등의원”이란 이름으로 작은 의원을 개원하여 젊은 초보 원장이 되었다.

낮선 땅 영천으로 온 이유는

강원도 평창의 대화(大和)에서 개업을 하고 있다가, Appendectomy 수술 기법을 수련하고자 강원도립 영월의원에서 근무하다 6.25 동란을 맞았다. 1.4 후퇴 시에 걸어서 대구를 거쳐 영천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그 당시 영월군의 방위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영천에서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영천으로 온 것이지, 특별한 연고나 친척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피난으로 온 영천에서 다시 “평인의원”이란 이름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나이 32세였다.

최고의 신랑감, 그리고 신식 결혼

지금도 그렇지만 미남에 총각 의사, 최고의 신랑감이었다. 그래서 작은 의원을 큰 병원으로 지어주겠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러나 영천에서 개원한 다음해인 33세에 함흥에서 피난 온 아름답고 지성미 넘치는 지금의 아내와 중매 반 연애 반으로 신식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은 부산 동래로

지금은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주도, 경주, 설악산 등이 주요 신혼여행지였다. 그러나 50여 년 전 당시에는 부산 동래온천이 가장 유명한 신혼여행 장소였다.

지금 가보면 동래온천장은 규모도 작고 볼품없으나 그 때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연못이 있는 최고의 허니문 여행지였다.

시련의 시기, 결핵과의 사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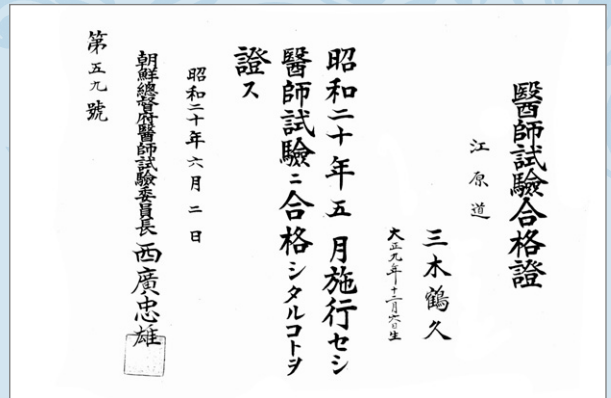
이선생님은 의사이면서도 결핵으로 생사를 넘나든 경험이 있다. 결혼 전에 심한 좌측 신장 결핵으로 경성제국대학 병원에서 좌측 신장 수술을 받았으나 Fistula가 생겨 5년도 넘게 고생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폐결핵까지 악화되어 몇 차례 각혈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SM 주사약이 개발 도입되어 16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운 좋게 살아났다.

지금은 SM의 부작용이 알려지고 더 좋은 결핵약이 많이 개발되어 SM을 잘 쓰지 않지만 그 때는 최고의 결핵약이었다. SM이 없었다면 살아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들, 딸, 손녀, 손자

이원장님은 2남 2녀를 두셨는데, 장모님 덕분에 국민학교 시절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모두 수재들이었다. 맏딸은 경기 여 중고를 나왔고, 둘째 딸은 이화 여 중고를 나왔으며, 맏아들 역시 경기고등을 졸업하였으나 둘째 아들은 뽕뽕이 1세대로 휘문고등학교를 배정받았다.

맏사위는 경영학, 둘째 사위는 경제학, 맏아들은 computer공학, 둘째 아들은 건축공학을 전공하여 모두 박사학위를 받고, 사위 둘은 미국에서, 아들 둘은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2세의 농사를 아주 풍성하



의사합격증



결혼식



신혼여행, 부산



1945. 10. 10. 첫 개원
평등의원 앞에서 모친과 조카



만아들 박사학위 받을 때(딸내외, 아들내외, 손자, 손녀들)
미국서 온가족 모임

게 지었다고 할 수 있다. 2세 뿐만 아니라 3세들도 공부를 잘 하여, 손자는 New York 동북부에 있는 더-드 마드 대학에서, 만손녀는 미시간 대학에서 all A 학점을 받아 학비는 물론 모든 숙식 경비까지 제공받는 특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올해 졸업예정이며, 둘째 손녀도 공부를 잘 하여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재 집안에 수재가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옛날 의사는 만물박사

이원장님은 1945년 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평생 동안 의료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오셨다. 그래서 다가오는 10월 10일이 되면 영광스런 개원 60년의 회갑을 맞게 된다.

옛날의 의사는 만물박사여야만 했다. 전문의가 없는 시절이었기에 이원장님은 충수염은 물론 디프테리아 수술, 기관지 절개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위궤양 수술과 담낭 수술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Appendectomy만은 전공 중의 전공으로 영천 인근에는 Appendectomy 잘 하는 의사로 소문이 나 있고, 지금도

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료사고 같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죽은 사람 살리기

옛날에는 디프테리아 환자가 아주 많았다고 한다. 개원하고 있던 어느 날 디프테리아로 인하여 숨을 쉬지 못하고 맥박만 겨우 뛰는 환자가 들어왔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목 부위 소독은 물론 소독도 안 된 메스를 들고 급히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시행한 결과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정말 죽은 사람 살리기였다. 의사란 사람은 이런 기적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 큰 보람이다. 그런데 많은 진료과목으로 세분화 된 현대의 의사들이 과연 이런 급한 상황에서 기관지 절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은 응급의학이나 신경외과 또는 ENT 의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의료사고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과거와 현대의 의료를 비교할 때 너무나 많이 발달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라이온스 국제대회 참석(1972), 미국 뉴올리언스

감옥, 가볼만한 곳이지요(옥살이 경험)

사람이 오래 살다보면 별별 경험을 다 하게 된다. 그런데 이원장님께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번은 유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주간 감방에 수감된 적이 있고, 또 한번은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죄로 1주일간 옥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유산과 연관된 과실치사는 생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허위 진단서와 연관된 것은, 의학 상식도 없어 보이는 어수룩한 농촌사람이 늑골 골절의 증세와 똑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X-ray 사진 상에도 잘 보이지 않아 늑골 골절로 오진하여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였는데, 그것이 함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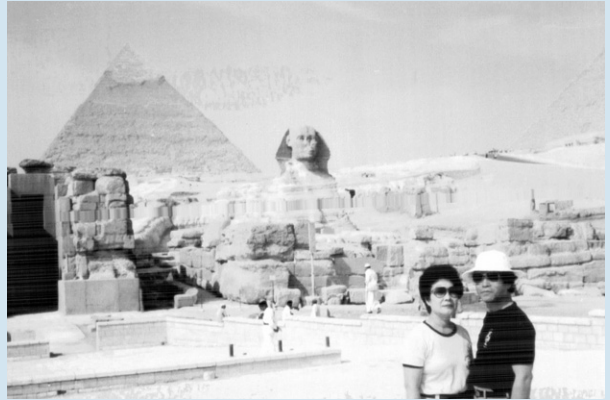
비록 오진은 하였지만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발부하지는 않았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풀려났지만 옥살이의 경험은 평생의 쓰디 쓴 경험이었다. 이 때의 쓰라림이 얼마나 컸으면 의과대학을 갈 실력이 충분한데도 아들을 의대에 보내지 않고, 의사 사위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하는 남자로서는 감옥 소도 한번은 가볼만한 처세의 장소라며 농담 한마디를 하셨다.

후배의사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업에 뛰어들지 마세요

후배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의사들은 경험 없는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이원장님도 옛날에 사업에 손을 댔다가 10억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그 때의 경험으로 볼 때, 이사회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의사들이 함부로 다른 사업에 나섰다가는 사기당하고 손해 보기 딱 알맞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하는 의사들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도 의사들은 다른 직종에서 닳고 닳은 사람들과 부딪치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이원장님의 경험에 동조의 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라이온스 회의 참석(대만) 때의 부부사진



1982년 세계일주 관광 중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세계일주 당시(1982년)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여행 많이 하세요

의사들의 생활은 단순하고 사회를 보는 시야도 좁다. 그래서 의사들을 이기적이라거나 유치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의사들도 형편이 되고 장년이 되기 전 젊은 시절에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이원장님 자신은 외국 여행이 그렇게 어려웠던 70년대부터 혼자서 6회, 부부동반으로 6회의 해외여행으로 미국에서 이집트까지 유명하다는 세계명소는 거의 다 보았다고 한다. 그렇다. 여행은 사람의 폭을 넓혀주고 사람 사는 사회를 배우게 한다. 형편이 된다면 여행만큼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없다.

병원으로 확장했었다라면

의사들이 개원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의원이 아닌 병원을 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원장님도 30여 년 전 의원이 한창 번창하고 있을 때 종합병원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1년간 경영학을 공부하였다. 그 당시 졸업 논문의 제목이 “농촌형 종합병원 경영에 대하여”였다고 한다.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 조사한 결과 농촌형 종합병원은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서 종합병원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그 때 종합병원을 만들었다면 이원장님의 오늘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취재 및 편집 : 정만진(울릉군보건의료원 · 울릉)

조성래 원장 최근 모습



SPECIAL Interview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조성래 원장
연일의원 · 포항
TEL 054-285-4252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성인답게
그리고 대접받는 사회인으로서 선린(善隣)의
마음을 배양하여 의(醫)는 인(仁)이란 긍지를
가져야 한다.”

오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 성래 선생님은 1926년 10월 6일 엄친 조 운제 씨와 자친 박 세봉 씨 슬하 3형제 중 3남으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 34번지에서 태어나셨다. 초등학교(당시는 보통학교) 6년을 고향에서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구주(九州) 미야사기(宮崎)현립 다가나베(高鍋) 중학교에 다니시다 해방과 함께 4학년을 중퇴하시고 귀국하신 뒤 대구중학교에서 6년 과정을 졸업하셨다. 그 후 1949년 9월 경북의대 예과에 2회로 입학하셨고 6.25사변이 나자 1950년 9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육군에 종군하신 뒤 명예제대 하셨으며 1956년 3월에 본과 4년 과정을 졸업하신 후 1957년 3월 경북대학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하셨다(1967년 9월에는 동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 포항과는 아무 연고도 없었으며 인턴을 마치고 1957년 4월 25일 경상북도립 포항병원(산부인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포항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포항과의 인연

1962년 8월까지 경상북도립 포항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1962년 9월 2일 포항시 상원동 447-7번지에서 명성의원을 개원하여 1984년 4월 20일까지 진료하셨다. 그 후 경상북도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시어 1993년 10월까지 재직하셨다. 1974년 1월부터 1976년 1월까지 포항시의사회장을 역임하셨으며 1978년 3월부터 1980년 3월까지의 경북의대 동해지구 동창회장직을 수임하셨다. 그 외 대구중학교 초대 동창회장, 포항시 자문위원, 포항라이온스클럽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309)B지구 부총재, 해병제1상륙사단 명예 해병 임명(장군대우) 등 많은 활동을 하셨으며 내무부장관상, 경상북도지사상 등 다수 수상하셨다.

자식 농사

사모님(이상영 씨)께서는 경북여고를 졸업하셨으며 청장년기에는 적십자사 경북지사 및 사회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슬하에 3남을 두셨는데 장남은 미국 유학 후 2개의 석사 학위(경제학과 전산학)를 취득하여 롯데그룹의 대흥기획에서 근무하고 있고 차남은 경북대학교 병원 안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3남은 이비인후과전문의를 취득하고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원하고 있다. 자부들은 약사, 치과의사, 임상병리과전문의로서 사회에서 제몫을 다하고 있다.

여의사가 된 기억에 남는 환자

초창기의 개원은 어떠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개원 초기에는 간호조무사 2명으로 진료를 시작하였고, 병원 신축(1971년 1월) 후에는 임상 검사실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3명이 근무하였으며 그 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

초까지는 간호조무사를 5~6명까지 채용하였다.

1960~70년대는 난산 시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 분만을 시도하였으며 제왕절개는 1년에 10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산모와 함께 4,50시간이나 애를 써서 자연분만 하게 한 것이 수없이 많았다. 또, 당시만 해도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여아분만을 하였을 때에는 원장을 향한 가족들의 원망스런 눈초리를 피하기가 몹시 괴로웠다. 한번은 3성장군을 지낸 분인데 중령시절, 부인이 아이는 순산했으나 유착태반으로 심한 출혈을 하기 시작했다. 용수(用手) 태반박리술은 물론 소파수술 등 갖은 방법으로 5~6시간 전력을 다하여 원인을 제거한 후에야 지혈이 되고 산모의 건강도 순조롭게 회복되었다(당시는 마취제가 희소하여 개복수술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때 출산한 여아가 모 의대를 나와 지금 어엿한 여의사로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일들이 의사의 보람을 느끼는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일본에서 중학시절 (1943년 9월)

포항의료원과 나

지난 시절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항에 와서 아들 셋을 얻었다. 그리고 공직생활도 하고 개원도 20수년간 별 대과 없이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이곳 포항에서 입은 은덕이다. 보은하는 심정으로 낙후되었던 포항의료원 재건 요청에 부응하여 심혈을 기울여 전심전력으로 병원도 신축하고 의료진도 확충하고 대우도 개선하고 정신병원도 신축하는 등 현재의 의료원이 있도록 노력한 것이 효과가 있어 포항 지역 의료계 발전에 일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 50년간 살아온 포항사회의 은덕에 대한 보답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생의 크나큰 기쁨이다.

이상희 지사와 정신병동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으로는 우리 조부님(조용성 씨)이시다. 손톱이 닳아서 깎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면하셨다. 학창시절에는 일본 다카나베 중학교 훈육주임이신 江藤近光 선생님이시다. 이분은 일본인이면서도 앞날의 조선에 대한 한없는 관심과 격려와 후원으로 민족의식을 깨우쳐 준 진실한 교육자였다. 사회에서는 이 상희 경북지사님이시다. 나중에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을 지내신 분이다. 1980년 중반까지도 경상북도 내에서는 정신과 입원실이 있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개인 병의원은 희소했고 주로 대학 병원에 의존한 상태였다. 따라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과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경기도 용인 정신병원에 위탁했다. 이를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그 치료비로 연간 4억원의 도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아신 이지사님께서서는 전후 상황을 알아보신 뒤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포항의료원에 정신병동을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셨다. 그 결과 오늘날 300여명이나 입원 가료할 수 있는 정신병동이 건립되었으니 이것은 이 지역의 크나큰 기쁨이고 행운이며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지사님께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다.

지성인(知性人)과 인술인(仁術人)

의약분업 후 의료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의 의료계를 어떻게 보시며 의료계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13세때(1938년)



예과입학시(1949년)



예과수료기념(1952년 5월) 예과생들이 직접 지은 학사 앞에서



본과시절 경대병원 현관 앞(1955년 11월)



경대 대운동장에서 졸업식 전경(1956년 3월 30일)



결혼식(1956년 10월)



해병대사령부에서 감사패를 받다(1965년 5월)

사회가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이제는 의대의 통합과 의사 배출의 적정수 확립과 의학지식의 선진화, 세계화가 절실하며 또한 일반사회인의 의사에 대한 불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인식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기술인으로서가 아닌 지성인과 자연인으로 대접을 받도록 노력하고 의술을 파는 인물이 아닌 인술인으로서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의사가 되기까지 사회에서 받은 혜택에 대한 환원과 보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성인답게 그리고 대접받는 사회인으로서 선린의 마음을 배양하여 의(醫)는 인(仁)이란 긍지를 가져야 한다.

보은하는 심정으로

그 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의사로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러나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역부족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다. 이곳 포항에서 사회인으로서, 의사란 직업인으로서, 또한 자연인으로서 많은 은혜와 혜택을 입었다. 그에 대한 보은을 아직 마음껏 하지 못한 것 같다. 여생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을지 생각에 잠겨본다.

원래 의대에서 약리학, 특히 한약의 원리와 학술적인 정립과 과학화를 공부하고 싶으셨다는 선생님께서는 근면 성실(勤勉誠實)과 검약지성(儉約至誠)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아오셨다며 ‘다시 태어나도 의사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도 역시 의사’ 라면서 환한 웃음으로 끝맺음을 대신하셨다.



백악관 앞에서(1983년 8월)

취재 및 편집 : 김광만(김소아과권방사선과의원 · 포항)



박사학위 취득후 (1967년 9월)



포항의료원 원장 취임 (1984년 4월)



포항의료원 원장 퇴임 (1993년 10월 30일)



가족들과 함께 (2003년 3월)



SPECIAL Interview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박창희 원장
 성누가의의원 · 안동
 TEL 054-855-1300

“의료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따뜻한 겨울햇빛이 내리쬐는 안동시 동부동의 길모퉁이, 유행을 벗어난 조금은 낡은 듯한 주택을 곁한 자그마한 콘크리트 3층 건물, 이곳이 건물의 세월보다 연로하신 그러나 단단하신 박창희원장님이 지금도 진료하고 계시는 성누가의원이 있는 곳이다.

안동시의사회의 여느 원로선배님들이 그러하시듯 의사회의 일에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느니라 낯설지 않은 걸음으로 원장님을 찾아 뵈 날도 석유난로의 창으로 튀어나오는 빨간 불꽃이 정겨운 진료실에서 환자와 함께 세월을 엮어가고 계셨다. 며칠 후 병원부근 한식집에서 저녁을 곁해 원장님의 지나간 시간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개원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안동도립병원을 사임하고 현재 자리에 성누가의원을 1968년 12월에 개원했습니다. ‘누가’는 성서에 나오는 인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의사이며 문필가, 역사가입니다.

당시에는 개원의원이 4~5개 정도뿐이었어요. 종합병원은 안동도립병원과 안동성소병원이 있었지요. 안동성소병원은 기독교병원이라 하여 일제 압박하에 폐쇄당하여 안동여고 기숙사로 쓰였고 6·25로 전파 당하여서 금곡동 한 모퉁이에 애린진료소란 이름으로 진료하다가 얼마 후 소규모로 복구하였으니 개원의원이 그 만큼 중요했지요. X-ray, 간단한 검사실, 간호사 2명, 의료가사 2명, 운전기사 1명을 두고 입원실도 15개였는데 환자가 꽤 많았습니다. 중간에 성소병원 원장을 지낸 4년을 제외하면 44년쯤 되었네요.

안동이 원장님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안동시 금곡동 35번지, 속칭 서당골 언덕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929년 3월이었으니. 76년전 이 되지요? 지금의 초등학교인 안동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목사이신 아버지가 영천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함에 따라 영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때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낯선곳이니 교회에 남아 풍금치며 찬송한것이 노래와 음악에 취미를 늘인 계기가 되었어요. 진학은 대구로 해



박사학위 수여식(부산대 총장과 함께)

서 계성중학교 6년을 마치고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 2년 재학 중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6.25전쟁으로 지원 입대하여 보병 제7사단 의무대에 복무하다가 복학하였습니다. 고향인 안동에는 동산병원에서 수련 중 당시 안동도립병원장이시던 백대성박사께서 두 번이나 나를 찾아와서 안동가서 같이 일해보자고 얼마나 강권하시던지 태어난 고향이고 처가도 안동이라 59년에 경상북도립 안동병원(현 안동의료원)외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료원은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병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도 많고 병원마다 시설이며 의료인력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당시 안동도립병원은 북부지구에서 유일한 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막중하였지요. 일도 많고 힘들었어요.

내과, 외과, 약제실, 임상병리, 방사선실등이 있었고 특히 방사선실은 촬영기, 자외선치료기 그리고 중앙치료에 필요한 일본제 방사선치료기가 구비되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중한 환자도 많았습니다.

내과 과장에는 작고하신 김용근선생이 계셨고 외과에는 내가 배임을 받았는데 그것도 서울, 중앙고등전형위원회에서 필기와 구두시험을 치루고 지방의무기좌(사무관)란 직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번은 먼 친척뻘되는 산모가 난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았더니 태아는 횡위로 한쪽팔이 밖으로 나와서 3일이 되어 괴사되어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서 당시 산부인과 박무철선생과 함께 밤새도록 태아적출술을 시행하여 무사히 산모를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잠을 좀 자기위해 두사람이 손을 잡고 헤어질 때 먼동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비록 고생스럽고 피곤했지만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무도 잘 돌보지 않는 나병환자수용시설인 성좌원 환자들을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양쪽 손가락이 다 절단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인사하던 생각도 나네요.

그리고보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혈기왕성하게 동고동락하였던 백태성원장, 남우선원장, 권오현원장, 김용근내과장, 또 권동훈서무과장, 권현국총무과장, 이연복약제과장등 여러 고인이 된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안동의료원에서의 10년이란 세월은 나의 젊음을 사명감으로 불태운 아름다운 추억이지요.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의료원에서의 시간은 참다운 '인생학'을 체험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성중학교 입학때

원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좌우명이나 가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마련한 우리집의 가훈입니다만 ‘施比受更爲福’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군대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고생, 말도 마세요. 의예과 2학년때 6.25가 터졌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워야지요. 전황이 불리하던 8월 하순, 지금 대학병원 앞마당에서 제식훈련을 일주일정도 받고 있던 중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이동명령이 내렸어요. 각자의 소지품을 전부 영천 우리집에 맡기고 주먹밥 하나씩 받아먹고 안동에 와보니 안동교와 철교 모두 파괴되고 안동시가는 거의 전부 비참하게 폐허가 되어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청주를 향해 이틀 걸려 걸어가는데 문경이화령을 넘을 때는 코피를 흘릴 정도로 지쳐서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충주서 서울로 와서 며칠 후 38선을 넘어 해주, 안주, 개천까지 걸어서오니 그때 비로서 일제군용차가 배당이 되면서 좀 편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평양에 입성하여 얼마 후 이승만대통령이 오셔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행사를 지켜보면서 이제 곧 통일이 되겠구나하는 기쁨으로 가득차 가슴 뿌듯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아름다운 묘향산에 가을단풍경치를 감상하면서 덕천에 갔는데 포위를 당했지요.



1957. 10. 3. 결혼식



제주도의 가을 갈대 속에서 어느 날



포항해수욕장에서 왼쪽 조성래(포항원장), 중간 남우선(안동원장)



와이즈멘 총재시(1993. 4) 경남 마산 방문

북진하는 동안 밤새도록 포성이 작렬하는 중에도 새벽 미명에 교회를 찾아가면 불기 하나 없는 차가운 마루바닥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무릎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숙연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기도를 끝내고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니 용기백배 해집니다. 물론 UN군이 참전하여 전승으로 이끌었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벽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하던 정병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질문이 평범합니다만 가장 기뻐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뻐던 일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군에서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같고요, 슬펐던 일은 명색이 내가 의사인데 늘 병약하시고 빈혈이 심하셨던 어머니를 잘 돌보드리지 못하고 말기대장암 진단을 받고 노령으로 수술도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한 일이 항상 가슴에 남아 있네요.

원장님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요즘 개원가에선 보기 힘든, 아니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는 사체 부검을 하셨습니까?

그참, 그렇지요? 지금도 대한법의학회 평의원으로 있습니다만 보통 한달에 2~3건 정도는 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니까 30여년 동안 약 6~700건 되겠지요. 그 당시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고 또 현장 보존

관계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참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동, 영주, 봉화, 청송, 영양 각지를 두루 다니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산부인과의원 원장이 아기를 분만한 후 자궁무력 증으로 인한 산후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부검해서 감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사가 자궁무력 증으로 출혈한다는걸 이해를 못하더군요. 서너번 검찰에 가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했더니 그 젊은 의사가 찾아와서 큰절을 하면서 고마워하던 일이 생 각납니다.



안동 장로 성가 단장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의 가족에 대해 여쭙질 못했네요. 사모님도 교회일을 열심히 하셔서 권사이시고 훈장을 받으실 만큼 사회봉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요.

집사람은 71세로 권사인데 지금 혜성어린이집원장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경상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실장,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또 도의원일도 했어요. 맞아요, 국민훈장목련장,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수상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장남은 사회복지법인 혜성재단 대표이사로 혜성원장을 맡고 있고 장로입니다. 둘째는 부산침례병원 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놈이 의사입니다. 세째는 M-tec라고 금속섬유제조하는 회사의 대표로 특허취득해서 잘하고 있어요. 막내가 딸인데 사위가 posco(포철)전임 연구원, 경제학박사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맡은 일에 열심들이예요.

원장님께서서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상도 많이 타셨지 않습니까?

안동 YMCA이사장, 국제 와이즈맨 동부지구 총재(40년 봉사), 국제 로타리클럽총재 지역대표(20년 봉사), 한국 보이스카웃 경북연맹위원장(6년)등 사회일도 많이 했고 내무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감사장, 법무부장관 표창, 녹조근정훈장, 한국보이스카웃연맹 무궁화금장 수상등 상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안동장로성가 단장과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의사를 천직으로 삼고 48년을 살아왔으니 뭐 별 다른 직업이 있겠습니까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신학공부해서 목사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으므로 의사와 목사가 되어서 육신과 영혼을 아울러 치유하는 이상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소규모의 노인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더 젊었다라면 더 큰 시설을 설립하여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돌보았다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뜻대로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빛 바랜 사진을 정리하면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세월은 빨라서 그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어느덧 나이만 먹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설립한 어린이집 개원시



가족사진



일본잡보리 한국파견단장



국제 로타리클럽



백두산 등정시

군복무 중이던 1950년 11월 26일 영하 15~16도를 오르내리는 평안남북도 경계지점 '덕천'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평양으로 가는 길은 이미 막혀버려 갈 수 없어 방황하던 중 포탄은 터지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중 가장 많은 군인들이 달려가는 행렬을 따라간 것이 살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갖고 다니던 배낭 던져버리고 이튿날 늦은 아침 집결지에 와서 김이 나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먹고나니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수많은 학우들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의과대학 한 모퉁이에 그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보람있게 참된 삶을 살아보고자 다짐해 봅니다.

醫는 仁術이라 했는데 의사 본연의 자세인 Hippocrates선서 그대로의 참다운 의사상을 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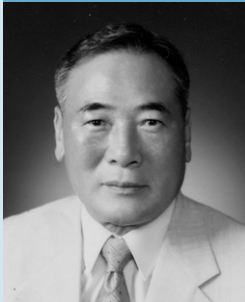
앞으로 의료계는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졸업했을 때는 약 3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졸업생이 3000명이 넘으니 필리핀과 같이 의사가 운전수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의료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열심히 살아 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및 편집 : 김재왕(김재왕내과의원 · 안동)

김홍웅원장 젊은시절



SPECIAL Interview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김홍웅 원장
대구의원 · 경산
TEL 053-851-2525

“의료인의 단합을 부탁하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 의사이기 전에
인간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치료하는 선생님이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팔공산을 오르기 위해 외촌면으로 가는 길목에서 40년간 묵묵히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로서,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우리 후배 의사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는 대구 의원의 김홍웅 원장님을 만나 뵙고 그 분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짧게나마 더듬어 보려고 한다.

원장님께서서는 대구시 북구 조야동(일명 무태라고 불리는 곳의 아래 동네), 당시로서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 마을에서 1929년 12월 2일에 출생하셨고, 대구의 달성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6년제) 및 경북의대까지 졸업하셨다.

운동이 최고야!

원장님께서서는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보다 강한 체력을 지니고 계셔서 비결을 여쭙어 보았더니, 중학교 2학년 때에 해방이 되었는데 운동이 좋아서 방과후 학교 운동장에서 늘 운동을 하였고 학창시절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럭비 등 안 해본 운동이 없으나 물에서 노는 수영, 스케이트는 못한다고 하시면서 웃으신다. 또한 개원 후에도 늘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였다고 하신다.

현재도 새벽 5시에 일어 나서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운동장에서 20~30년 아래의 젊은이들과 테니스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은 지역주민 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본 편집위원으로서 존경과 부러움이 함께 하는 부분이었다.

수학선생님(공무원)에서 늦깎이 의과대학생으로의 변신

김홍웅 원장님께서서는 1950년 6월부터 1955년 3월 25일까지 영덕군 영해면의 영해 중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로서 약 5년 간 중학교 교편생활을 하셨다.

원장님의 아버님께서서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였으나 당시에는 공무원의 퇴직금이 없었던 연고로 노후의 생활이 불안정하였다.

김홍웅 원장님께서도 교사로서 정년 퇴임을 한다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노후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던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던 중에, 영덕군 영해면의 '공의' 신분의 의사 한 분(당시 '한지 의사'로 기억)이 아주 부유하게 살았으며 지방유지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 현실적인 가치 기준들로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1955년 4월 1일 경대 문리과 대학 의예과에 입학하였으며 당시 나이가 27세 이었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만난 아내, 아내는 면장님의 따님

원장님께서 사모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영해 중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로 재직하고 계실 때였다. 그 당시 원장님은 깨끗한 외모에 영해 지역에서 꽤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고 한다.

덕분에 여러 곳에서 맞선을 보자는 제의가 많았으나 원장님께서는 관심이 없던 때라 모두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질녀를 소개시켜줄 테니 한 번 만나 보라고 권유하였다.

역시 단호히 거절을 했지만 하숙집 아주머니는 끈질기게 원장님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미동도 않자 하숙집 아주머니는 작전을 바꾸었다.

결혼에 성공하려면 주위를 공략하라는 말이 있듯이 하숙집 아주머니는 고향인 대구의 원장님의 집에까지 가서 원장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영해로 왔다. 하숙집 아주머니와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로 어머니는 원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결혼할 것을 권하였다.

“이곳 영해는 객지이고, 여러 가지로 외로우며, 우리 집안의 장손인 만큼 빨리 결혼을 해서 자손을 봐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원장님께서서는 어머니께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만나만 봐 달라고 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사모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집 방에서 전등불을 사이에 두고 원장님은 이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고 사모님은 저쪽 구석에 앉아서 서로가 수줍고 부끄러워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원장님께서서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원장님께서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사모님을 만나 보셨는지 원장님에게 결혼할 것을 간청하였다. 그 당시 어머니는 장손인 원장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 하셔서 매사를 원장님을 위주로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어머니의 뜻은 곧 원장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해서 1953년 4월 5일 25세의 나이로 원장님과 사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전통 혼례식으로 치러졌고 원장님께서서는 뚜껑이 없는 가마에 올라타고 신부집으로 향했는데 신부집 마당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전통혼례 식순에 따라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P.S) 그 당시 다리를 놓아 준 하숙집 아주머니는 원장님 사모님의 숙모였고 사모님은 영해 면장의 따님이었다.



송별희(영해중학교 교사 재직 시절, 1955년 3월), 우측 1번째

중학교 교사 시절의 제자와 대학 병원에서 만나다

경대 의대 병원에서 본과 1학년인 제자(申機峻)를 만난 때가 본과 4학년 때이었다.

제자인 신기준 군이 찾아와 “선생님 그동안 안녕 하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고, 이 때 친구(본과 4년생)들이 “김 형! 방금 인사하는 학생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고는 스승과 제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만학인 원장님을 보고 “김 형이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는 말은 들었지만...하하하” 하고 웃기도 했었다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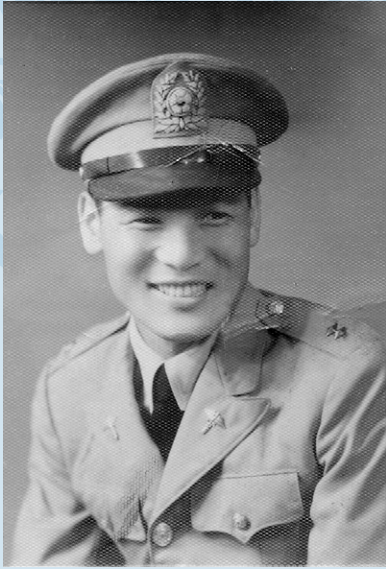
제자인 신기준 군은 현재 수원시에 있는 동 수원 병원 가정 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독야경? 그리고 정시 졸업

1957년 4월 8일 경대 의과대학에 진입하였으며 생활고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지금은 사라진 대구의 덕화 중학교 야간부 시간 강사를 하면서 의과대학을 다녔고, 열심히 공부에 정진하여 1961년 2월 25일 33세의 나이로 유급도 한 번 없이 정시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인턴수련은 군대에서

1961년 4월 17일, 당시에는 마산에 있던 육군 군의학교에 입교하였고 1961년 7월 21일 육군 중위로 임관하였



군의원 입관 시절(1961년)



하양 초등학교 졸업식 장학금 전달 장면
(1975년)



입원실 전경(간호사 및 사무장과 함께)



입원실 전경(간호사 및 딸, 3째 아들과 함께)



경대병원 일반 외과 레지던트 수료기념(1969년)

다.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 군에서 인턴 1년을 수료하느라 4년이 경과 후 1965년 8월31일 육군 대위로 만기 제대 하였다.

드디어 서투른 초보의사의 개원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 군에서 인턴 1년을 수료하고 1965년 8월31일 육군 대위로 만기 제대 후, 하루라도 빨리 개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965년 11월 13일 37세의 나이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5-2(현주소지)에서 대구의원을 개원하였는데 당시 하양에는 회생의원(정태준 원장님, 대구의전 12회 졸업), 하양의원(김계동 원장님, 대구의전 18회 졸업), 성가의원(손해룡 원장님, 대구의전 18회 졸업) 등 3개의 의원이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4번째로 개원하셨으며 경산시(당시는 경산군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전체로는 12명이 개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느끼며,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군에서 인턴 수련을 했지만 실제로 개원 후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대구의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하양에서 함께 개원 중이던 하양의원의 김 계동 원장에게서 “appendectomy를 하려 하는데 assist를 부탁한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나, 당시 김 홍웅 원장님은 retractor를 잡아 본 경험도 없던 터라서 원장님의 얇은 밀천(?)을 드러내기 싫어서 마시지도 못하는 탁주1병을 마시고 혀가 꼬부라진 채로 지난밤에 과음을 한 탓에 술에 취해서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댈고 assist를 해주지 못했던 자존심 상했던 일이 있었다.

그 후 환자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열등의식)을 느끼고, 1966년 3월 1일 경대의 대 부속 병원 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다.

낮에는 수련의 생활로, 밤에는 퇴근 후 다시 하양으로 와서 대구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개원의사가 대학병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대학병원의 교수가 자기의 클리닉을 동시에 개설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요즘의 젊은 의사들은 아는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4년을 외과 레지던트로써, 대구 의원의 원장으로서 바쁘게 보내며 영광스러운 수련의 생활을 마쳤지만, 첫 해에 전문의 시험에 실패를 하고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무엇보다도 처가댁 식구들 보기가 민망하고 죄스러웠으며 특히 아내에게 미안하였다. 그래도 곁에서 용기를 주며 위로해 주었던 아내가 있었기에, 또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라며 든든한 희망이 되어 주었던 3남 1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기에 절치부심 공부하여 이듬해에 다시 도전하여 1971년 5월 일반 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동안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개원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좋았던 기억 한가지로는 소뿔에 반쳐서 혈기흉상(Hemo-pneumothorax)을 입어서 생명이 위독했던 경산시 진량읍의 한 노인을 응급조치(Under Water Seal Drainage)방식으로 수술을 하여 소생시킨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가장 곤란하고 힘들었던 기억은 3세 된 유아에게 간호조무사가 글리세린 관장을 하여야 하는데 크레졸을 잘못 주입하여 그 유아가 사망하였던 일이며, 평소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관리하셨던 원장님이기에 다행히 보호자와 잘 합의되어 조용히 해결되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 가지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신다. 요즘같이 마스크가 발달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높아진 세상에서는 아마도 많이 시끄러웠으리라.

하양 최초의 정구장을 원장님의 손으로

1960년대 후반 당시 하양의 지방유지들이 다방에 모여 서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을 보



대구의원 최초의 개원당시 모습(1965년)



예전 병원 모습(1985년)



현재의 대구의원 건물 신축 기념(1990년)



무의촌 봉사 진료 사진(1977년)



문경세재에서(1980년)

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도 다지고 서로간의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의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970년대 초 당시 강 감수 하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으로부터의 인가문제를 담당하고 하양초등학교 육성회장과 함께 김 홍용 원장님께서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하양초등학교 교정 내에 하양 최초의 정구장을 만들게 되었고 그 후 하양에 정구를 보급하게 되었다고 하신다.

하양에 테니스를 처음 들여오다. 정구를 테니스로 바꾸게 된 배경

누구로부터 레슨을 받지도 않았지만 동호인들끼리 정구를 열심히 즐기던 중 다른 시 군의 추세가 대부분 테니스를 할 때이었고, 우리 의사들의 큰 축제 행사이던 경북 의학제에서는 전부 테니스경기만을 하였으므로 정구 동호인들에게 테니스 라켓을 직접 사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정구를 테니스로 바꿀 수 있었고 제1회 하양 테니스회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하양 지역에 테니스를 보급하시게 되었다.

대구 교동 시장 2층에 세무 잠바 사러 갔던 일(사모님은 예쁘고 깜찍한? 질투쟁이)

시기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는 겨울 세무 잠바가 많이 유행을 했던 때인데 사모님께서 “당신도 요즘 많이들 입고 다니는 세무 잠바를 사 입도록 하세요” 하면서 어느 일요일 세무 잠바를 사기 위해서 교동 시장 2층으로 원장님과 함께 가셨다.

마침 마음에 드는 세무 잠바가 있어서 입어 보았더니 주인 아저씨가 “손님 몸에 딱 맞고 보기 좋습니다” 하고 권했다. 사모님께서도 마음에 들었는지 “얼마지요?” 하고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다. “15만원입니다” 하기에 원장님께서 놀라 “너무 비싸니 안 입겠다”하고 잠바를 벗어 주인 아저씨에게 주었더니 주인 아저씨는 “손님! 누님인지 형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으라고 권할 때 입도록 하세요.”하였다. 이 때 사모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토라져서 “어보! 다른 곳으로 갑시다.”하고 원장님을 잡아 당기셨다.

원장님께서 “당신이 그렇게도 사 입으라고 권하더니 왜 갑자기 가자고 하는가?” 하고 물으셨다. 사모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이나 팔것이지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인 아저씨를 못 마땅히 여기셨다. 아마도 나이보다 많이 젊어 보이는 원장님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으리라. 요즘에는 원장님께서 흰 머리카락을 염색하려 해도 사모님께서 불안해하시기에 못하신다고 농담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마음이 참 짙게 느껴졌다.

정직, 자립(부모, 형제, 친구로부터의 경제적인 자립), 봉사(사회에의 기여)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원장님께서 한 때 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생 각 3명에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총 8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시고 틈틈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를 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하셨다고 한다.

다시 태어나도 의사를...

원장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생각으로는 역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현재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지만 의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이 없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주시는 덕담 한 말씀

의약분업 후 의료계는 대단히 어렵다. 현재의 의료제도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의료업을 하기가 어렵지만, 현 한국의 여러 실정으로 보아서 그래도 의료업이 타 직업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다고 본다. 의료인의 단합을 부탁하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 의사이기 전에 인간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개원할 때 그 지역에서 미리 개원중인 선배 의사들을 찾아뵙고 양해의 부탁과 함께 인사를 하는 것이 뒤늦게 개원하는 의사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후배들에게 욕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서 의료인의 긍지를 살려주기를 바란다.

취재 및 편집 : 이덕영(하양중앙내과의원 · 경산)



가족사진(1975년)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면담(장학금 지급건, 1974년)



의학박사 취득(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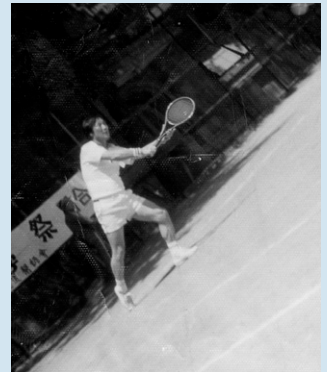
맹장수술 장면(1973년)



입원실앞 3남1녀의 자녀들(1972년)



대구CC 친선골프대회 수상



경북의학제 테니스대회 출전(1980년)

박재호 원장 최근 모습



SPECIAL Interview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박재호 원장
 대산외과의원 · 구미
 TEL 054-452-2102

“승고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사가 되어야...”

연세는 70대, 열정은 40대

30년을 젊게 사시는 원장님

1932년 8월 9일생인 구미의 대산외과의원 박재호 원장님은 아무도 70대 영감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현재도 왕성한 진료활동은 물론, 한겨울을 빼고는 매주 골프를 치실 정도로 건강하시다. 원장님과 자주 운동도 하고, 점심도 같이 하시는 주위 원장님들은 대개가 40대이다. 그래서 경북의대 27회이면서 48회와 동기라고 농담도 잘 하신다.

해발 976m인 금오산에서 낙동강으로 흐르는 하천인 금오천 옆에 아담한 3층 건물이 대산외과의원이다.

고등학교 25년 후배이기도 한 필자가 선배님의 미니자서전을 대신 기록해 볼까 합니다.

출생은 일본 오사카

1932년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때까지는 일본에서 자랐으나, 1945년도 14살때 대동아전쟁으로 인한 공습을 피해서 대구 북성로로 이주해서, 경북의대를 졸업할 때까지(1959년도)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구미시 장천면은 원장님의 고향

1959년도 경북의대를 졸업한 후 4년반동안 군복무를 하고, 부산서 일반의로 4년간 개원하다가, 부산 성분도병원 일반외과에서 5년간 수련하고 1년정도 성분도병원 스태프로 지내다가, 1973년도에 구미에서 개원했다. 구미시 장천면은 원장님의 고향이고 구미시 인동이 외가이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구미에서 개원하게된 동기는 그 당시 구미에서 한국전자회사의 회장으로 계시던 대륜동 동기의 권유가 있었다.



1956년도 해부실습을 마치고 경북의대 교정에서 기념 촬영. 그 당시에는 사체1구에 6명이 한조였다고 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박재호 학생)



군복무시절 사진(맨 우측이 원장님)
1960년도 사단의무중대 진료실 앞. (진료실 지붕이 초가임) 군의관 3명, 치과군의관 1명, 의정장교 1명

2남1녀 중 두아들이 의사

1960년생인 장남은 순천향의대를 졸업하고 경남마산에서 박내과의원을 개원중이며, 두살 아래의 둘째 아들은 서울의대를 졸업해서 서울의대 미생물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며느리 또한 서울의대 소아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둘째보다 5살 적은 막내 예쁜딸은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으며 사위는 일본인으로 하이스하키 선수이다.

개원당시 병원 앞길은 비포장

1977년도 의료보험이 되기전에는 병원에 꼭 와야되는 중한 환자만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환자수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하루 50명~100명 내외였고, 본인부담도 500원, 1000원 하던 시절이니까 수입이 얼마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한해에 집한채 정도는 살 수 있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불쌍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도 많이 하였고, 한편으로는 외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수를 고용할 정도였다. 병원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40평정도에 10여개 이상의 Bed를 들고 마취기사가 지원될 때는 많은 수술도 하였다.

개원초 아찔했던 두사건

첫번째 사건은 개원초창기에는 산부인과 환자도 보았는데, 산모중에 Atonic Bleeding 환자가 생겨서, 거즈로 packing을 아무리 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대구에 계시던 경북산부인과 최영달원장님(박재호원장님의 매부)을 급하게 모셔서 대구에서 급하게 혈액과 수술세트를 가지고 와서 자궁절제술을 하신 아찔한적이 있었으며 두번째 사건은 위궤양 환자를 Antrectomy & Vagotomy를 하고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후 지혈이 되지않아 밤새 워 ice water irrigation을 해서 겨우겨우 다음날 아침 9시경 지혈이 되었다. 정말 고생스러운 밤이었다.

건강을 지키시는 비결

성격이 화통하고, 늘 웃고, 항상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서 그런지 주변에 40대~50대 친구처럼 지내는 원장님들이 많다. 운동을 좋아해서 얼마전까지는 매일 아침 금오산 폭포까지 등산을 하고, 1979년도 시작한 골프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요즘도 토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신다고 한다. 최근에는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고 하시며 주변에 권유도 한다.



1959년도 모 육군병원 병실 옆에서

취재 및 편집 : 이경수(이경수내과의원 · 구미)



197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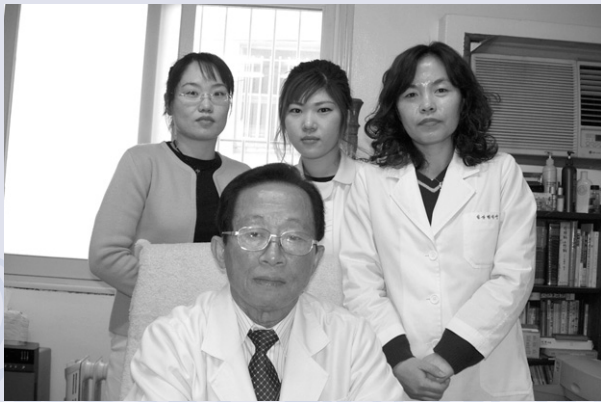
1978년 현재위치로 3층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이사와 앰블런스도 운행함.



가족사진(위-좌로부터 첫째 박찬규, 셋째 박미선, 둘째 박정규)



1977년도 구미시의사회 2박3일로 가을여행(총무-지금 지명은 통영) 뒤에 보이는 것이 총무공 동상



현재 병원식구들

유환무원장 최근모습



SPECIAL Interview 원로선생님의 미니자서전



유환무 원장
유내과의원 · 경주
TEL 054-772-2808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사는 웃음을 잃지 말고
환자(약자)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감싸고 돌봐주자.”

의사 성악가 유환무

Positive Mental Attitude, Positive Thinking Attitude

진료실에 앉아 있다보면 무언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꾸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는 요즘이다. 이 시대에 바람직한 의사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의사상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의사 한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그마한 체구에 항상 단정한 옷차림, 인자한 미소로 누구에게나 포근한 느낌을 주시는 유환무(경주, 유내과의원)원장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일상생활에서 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경주 감리교회 장로) 살아오신 분이다. 30년 가까이 내과의사로서 환자를 성실하게 돌보고, 특히 성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3차례나 독창회를 개최하였으며, 20년간 경주 기독교 연합 찬양대 지휘자로도 활동하시고 있다.

시간관념이 너무나 철저하셔서 이번 인터뷰 장소에도 먼저 나와 계셔서 2분 늦게 도착한 편집위원을 민망하게 하기도.

개성에서 대구로 남하

유환무 원장님은 1936년 11월 30일 개성에서 4남 2녀의 막내로 출생하셨다. 농사를 짓던 아버님은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형, 누나들과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 유난히 총명했던 유원장님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일에 열심하게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거듭난 이후 평생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다.(경주 감리교회 장로)

38선 이남이었던 개성은 6·25전쟁당시 100일간 공산치하에 있다가 국군의 진격으로 수복되었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또다시 공산치하로 들어가게 된다. 기독교인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1950년 12월 6일(개성중학교 4학년 때) 온 가족은 고향땅 개성을 떠나 큰 누님이 사시던 대구로 남하하게 된다. 대구에서 동산간호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큰 누님 덕분에 비교적 쉽게 대구에 정착하게 된 가족들은 지금도 큰 누님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처럼 온 집안을 구원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큰누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고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목련장을 수상하셨다.

대구로 남하한 당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미군부대 막일 등으로 집안 생계를 돕다가 어렵사리 계성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 후로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육군 군위관으로 근무 후 1973년 경주 동산병원 내과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과 의사 30년 생활이 시작된다.

큰 형님은 의사, 둘째는 방사선기사, 셋째는 목사, 누님 둘은 간호사로 집안 형제 모두가 의료인과 목회자로 훌륭히 성장한 화목한 집안이다.

오전 4시 접수 시작, 오전 9시 접수 마감

경주 기독교병원(계명대 부속 경주동산병원)내과 과장으로 부임하여 3년 3개월 근무 후 1976년 4월 3일 유내과의원을 개원하였다. 개원 당시 경주에는 내과의원은 오내과 1곳뿐이었기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됐는데, 밀려드는 환자들로 새벽 4시경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오전 9시경 접수를 마감할 정도였다고 한다. 초창기 직원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방사선 기사 1명 조수 1명, 병리기사 1명 조수 1명, 접수 1명, 기타 2명이 근무했으며, 멀리 포항, 울진, 안동, 대구 등지에서도 명성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기에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세무서장 표창까지 받았다. 며칠 전 초창기에 치료받았던 환자가 내원해서 아직까지도 그 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맙다고 인사할 때 새삼스레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셨다고.



기독교학생회 무의촌 진료(앞줄 중앙이 유환무회장)

목회자와 의사로 성장한 자녀들

레지던트 시절 이화여대 약대 졸업반이던 사모님(전국적으로 환자 많기로 유명했던 부산 평화소아과 따님)과 중매로 만나 1968년 3월 16일 결혼(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고, 평상시 모임에도 꼭 정시에 나타나신다)하여 1남 2녀를 두셨다.

현재 장남은 한신대학교 대학원(신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5년 10월경 목사안수 예정이다. 장녀는 한신대학교 대학원(신학 석사)을 졸업하고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과정 중이며, 한신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중이며, 만사위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석사학위)을 졸업하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감리교 신학대학, 아주대 등 출강중이다.

차녀는 유일하게 의업을 계승하여 남편과 함께 삼성의료원 외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양한 사회활동

유환무 원장님은 경주시의사회장, 경상북도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경주 YMCA 이사장 시절 어려운 상황에서도 YMCA 회관을 처음으로 건립하였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체를 위한 경주 시민의모임 상임대표, 환경 보전을 위한 경주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 경주시 기독교의사회장, 경주시 기독교 연합회장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셨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 오셨다.

의사 성악가 유환무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던 큰 형님께서 성악곡이 담긴 유성기관을 몇 장 사다주셨는데, 그것을 수없이 들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고, 고등학교 1학년때 갑자기 목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셨단다. 그 후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노래가 너무 좋아 성악을 공부하게 되었고, 3회에 걸쳐 독창회를 열었으며, 테너 박인수, 박성원(국립 오페라단 단장)등과 교류하며 소프라노 정영미 등과 협연할 정도로 프로급의 실력이다. 현재도 경주 기독교 연합찬양대 지휘자로 20년간 활동하신다.



입관하던 날



군의학교 생도시절 (후보생)



개원하던 날(경주시 동부동)



함석헌옹과 함께

앞으로 앞으로...

개성중학교 3학년때 읽어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읽고 함석헌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대구 YMCA 초청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대구에 오셔서 강연하셨을때 빠지지않고 참석했으며 ‘사상계’ 잡지에 올려진 글들도 빠짐없이 읽었다. 지금도 인상에 남는 강연 내용은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나서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불안을 느낀 선원들이 뒤돌아가자고 했을 때 “앞으로, 앞으로”를 외치며 전진해나갔던 모습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나라 현실이지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장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함선생님 자신도 힘든 시대 상황에서 컬럼버스처럼 실천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리라 존경하고 있으시다.

Positive Mental Attitude, Positive Thinking Attitude

항상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힘써 왔으며,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특히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오셨다. 요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나날이시란다.

성악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젊은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성악 공부를 했으면 하는 소망이고, 최근엔 시력도 나빠지고 관절통이 점점 심해져 소홀히 했던 건강관리가 후회되신다고.



교회에서 독창하는 모습(경주 감리교회)

현 의료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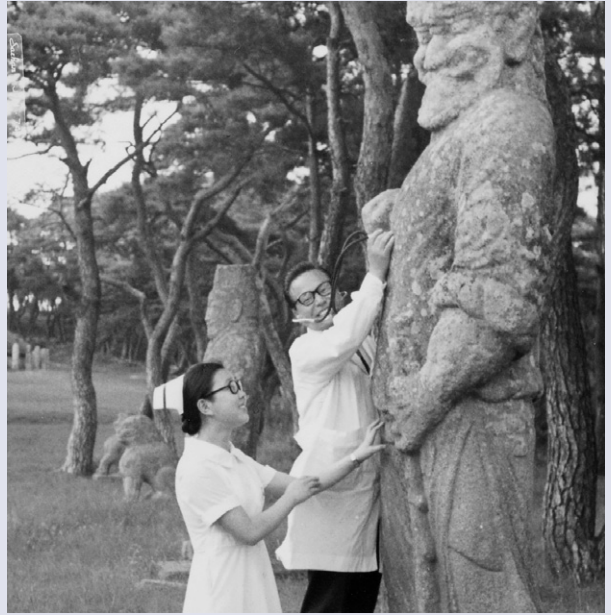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인데 의료계만은 사회주의 체제인 것 같다. 반드시 바뀌어야하고, 반드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의료계는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나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잘 참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밝은 내일은 올 것이다. 모든 일을 단기적으로 성취하려 하지 말자. 의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시기, 질투)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최근 마스크의 위력으로 더 크게 부각되는 느낌인데 현 상황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자.

명석한 의료인들이므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철저히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사는 웃음을 잃지 말고 환자(약자)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감싸고 돌봐주었으면 하고, 각자 받은 달란트(재능, 능력)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길 바란다.

취재 및 편집 : 이봉구(이피부과의원 · 경주)



무의촌 진료 나왔다가(래능에서, 경주기독병원 내과과장 시절)



제2회 테너 유환무 독창회



제16회 국가와 지역을 위한 기관장 초청 조찬 기도회



YMCA 세계대회에 참석해서 한국대표들과 함께 (Denmark의 Nyborg에서)



유환무 원장 가족사진

백수 외출의 10가지

1. 가게에 간다. 라면이 떨어졌다.
(백수도 배꼽 시계는 정확하다.)
2. 은행에 간다. 저금하게? (전기세 내러)
3. 오늘따라 아침 일찍 나간다. 왜일까?
(민방위 훈련이다.)
4. 그냥 나간다. (시체 놀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때문에)
5. 심부름하러 나간다. (식구들의 심부름을 책임진다. 결코 안할 수 없다.)
6.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간다. (이발하러)
7. 오늘은 양복까지 입고 나간다. 아니 왜! 혹시 면접? (결혼식이 있다.)
8. 몇 일전부터는 매일매일 나간다. 정말로 취직한거 아냐?
(몸이 안좋아 병원에 다닌다.)
9. 그래도 즐거운 주말에는 거의 나간다. 데이트구나. (목욕간다.)
10. 담배 사러 나간다.

어딜가나 이란놈 꼭있다....

• 화장실에서...

1. 똥누는데 들어와서 냄새난다고 자랑하는놈
2. 그러고 나갈때 불끄고 나가는 놈
3. 비누 쥐어짜서 병sin만들어 놓는 놈
4. 내 칫솔 번기에 빠뜨렸는데 얼른 올려 놓고 시치미떼는 놈
5. 똥누고 물 안내리는 놈
* 여기에 막강 콤보를 설명드리자면 5번 후에 4번 하고나서 1번 하면서 3번하고 나갈때 2번 하는 놈도 있습니다.

• 컴퓨터할때...

1. 할꺼없어서 바탕화면에 마우스 드래그만 하는 놈
2. 하드용량만 많으면 장평인줄 아는 놈
3. 코드 빼놓고 고장났다고 A/S 부르는 놈
4. 컴퓨터옆에 살림살이 다 차려놓고 사는 놈
5. 모니터 내려놓고 누워서 하는 놈

* 심하게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가 써놓구서 _-;))

• 게임할때...

1. 게임 지고서 마우스땀만 하는 놈
2. 스타 깨지고 주종족이 아니었다고 하는 놈
3. 계속 지면서 어쩌다가 한판 이기면 집에 갈때 까지 그얘기 하는 놈
(“내가 말이야 거기서 그렇게 했지 음하하”) (“근데 너임마 거기서 그걸 만들면 이길수도 있었어 푸하하”)
4. 100판 이기고 1판 졌는데 다음날 내가 그 놈 보다 못한다고 동네에 소문나 있을때
5. 쥐빨도 못하면서 이론만 빠삭한 놈
* 3번, 4번 같은놈 몇명 있는데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 뭐 먹을때...

1. 과자 두봉지 사서 지겨 빨리먹고 내꺼 축내는 놈
2. 껌씹다가 꺼내서 주물럭거리고 다시씹는 놈
3. 먹는거만 보면 던져서 받아먹을려고 하는 놈
4. 성질급해서 컵라면에 미지근한물 붓고 나중에 씹어먹는놈
5. 음료수만 보면 섞어먹어불라고 하는 놈
(제대로 된거 나오느거 못봤다.)
* 3번 뭐라고 안하겠는데 제발 씹던 껌 받아먹지 마라 옆에 있다가 어디서 날라오는 껌 머리에 붙어봤는가.

• 유머란에서...

1. 자기가 못했다고 다른사람한테 시비거는 놈
2. 즐라게 웃고서 추천 안눌르는 놈
3. “님 글 재밌게 읽었습니다”로 시작해서 돈버는싸이트 광고로 끝내는 놈
4. 유머란글 라디오에 보내서 상품타먹는 놈
* 4번은 좀 고민되는군요.. 놀이라고 했다고 추천 안해주실까봐 _-;

• 물건을사면...

1. 뭐든지 사오면 신기하다고 분해해놓고 조립 못하는 놈
2. 맥가이버칼 사고 톱으로 다 쓸고다니는 놈
3. 마이마이 처음사고 테이프 갈아끼우다가 뚜껑 날려먹는놈





4. 들고다니다가 오락실에 놓고오는 놈
 5. 내가 사서 자랑하면 다음날 똑같은거 들고오는 놈
 * 1번으로 날리게 도대체 몇개던가... 으흠
 5번같은놈이 되지 맙시다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환장합니다 _ _

추억의 옛날 개그~

• 택시비
 어느날 시골 할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었다. 도착하니 요금이 3000원이 나왔다.
 할머니는 1500원만 내셨다.
 택시기사가 화가나서
 “왜 1500원만 내세요?”
 “너도 땀잖아.”

• 목욕탕에 간 사오정
 사오정은 오공이랑 목욕탕에 갔다.
 사오정이 때미는데 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때밀이 아저씨께 밀어 달라고 했다.
 때밀이 아저씨가 열심히 미는데 계속 나왔다 너무 화가난 아저씨는
 “너, 지우개지?”

• 문 달아
 선생님: 영재야~, ‘문달아’ 를 소리나는 쓰면 어떻게 돼지?
 영재: ‘문다다’ 요~
 선생님: 영재, 참 잘했어요.
 한편 만득이는 수업시간에 자고 있었다.
 이를 본 선생님이 만득이를 깨우고 물었다.
 선생님: 만득아, ‘문달아’ 소리나는대로 써볼래?
 만득이: ‘꽁’ 이요.

• 원숭이는?
 영어시간에 영어선생님이 만득이에게 질문을 했다.
 “만득아~ 원숭이가 영어로 뭐지?”
 만득이.. 잠시 고민하다..
 대답 했다.
 “mc몽이요.”

• 텔레토비 이야기
 사오정이 텔레토비를 보고 있었다.
 그 때 사오정의 할머니가 사오정에게 물었다.

“저 애들은 왜 맨날 무덤에서만 노냐?”
 “.....”

음주단속 피하는 법

한 부부가 7살 아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됐다.
 경찰: 부시죠.
 남편: 후~~! “뵘이익!”
 경찰: 한계치 초과입니다. 내리시죠.
 남편: 아니, 뭐라구요? 난 술 안먹었습니다.
 기계가 문제라구요!! 여보! 당신이 한번 불러봐!
 아내: 후~~~! “뵘이익!”
 경찰: 아니 두 분이 다 드셨군요!! 서까지 가시죠.
 남편: 아니 정말 당신 왜 이래! 야, 울 이쁜 공주님! 너도 한번 불러봐라!
 공주: 후~~~~~! “뵘이익!”
 남편: 이것 보라구요!!! 내 참!!
 경찰: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우우우웅~~~~~” 한 참을 가다가.....
 남편: 여보, 거 봐 재도 먹이길 잘했지? ㅋㅋ

직업별 베스트 거짓말...^^

모범생: 아휴!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쳤어.
 회사원: 예, 다 되겠습니다.
 웃가게 주인: 어머! 언니한테 딱이네. 완전 맞춤복이야.
 수능 출제위원: 이번 수능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했습니다.
 남대문 리어가 아저씨: 이거 밑지고 파는 거 예여.
 정치가: 단 한푼도 받지 않았어여.
 교장 선생님: (조회시간)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호사: 이 주사는 하나도 안아파요.
 연예인: 우린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에요!
 매니저: 이거 xx기자 한테만 말하는 건데...
 엄마: 대학 가면 살 빠지니까 지금은 부지런히 먹어.
 선생님: 이걸 꼭 시험에 나온다!
 웨딩사진사: 내가 본 신부중에 제일 이쁜데여.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S 기사: 이런 고장은 처음 봅니다.
 약장수: 이 약 한 번 잡썬 봐! 팔다리어깨허리간장위장소장대장이 다아 쉬원해져어!
 수석합격생: 잠은 충분히 자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그럼요!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중국집 주인: 아이구, 음식 갖고 금방 출발했습니다.
 학원 원장: 전국 최고의 합격율을 자랑하죠.
 신인 배우: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여.
 사장: 우리 회사는 바로 사원 여러분의 것 입니다.
 노동자: 내일 당장 그만두겠어!!

웃기는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세로 왔다가 영화관으로 갔다.
 유비가 제일 막내인 장비에게 영화표를 사가지고 오라고했다.
 얼마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장비가 영화관을 부수고 난리가 났다.
 화가난 장비를 말리면서 유비가 장비에게 물었다.
 왜 그랬나고...
 화를 사이며 장비가 하는말.....
 조조만 할인 해준다잖아요!!!



이경수 (발췌·편집)

이경수내과의원 · 구미
 TEL 054-471-1674
 E-mail k1342s@hanmail.net

의학제 삼행시

편집자주

2004년 5월 30일(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제26회 경북 의학제 시조 및 삼행시「선택분업, 알토란」의 시제에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 원

알토란

알쏭알쏭 요지경 의료개혁 미명하에
토굴보다 짙은 동굴로 의사들 몰아 넣어도
란초의 질개처럼 곳곳하게 살아가리

(박성열/삼성안과의원 · 칠곡)

차 상

알토란

일량한 의료정책 분노하는 의사양심
토할 것 같은 심사 참고 또 참았는데
란초도 이 마음 같아 시름겨워 시드네

(김희선/김외과의원 가족 · 김천)

선택분업

선한 마음으로 아픈 환자 어루만지고
택함받은 사명으로 의사분업 충실할 때
분업으로 상처업은 의권회복 이뤄지고
업보가 눈녹듯이 새의사상 탄생되네

(이봉구/이피부과의원 · 경주)

차 하

선택분업

선택적인 부당삭감 암울한 이 현실에
 택일해서 부당실사 참담한 이 심정을
 분홍색 치마폭에 고이집어 놓았다가
 업혀서 참진료가 오는날 푸른하늘 높은곳에 무지개로 펼치리

(석정수/안외과의원 가족 · 김천)



선택분업

선명한 오늘의 어려운 의약분업
 택하라 우리의 송고한 권리를
 분연코 일어나 펼쳐라 미래를
 업보라 생각말고 타개하자 현실을!

(안익효/해성소아과의원 가족 · 안동)

선택분업

선구자 가신길이 이만큼 험했을까
 택없는 조건속에 명드는 의료현실
 분연히 일어서며 읊소한 선택분업
 업이라 여기기엔 너무슬픈 짝사랑

(김광숙/윤소아과의원 가족 · 안동)

참 방

선택분업

선한자 본반으랴 용한자 본반으랴
 택일후 진료할까 양심껏 진료할까
 분연히 일어나서 의사상 확립하고
 업적을 이루리라 경북의 의사회원

(이태규/왜관정형외과의원 · 칠곡)

알 토란

알보찰을 발랐어요 입안이 험어서
 토끼처럼 팔딱팔딱 뒤편쫄
 너무 아파서 근데
 난(란)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다 나왔네요

(김효정/박정돈산부인과의원 가족 · 구미)

선택분업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의업이다
 택하라! 무엇을 선택할까?
 분업이 잘못 되었다면
 업으로 된 의사길을 선택분업으로 열어달라

(정태호/정가정의학과의원 · 구미)



● 제53차 정기대의원 총회









● 2004년도 춘·추계 학술대회



● 2004 무료개안수술



●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황악산)



● 전국 의사 등반대회(장용산)



● 경북 · 전북의사회 친선행사



● 회원친선의 밤 ·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HEADLINE

- 본회 최우수모범지부상 수상
-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 2004년도 춘·추계 학술대회 성료
- 회원 화합의 장 제26회 경북의학제
- 제3회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김천 황약산)
- 경북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성료
- 제3회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성료
- 제1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성료
- 2004 대구·경북의사회 무료개안수술
- 행사 이모저모
- 2005년도 시군의사회 정기총회



본회 최우수모범지부상 수상

포항시의사회는 모범분회로 선정

지난 2004년 4월 24일(토)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의협 제5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한해동안 의협 회무에 적극 동참하여 전국 시도의사회중 가장 모범을 보이며 타 의사회의 귀감이 된 경상북도 의사회(회장 변영우)가 최우수 모범지부로 선정되어 의협회장의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본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중 2003년도 회비 납부에서 회원 대비 9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납부율을 나타냈으며, 2월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개최된 전국 의사 결의대회에서도 2,300여명의 회원들과 가족,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등 전국 회원 대비 최다의 참여율을 기록하였고, 또한 여의도 상경을 위해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하여 도내 각지에서 52대의 전세버스를 대절하여 출발하는 등 한강둔치의 매서운 비바람과 맞서 싸우며 그 어느 의사회보다 의료 민주화를 위해 동참하였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의협회비 납부, 투쟁기금·성금 모금, 각종 투표·설문참여율등 1위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듯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전회원이 일심단결하는 모범 의사회이다.

회원 2,100여명으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의사회이지만 활동력 만큼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대국민 봉사가 필요한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의사회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무 참여는 2001년부터 시작된 '의협사랑 운동'에 기인하여 '의협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명제를 나 자신부터 스스로 실천에 옮기자는 이 캠페인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자연스럽게 모범의사회로 명찰을 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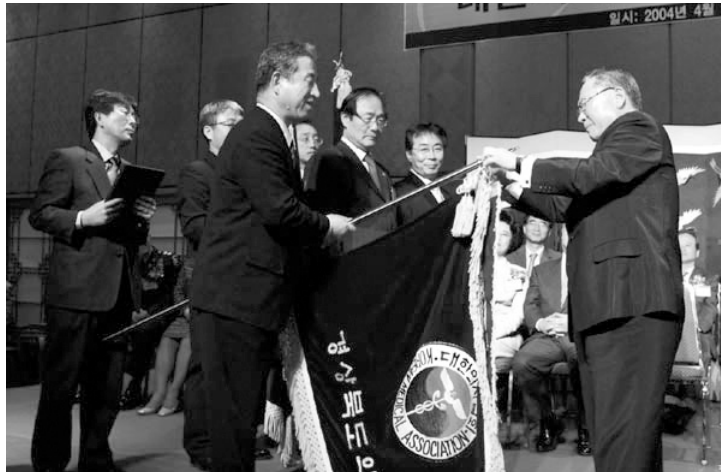
경북의사회의 굵직한 행사로는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차원으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춘·추계 학술대회와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열리고 있는 경북의학제, 전라북도의사회와 1987년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상호 격년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두 지역 의료인 서로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등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가 연중 열리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함께하는 무료개안수술은 경상북도의사회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범분회 표창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방문(여론조사 10% 상위 후보 선정)하여 정책질의서 작성 및 보건의료정책을 설명하였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정책평가단 활동결과를 공지하고 개정 선거법에 따른 불법선거운동 사례 숙지, 각 정당별 정책 및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서면 정책질의서를 작성한 결과로 반모임을 개최하여 회원들과 함께 후보들을 비교 분석하는등 주요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의 정치세력화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포항시의사회(회장 오세진)가 모범 분회로 선정되어 의협회장의 표창패를 각각 수상하였다.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의 전환

본회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30일(화) 오후 4시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을 위한 의사 단체와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 등에 대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 전환' 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남효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신현우 회장, 신은식 전 경북의사회장등 내외빈과 임원 30여명, 대의원 72명(책정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원기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의료계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사는 의료의 주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의 내일을 향한 이정표를 바로 세우고 소신껏 진료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역설하였으며, 변영우 본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의료계에 사회주의 의료의 삭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의사의 자율권을 법·제도적으로 보장 받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므로 모든 회원이 합심단결해 총선에 임하자"고 당부하고, 김재정 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경북의사회는 전국의사회중 가장 모범이 되는 의사회로서 회원들의 단결과 집념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치하하였으며, 4월부터 선택분업 1천만 국민 서명운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2004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회비 250,000원(5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열띤 찬반 토론을 펼친 결과 부결되었으며, 회비 인상없이 의쟁투성금에서 5천7백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2004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새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200만원 증액된 3억3,2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고, 이밖에 의안토의에서는 ▲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건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 간소화 건의 ▲의원급 판독조건서 비치 면제 건의 ▲신개념 의료에 대한 평가기구 설치 건의 ▲국민을 위한 의사단체로의 전환 건의 ▲의사단체 상품지정 제도 도입 건의 ▲의사단체 정치세력화 강화 건의 ▲공제회 활성화 및 배상공제 가입 건의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제도 개선 건의 ▲대한의사산학회 지원 건의등 10개항을 채택하여 의협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관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신규 개원회원 입회비 징수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결과 2004년 4월 1일부터 개원한 회원에 대해서는 개원입회비 30만원으로 책정하여 징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료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와 세제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권역별로 법률고문과 세무고문을 위촉하였다.

〈시상자 명단〉

- 의협회장 : 최유근(안동, 최유근안과의원), 장기호(경산, 현대연합의원), 김장희(경주, 김장희산부인과의원)
- 감 사 장 : 전기명(의협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윤수(경북 보건위생과 의약계장), 윤기환(경북소방본부 지방소방교)
- 모범분회 : 울진군의사회(회장 김신일)
- 회원표창 : 김남주(포항,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의원), 천종욱(경주, 천내과의원), 정세주(김천, 정세주내과의원)
최경수(안동, 최비뇨기과의원), 김도권(구미, 김도권정형외과의원), 김성기(영천, 영남제통마취과의원)
이용우(경산, 장산방사선과의원)
- 직원표창 : 김두중(포항시의사회 사무장)

〈위촉자 명단〉

- 법률고문 : 김인수(대구, 김인수법률사무소), 김상윤(포항, 김상윤법률사무소), 정연경(경주, 정연경법률사무소)
서한규(김천, 서한규법률사무소), 김태계(안동, 화산합동법률사무소)
- 세무고문 : 주영일(경주, 세무사주영일사무소)



2004년도 춘·추계 학술대회 성료

춘계학술대회 5월 경주코오롱호텔, 추계학술대회 11월 경북대학교병원



본회에서는 의학발전과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 차원의 보수교육을 2004년 5월 29일(토), 30일(일)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11월 21일(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의료현안과 관련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춘계학술대회는 변영우회장의 주요회무보고와 의사윤리 교육이 있었으며, 김재정 의협회장의 의료현안, 김선욱 의협 법제이사의 개정 의료법령 해설, 최희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의학의 역할등을 강의로 경북의대 응급의학과 정제명교수등 1편의 학술연제가 발표되었고, 둘째날에는 동국의대 정형외과 정필현 교수의 노인 고관절 골절의 치료등 3개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등을 실시하여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1평점이 주어졌다.

추계학술대회는 개원가의 경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최근 개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제와 유명연사를 초빙하여 실제 임상 적용등에 대한 다양한 실례가 소개되어 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변영우회장은 의사윤리교육 및 의료현안보고에서 최근 수가 협상과정 및

결렬에 대한 경과보고와 의료현안을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태반주사, 효소, 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한 연제 3편과 더불어 학술강연에는 경북의대 피부과 김도원교수의「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강연과 동국의대 비뇨기과 이경섭교수의 학술연제 2편이 발표되어 6평점이 주어졌다.

〈춘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 5월 29일(토) 14:00

▲회무보고 및 의사윤리=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응급의료체계와 응급의학의 역할=정제명 경북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의사와 리더십 : why chang?=이상숙 계명의대 병리와 교수 ▲개정 의료법령 해설=김선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보건의료정책방향=최희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현안=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 5월 30일(일) 09:00

▲당신도 담배를 끊을수 있다=시청각(비디오) ▲노인 고관절 골절의 치료=정필현 동국의대 정형외과 교수 ▲황달의 감별진단과 치료=김태년 영남의대 내과 교수 ▲액취증 치료의 최신지견=박대환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돌연사=시청각(비디오)

〈추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의사윤리 및 의료현안 보고=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건강백세, 태반주사의 임상적 응용 및 효소요법=홍영재 산타호노화방지클리닉 원장 ▲의원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이승남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 ▲Cyriax concept of Shoulder joint=최재의 시리악스정형의학연구회 M.D.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김도원 경북의대 피부과 교수 ▲성기능 장애의 진단과 치료=이경섭 동국의대 비뇨기과 교수

회원 화합의 장 제26회 경북의학계 대성황

종합우승에 동부지구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열리고 있는 제26회 경북의학계가 지난 2004년 5월 30일(일) 오후 2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야외경기로 펼쳐진 의학계 행사에는 변영우회장을 비롯하여 신은식, 최종두 원로회원등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비가오는 곳은 날씨속에서도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의학계에는 바둑, 탁구, 윗놀이, 족구, 2인 3각, 골프피칭, 줄다리기, 번외경기등의 다채로운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바둑, 윗놀이(선수조), 골프피칭, 줄다리기에서 우승한 동부지구가 2003년도에 이어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북부지구, 3위 남부지구, 4위 서부지구가 차지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열띤 경기와 응원을 해준 서부지구가 참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으며, 또한「선택분업, 알토란」의 시제로 진행된 시조 및 삼행시에는 6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의 출품작중에서 박성열회원(칠곡, 삼성안과의원)이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자전거 15대와 선풍기등 푸짐한 상품으로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참석자 전원의 희비를 가리기도 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폐막하였다.

<경기종목별 성적>

경 기 종 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비고
제24회 바둑대회	50	30	40	20	
제23회 탁구대회	30	40	20	50	
제18회 윗놀이	선수조	50	30	20	40
	임원조	30	20	50	40
제3회 족구대회	30	40	50	20	
제3회 2인3각릴레이	30	20	40	50	
제3회 골프피칭대회	50	30	20	40	
제3회 줄다리기대회	50	30	20	40	
총 합 점 수	320	240	260	300	

- 종합우승 : 동부지구, 준우승 : 북부지구
3위 : 남부지구, 4위 : 서부지구
- 참 가 상 : 서부지구



<행운상 당첨자 명단(자전거)>

- 부부 : 이우진(포항), 안익효(안동), 이승재(경산), 지성구(구미), 이종수(포항)
- 회원 : 백현우(영주), 백승인(경주), 박정권(칠곡), 임판주(칠곡), 박정돈(구미), 윤태권(안동), 송재섭(경주), 장준혁(포항), 김광숙(안동), 박무영(안동)

<행운상 당첨자 명단(선풍기)>

- 한형원(포항), 장상렬(포항), 황병욱(경주), 서보균(포항), 이승재(경산), 박경욱(김천), 장태영(구미), 황종선(김천), 김인정(영천), 송준화(포항)

<행운상 당첨자 명단(무선주전자)>

- 권영철(포항), 임종선(포항), 허석(김천)

<행운상 당첨자 명단(전기다리미)>

- 최진민(구미), 장기호(구미)

제3회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김천 황악산)

건강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등반대회

2004년 5월 16일(일) 김천 황악산에서 제3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에 본회 회원 및 가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4회 대한의사산악회 총회 및 등반대회와 겸해서 개최되었다.

이날 등반대회는 도내에서는 포항·경주·안동지역에서, 지방에서는 서울·대구·경남·전북등지에서도 버스를 대절하여 오전 10시를 전후해 직지사 공영주차장에서 지역회원들과 합류한 가운데 황악산 정상 등반대회를 열었으며, 4시간여의 황악산 등반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속속들이 하산하는 회원들과 함께 미리 마련된 인근

식당에서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점심식사와 더불어 뒤풀이 행사를 갖고 회원간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전국에서 32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한의사산악회(회장 최호섭)의 주최로 개최된 제4회 전국지사산악회 총회에서 최호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소에 인술을 베풀고 있는 우리들이 산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현상이라 여겨지며, 나 자신의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산악 동호인들끼리 합심 단결하여 대한의사협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본회 변영우 회장은 환영사에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북 김천의 황악산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회원 모두가 산행을 통하여 5월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만끽하며 잠시나마 정담을 나누고 서로 친목의 장을 열어 나가는것이 의료계의 단합된 힘이라며 이번을 등반대회를 계기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자고 하였다.

이어 각 지역 의사산악회장 소개, 참가한 내빈 소개등이 있은후 차기 신임 회장에 백경열 회원(서울, 백정형외과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본회 변영우 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이원보 경남도의사회장 등을 비롯한 산악회 임원들이 대거 참가해 의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였다.

또한, 경북의사회에서도 제3회 등반대회를 개최 후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뒷풀이 겸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본회에서는 이날 등반대회에 쓰여진 모든 경비 및 관광버스비를 지원하고,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시의 사회서는 등반양말, 대한의사산악회에서는 티셔츠와 손전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 시군별 참가회원 인원 : 115명

- 포항시 35명, 경주시 32명, 안동시 30명, 김천시 7명, 구미시 6명, 경산시 1명, 영천시 1명, 사무국 3명

■ 시군의사회 협찬내역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시의사회 : 등산양말 150개(1,500,000원)
- 포항시의사회 : 문어
- 경주시의사회 : 양주 2병 제공
- 김천시의사회 : 단합행사시 술·음료 제공

제1회 대한의사협회 등반대회 충북 옥천 장용산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의협신문과 대한의사산악회에서는 전국의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제1회 전국지사 등반대회를 2004년 10월 31일(일) 충북 옥천군 장용산에서 전국 25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등반대회에 본회에서는 회원 및 가족, 사무직원등 27명이 참가하였으며, 경주시의사회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산행과 가을 야유회를 겸한 친선행사를 개최하였다.



경북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성료

경북의학계 전야제 행사 개최

제26회 경북의학계 전야제 행사로 진행된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2004년 5월 29일(토) 경주코오롱호텔 화랑홀에서 개최되었다.

각 지구별로 사전 신청받은 바이올린, 피아노, 색스폰, 거문고등의 연주와 즉석 장기자랑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어 많은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거문고 연주를 한 황종선(허석, 김천방사선과의원)가족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기자랑 시상내역〉

- 대 상 : 황종선(김천, 김천방사선과의원 허석 가족) - 가야금 연주
- 우수상 : 신현국(경주, 신정형외과의원) - 바이올린 연주
- 장려상 : 안동시의사회 혼성합창단
- 인기상 : 문신길(포항, 포항세명기독병원) - 클라리넷 연주
이경수(포항, 이안과의원) - 노래
최예환(봉화, 봉화제일의원) - 노래

제3회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성료

우승에 최진교 · 이태우 선수조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열린 제3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2004년 9월 12일(일) 오후 2시 대구 조일실내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테니스대회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선수가 참석하여 훌륭한 기량을 과시하며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최진교 · 이태우 선수조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테니스대회로 하여금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가 활발해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테니스동호회를 활성화하여 많은 선수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테니스대회가 성대히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 경기성적(복식조)

- 우 승 : 최진교(포항, 최진교이비인후과의원), 이태우(포항성모병원 진단방사선과)
- 준우승 : 문종세(안동, 세강의원), 권영대(안동성소병원 신경외과)

제1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성료

10월 19일 경북 경주서 의료현안 협의

전라북도 의사회와 본회는 2004년 10월 9일(토) 오후 7시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제1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가 내빈과 양도의사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 친선행사에서는 내빈 및 회원소개가 있은후 본회 변영우회장은 환영사에서 가을을 한층 만끽할 수 있는 경주에서 영호남의 친선행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호남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였다.

전라북도의사회 김학경 회장은 친선행사에 초대해 준 변영우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친선행사가 단합을 보여 모든일에 앞장서는 의사회가 되자고 하였으며, 이어 김재정의협회장을 대신해 김세곤 상근부협회장과 신현우 시도 의사회장협의회장, 이원기 본회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2부 친선의 밤 행사에서는 만찬과 더불어 지난날의 행사를 뒤돌아보고 회상할 수 있는 사진 슬라이드를 준비하여 감상하였으며, 양도의사회 회원들은 친선의 밤 행사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양도의사회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오명과 누명을 쓴 채 억압과 고통으로 점철된 나날을 뒤로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작금의 의료계 상황을 침묵 직전의 난파선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 넘어 분노의 폭발이 임박한 절대적 위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같은 위기로 몰아넣은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개탄하고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의 공정한 재평가와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즉각 시행 ▲의료수가 현실화 및 수가계약제 즉각 개선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의 약속을 즉각 이행 ▲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허용에 대한 협의 입장 지지 ▲약대 6년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 ▲전 회원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투쟁방안 제시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친선골프대회와 남산산행으로 우의다져

이튿날인 10월 10일(일)에는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 남산의 산행에 전문가이드의 안내와 설명으로 문화유적지를 관람하였으며, 보문골프장에서는 임원조와 선수조로 나눠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으며 산행 및 골프대회를 마친후 경주시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자켰으며, 양도의사회에서 준비한 선물교환을 한후 내년 전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는 1987년 경북·전북의사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상호 격년 초청행사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전북의사회 초청으로 남원에서 개최된바 있다.



2004 대구·경북의사회 무료개안수술

대구·경북 저소득층 환자 84명에게 밝은빛 안거

대구·경북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개안수술 사업이 올해로 4번째를 맞아 백내장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랑의 실천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번 2004 TBC 무료개안수술은 의료인의 신뢰회복과 위상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의사회와 TBC 대구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경북안과개원의협의회 주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대구·경북내과개원의협의회, 귀뚜라미 보일러가 후원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무료개안수술은 2001년 90명, 2002년 50명, 2003년 60명에게 밝은 세상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올해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저소득층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무료개안수술에 참가하는 안과 및 내과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분까지 전액 무료로 봉사하였으며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도민 271명(경북 129명, 대구142명)이 참가 신청 접수를 하여 안과 및 내과적 술전검사를 거쳐 2004년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각 의료기관별로 무료개안수술을 시행하여 총 84명(본회 31명, 대구시의사회 53명)에게 밝은 빛을 안겨주었다.

TBC 대구방송은 무료개안수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난 2004년 11월 12일(금) 오전 7시 45분과 12시 5분에 각각 1, 2부로 나뉘어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집 4원 생방송을 진행하여 수술장면 등을 생생히 방영했으며, 안과 의료기관 4곳을 선정하여 환자들의 개안수술 장면과 표정들을 전하고, 고령화 사회에 뒤따르는 노인 문제들의 대책에 대해, 또한 밝은 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내용으로 건강한 눈 관리 방안등에 대한 VCR 상영등으로 진행되었고,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이우연 대구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와 교수, 방성수 경북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순옥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사무관이 2부 패널로 참석하였다.



〈무료개안수술 참여 의료기관〉

구분	성명	의료기관	수술인원
포항	이우석, 정필재	영동안과의원	3
	이재백	이재백안과의원	3
	이대성	오천제일안과의원	3
	성경립	성경립안과의원	3
경주	김형일	경주성모안과의원	3
	이종관	연합성모안과의원	3
안동	서의태, 정재엽	안동제일안과의원	4
	진익도	진안과의원	•
구미	송효철	밝은안과의원	1
	박철호	현대안과의원	1
	박남규, 조영진	박안과의원	2
영천	김현수	김현수안과의원	•
	우경호	우경호안과의원	1
경산	김계순	밝은안과의원	1
	김성열, 박성열	삼성안과의원	3
계			31명

〈무료개안수술 결과〉

구분	참여안과의원	접수인원	수술인원
경상북도의사회	15	129	31
대구광역시의사회	27	142	53
계	42	271	84

구분	성명	의료기관	비고
포항	이효식	이효식내과의원	
	최창필	최창필내과의원	
	송영성	송영성내과의원	
	임종식	오천제일내과의원	
	박태정	박태정내과의원	
	조현숙	계림내과의원	
안동	최영환	최영환내과의원	
	박무영	박무영내과의원	
구미	한재호	한재호내과의원	
	이용원	이용원내과의원	
	황중현	황중현내과의원	
영천	이지옥	이지옥내과의원	
	김병훈	김병훈내과의원	
경산	이석균	청십자의원	
	이원석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행 사 이 모 저 모

의협 제56차 정기총회 개최



의협은 2004년 4월 24일(토) 서울힐튼호텔에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비 인상없이 전년 대비 1.3% 증액된 98억8300만원 규모의 새 예산안과 2004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협회 목적사업 수행중 의사면허 취소시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 유지' 등 일부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고, '의료인 정신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약대 6년제 계획 철회' 등 8개 사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개회식에서 김재정 회장은 '최근 발생한 의협 경리사와 관련해 회장으로써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여대야소'의 17대 국회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노당이 진출함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의사들의 운명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수는 없는 만큼 시대적 정체성 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국민보건복지 증진이 궁극적 목표인 의료계와 정부는 둘이 아닌 하나일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의료의 세계화에 대비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투명한 정책 운영 및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임원중 약간 명을 회원이 아닌자로 둘수 있다'와 '회장과 부회장의 명칭을 협회장과 부협회장으로 수정', '협회 활동중 의사면허 취소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 유지', '자산운용 방법으로 국제 허용' 등의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결의문 채택 순서에서는 ▲민간의료발전 위한 중환대척 수립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 마련 ▲국민 조제선택분업제도로 전환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약대 6년제 철회 ▲동네의원 말살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 철회 ▲총액계약제 및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계획 철회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한 보험공단의 해체, 분리 운영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등 8개항을 채택하였다.

제8회 포항시의사의 날 행사서 회원친목 다져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린 포항시 의사의날 행사가 올해 8회째를 맞아 지난 2004년 4월 18일(일) 오전 10시 포항 죽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의사의날 행사에는 본회 변영우 회장을 비롯한 이원기의장, 신은식, 이병채, 원로회원, 오세진 포항시의사회장등 회원 및 가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경기인 축구, 족구, 피구, 줄다리기, 윗놀이와 개인전인 바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번외 경기로 5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4개팀(A·B·C·D)으로 구성된 이번 의사의날 행사에는 모든 선수들과 가족들의 열띤 응원과 참여로 D팀(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세명재활의학과병원, 여성아이병원, 포항여성병원, 4·5·6·7반)이 우승하였으며, 포항시의사의날 행사는 회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알찬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의사회 회원명부 발간

포항시의사회서는 지난 2004년 8월 회원명부를 새롭게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고 회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진료실 한편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2004년 회원명부는 기존명부와 차별화하여 인적사항 외에 새로이 회원 개인별 인물 사진과 e-mail 주소등이 추가되었으며, 그 동안 미흡했던 초창기 포항시의사회 연혁에 대해서도 상세

히 정리되어 기재하고, 포항시의사회 총회의 차수와 역대 회장의 대수도 바로잡는등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다.

취약지 의료실태파악차 울릉 방문

본회 변영우회장은 울릉지역의 보건의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7일부터 1박 2일간 울릉군보건의료원과 관계 기관을 방문하였다.

5월 18일(화) 울릉보건의료원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취약지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중점논의 하였으며, 이번 취약지 현지조사에는 경상북도 박승호 보건환경산림국장과 김태웅 보건위생과장, 국민일보 기자 및 담당 공무원이 동참하였다.

경상북도 금연·술잔 안돌리기 캠페인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암, 뇌졸중등 만성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7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술잔 안돌리기 캠페인을 2004년 5월 31일(월) 오후 2시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열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금연·술잔 안돌리기 선언식, 건전음주문화정착 퍼포먼스, 금연홍보비디오 상영등의 다채로운 행사와 금연·술잔 안돌리기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전도민에게 과급되도록 하기 위한 거리서명운동을 포항시내 중심가 등 10개소에 설치하여 진행하였으며, 박승호 경상북도 보건환경산림국장, 황성길 포항부시장, 본회 변영우회장, 김원표 경북도치과의사회장, 변승열 포항의료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및 유관단체장, 시민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7차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개최

2004년 6월 5일(토) 16:00 의협 동아홀에서 제17차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고가약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평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분과별개원의협의회를 각과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평의원회는 최근 대개협의 주도로 구성된 '고가약위원회'의 '고가약처방 자제운동'에 대한 평의원들의 우려적인 의견제기와 '고가약위원회'의 '고가약처방 자제운동'이 자칫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강행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2004년 대개협의 사업계획으로는 ▲조제위임제도 문제점 연구사업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조사연구 ▲1차 의료기관 운영활성화 대책마련 ▲의료법 등 보건 의료관계법령 법제도 개선 ▲한의사들의 CT사용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확정하였다.

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에는 본회에서는 전민회원(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이 참석하였다.

의협 회장단 김근태 복지부장관 면담



의협 김재정 협회장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2004년 7월 26일(월) 오후 3시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첫 면담을 가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6년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박한성·노영무·변영우 부협회장과 김세곤 상근부협회장·박효길 보험담당 부협회장·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이 배석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재정 협회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실태를 개선해 줄 것과 약대 6년제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선 배경,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필요성, 조제위임제도의 문제점 등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건강보험과 조제위임제도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결단을 주문하였다.

의협 회장단도 불합리한 규제와 고시 문제와 열악한 개원가의 실태에 대해 설명하며 복지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08년도부터 약대 6년제 시행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며, 교육부쪽의 입장이 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약대 6년제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항의 방문



약대 6년제는 밀실야합으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김재정 의협회장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004년 6월 30일(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방문 면담하고 약대 6년제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하였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약대 6년제는 교육부에서도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고, 복지부의 정책 추진은 밀실야합과 비민주적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전면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교육제도는 국가 백년대계이며, 향후 인적자원의 활용성, 교육비,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서 “이익집단이 주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교육적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9 시국선언지 지 켈기대회에 변영우 회장 참석

낙동강을 교두보로 새로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자라는 구호로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를 위한 9.9 시국선언 지지 대구시민 켈기대회가 2004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 대구 국제보상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켈기대회에서는 시국을 걱정하는 대구의 유지들과 시도민 3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구호제창과 시국선언문 낭독, 지지 발언등으로 켈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공동대회장에는 본회 변영우회장과 대구시의사회 정부달 회장을

을 비롯한 장주환 경북교육공동체 상임대표등 21명등이 참여하였다.



중앙회 및 시도 사무직원 수련회 개최

의협에서는 중앙회 및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직원간 이해증진 및 팀워크를 고취시키고 의료계 현안 및 의협의 정책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무직원 수련회가 2004년 11월 5일(금)~6일(토)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사무직원 2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 거창 덕유산 휴양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화합과 전진이라는 슬로건으로 평화의 울림, 도약하는 직원, 직원 화합의 마당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본회 및 시군의사회 직원등 8명이 참석하였다.

■ 사무직원 수련회 참석자

- 박재영 사무국장, 권순길·김태희(경북), 김두중(포항), 이지형(경주), 박민희(구미), 김명숙(영천), 최보화(경산)



시도의사회장 요양급여 및 건보수가 등 건의

시도의사회장은 정부의 턱없는 저수가와 현행의 비합리적 수가 결정 구조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번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악순환에 대하여 결코 좌시 할 수 없



다고 판단, 지난 2004년 11월 19일(금) 오후 7시 대구대 변초밥에서 시도의회사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으로부터 건정심 위에 넘어간 건보수가 협의경과 보고를 듣고 어려운 의료 현실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과 수가 협상 방안, 향후 대정부 투쟁방안 등에 관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의회사회장단은 이 땅의 의료현실을 걱정하고 전체회원의 어려움을 앞장서 개척하며 의권확립의 염원을 담아 11월 25일부터 단계별 농성, 시위, 단식에 돌입 할 것과 전 회원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매주 반상회 개최 요청, 의협은 10%대의 병의원 도산과 폐업, 또한 연간 다수의 회원이 경제 사정으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든 현안에 앞서 해결 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건정심을 통한 수가 결정이 또다시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시도의회사회장단 수가 현실화 농성 돌입



지난 2004년 11월 25일(목)부터 본회 변영우 회장등 16개 시도의회사회장단들이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며 2박 3

일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의협 동아홀에 모인 시도의회사회장들은 곧바로 김재정 협회장으로부터 수가협상 현황과 현재의 상황 등 경과 설명을 듣고 6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회의는 파업 불사등 강경 발언이 터져 나오는등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회장단은 오늘부터 내내 수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7일까지 동아홀에 머물며 정부에 수가현실화와 의협의 분발을 촉구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회장들은 사석홀로 옮겨 농성에 들어가며 조만간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세부 투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32회 보건의날 행사 개최



“안전한 도로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32회 보건의날 기념식이 2004년 4월 7일(수) 오전 11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이의근 경북지사와 보건의료단체장, 주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에서 이석균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의약단체에서는 기념품으로 우산을 증정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난 4·15 총선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27개 선거구중 문경·예천을 제외한 26개 선거구를 석권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전체 243개 지역구중 129개 선거구에서 승리해 비례대표 23석을 합쳐 과반수가 넘는 152석을 획득, 원내 제1당을 차지하였으며, 한나라당은 지역구 100석과 비례대표 21석을 합쳐 121석을 획득하였다.

또한, 의사출신으로는 지역구 2명(안홍준, 정의화 회

원), 비례대표 1명(안명옥 회원) 등 총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 여타 보건의료 직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로 국회에 진출하였으며, 의료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김홍신·김명섭·김성순 후보가 낙선하였으며,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원성을 받았던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낙선하였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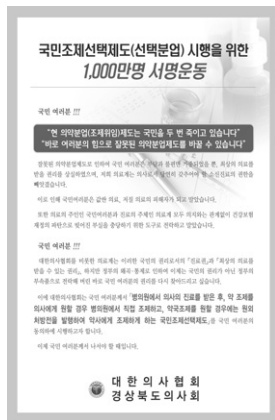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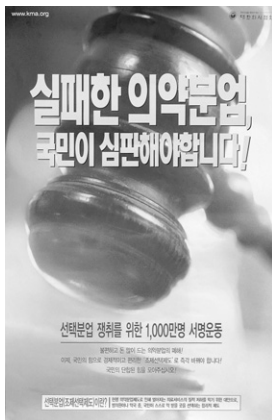
이름	정당	지역구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울
정의화	한나라당	부산 중동
안명옥	한나라당	비례대표

〈경북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이름	당선자	주요 경력
포항	북구 이병석	제16대 국회의원
	남구·울릉 이상득	제16대 국회의원
경주	정종복	경주변호사회장
김천	임인배	제16대 국회의원
안동	권오을	제16대 국회의원
구미	갑 김성조	제16대 국회의원
	을 김태환	금호아시아나그룹고문
영주	장운석	변호사
영천	이덕모	변호사
상주	이상배	제16대 국회의원
문경·예천	신국환	한국유통정보센터
경산·청도	최경환	경제도약연구소 이사장
군위·의성·청송	김재원	변호사
고령·성주·칠곡	이인기	제16대 국회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	김광원	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14석, 무소속 1석

국민조례선택제도 쟁취 1천만명 서명운동 실시



의협에서는 2004년 2월 22일 개최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환자에 대한 사랑과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선택권 보장, 사회주의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사회복지 5개년계획의 철회, 자율징계권 부여, 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 6개항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특히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 계획과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가운데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3월말까지 발표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기간에 실행한 “조제위임제도 철폐운동”과 “사회주의 건강보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각 의료기관에서 “국민조례선택제도(선택분업) 쟁취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기로 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서명운동 지침과, 안내문(회원용 및 국민용), 서명용지를 일괄제작하여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급에 발송하였고, 현재까지 취합된 서명지 10,538명분을 지난 2004년 11월 15일 의협에 제출하였다.

경북의사산악회 구성 및 임원 명단

의협에서는 대한의사산악회를 모태로 지역의사회 산악회가 결성되어 의사회원의 친목도모와 의사단체의 단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악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경상북도의사산악회 결성 및 임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음.

직위	성명	근무처	지역	비고
회장	문덕균	한빛연합소아과의원	경주	
부회장	김옥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구미	
	장태식	장태식비뇨기과의원	포항	
총무이사	백승인	백승인소아과의원	경주	
총무간사	전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포항	
기획이사	이봉구	이피부과의원	경주	
홍보이사	김장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경주	
섭외이사	예재명	신세계산부인과의원	포항	
재무이사	천종욱	천내과의원	경주	
여이사	김남주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의원	포항	
등반대장	이재백	이재백안과의원	포항	
감사	하상호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의원	포항	

전국 의사 반모임 행사 개최

의협에서는 전국 회원의 단결과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 및 회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에 각시군의사회 반별로 전국 의사 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구분	일시	주제
제9차	2004년 4월 9일(금)	총선 참여방안
제10차	2004년 7월 16일(금)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대책
제11차	2004년 9월 17일(금)	저질한약재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제26회 경북의학제 준비위원회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경북의학제 행사에 앞서 2004년 4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경주 원풍식당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종목 선정 및 경기규칙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회의결과

- 1) 준비위원 : 정만진, 이미숙, 백승인, 이봉구, 천중욱, 김장희, 조성범
- 2) 경북의학제 경기종목 선정
 - ① 단체경기 : 바둑, 탁구, 윗놀이(임원, 선수), 족구, 2인3각, 골프피칭, 줄다리기
 - ② 친선경기 : 터치볼, 제기차기(부부), 홀라후프, 어린이경기(배점없음)
 - ③ 시조 및 3행시(위원장 : 이석균부회장)
 - 심사위원 : 이석균, 전경홍, 이원기, 안길룡, 권세홍
- 3) 전야제 및 장기자랑 : 5. 29(토) 석식행사와 병행 실시하여 권역별 2명씩 참가
- 4) 행사장 준비사항 : 천막설치 및 권역별 선수모자 제공(색상구분)
- 5) 행운권 추첨 상품 : 자전거(15대) 상품을 줄이고 기타 다양한 상품 확대
 - 선풍기 5대, 속도측정 야구공, 등산용품, 가전제품, 특이한 기능성제품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돕기 성금모금

의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2004. 4. 24)에서는 지난 4월 22일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인해 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를 돕기 위해 의협의 주도하에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등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대북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본회에서는 회원 1인당 10,000원(회원 공통)을 모금키로 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시군의회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모금된 성금 1천만원을 의협에 기탁하고 잔여금액을 성금회계에 적립하였다.

2003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본회에서는 2003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하고, 지난 2004년 5월 29~30일(토·일) 경주코오롱호텔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3 미이수자 보충교육에 불참으로 확인된 28명에 대해서는 서울·인천지역 보충교육 일정을 재안내하고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토록 안내하였으며, 미이수 면제 사유가 분명함에도 누락되어 명단에 포함된 경우 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보충교육 이수 결과를 지난 6월 11일 의협에 보고하였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의료법 제58조1항, 제71조3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의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위반시 7일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약대 6년제 저지와 의료민주화 쟁취를 슬로건으로 약대 6년제 반대를 위한 의료계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실천적인 투쟁방안과 향후 투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의사 대표자결의대회를 지난 2004년 7월 11일(일) 오후 2시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의료계 현안문제에 대한 집행부와 회원간의 인식을 공유하며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투쟁역량 강화 및 홍보, 의료계 조직력 및 투쟁력 점검(리더십 함양)등을 목표로 하고 약대 6년제 현황설명

및 질의응답과 구호제창, 연대사,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으로 결의대회를 진행되었다.

■ 참석자 명단

- 본회임원 : 변영우, 이원기, 이석균, 백승인, 이봉구, 이경수, 전 민, 김광만
- 시군임원 : 오세진, 김장희, 박경옥, 장의현, 이지옥, 배창환, 이철우, 이용우, 이재동, 방종경, 이봉우
- 사무국장 : 박재영

‘약대 6년제 저지’ 범의료계 비대위 출범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 의협회장)’의 제 1차 회의가 지난 2004년 7월 6일(화)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열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나섰으며, 비대위에 선임된 17명 위원들은 의학교육에 조예가 깊은 의학과와 병원계, 개원가, 일선 시도회장 등 의료계를 대변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75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에서 ‘약대 6년제 추진사업’이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6월 21일 한의협과 약사회간의 합의문 발표 내용에 이르기까지 약대 6년제의 추진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약사회측의 주장과 교육부에 제출한 복지부의 의견 등의 배경이 집중 거론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중단기적 대책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중 복지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정식 요청하되,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이나 청원 입법을 통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7월과 8월중에 각 시도의사회별 설명회를 열어 회원들의 투쟁력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본회 성명서 채택

본회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2일(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약대 6년제 밀실야합 결정을 즉각 파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정부는 약대 6년제 밀실야합 결정을 즉각 파기할 것 △현재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조치할 것 △정부는 모든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의료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 등을 촉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협을 중심으로 일차

단결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경주시의사회서도 지난 6월 23일(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경주시의사회 일동은 새삼 대한의사협회에 커다란 회의를 느끼며, “의료의 중심인 의사를 무시한 채 의료정책을 펴고 있는 복지부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국회는 지난 7월 5일(월)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0석, 야당인 한나라당·민주노동당·새천년민주당에서 10석으로 구성하였다.

■ 위원장 : 이석현(열린우리당, 3선/안양시 동안구 갑)

■ 위 원

- 열린우리당 : 유시민(재선/고양 덕양갑), 김선미(초선/안성), 장향숙(초선/비례), 강기정(초선/광주 북갑), 김춘진(초선/고창·부안), 문병호(초선/인천 부평갑), 유필우(초선/인천 남구갑), 이기우(초선/수원 권선)
- 한나라당 : 김덕룡(5선/서초을), 이강두(4선/경남 산청), 정형근(3선/부산 북구), 박창달(3선/대구 동구을), 전재희(재선/경기 광명을), 고경화(초선/비례), 안명옥(초선/비례), 정화원(초선/비례)
- 민주노동당 : 현애자(초선 비례)
- 새천년민주당 : 김종인(4선/비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위한 단체교육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04년 6월 18일까지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신고 전에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환자진료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육실시기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과 협의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하고자 2004년 6월 12일(토)까지 교육신청 접수받아 7월 3일(토) 오후 1시부터 계명대 5층 대강당에서 단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평원 대구지원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비상근심사위원을 추천의뢰해 오며 따라 본회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2일

각과별로 비상근심사위원을 위촉 하였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11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분과명	종 별	성 명	지 역	비 고
1분과	방사선과	허 석	김 천	유 임
2분과	정 신 과	김안나	포 향	신 임
3분과	외 과	정능수	의 성	"
4분과	신경외과	하용수	구 미	"
5분과	산부인과	이미숙	안 동	"
6분과	안 과	이재백	포 향	"
7분과	비뇨기과	박종각	경 산	"

심평원 대구지원 심사위원 간담회 개최



현직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양기관 청구경향관련 심사현황 및 문제점 논의, 향후 전문심사제 실시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심평원 대구지원 심사위원 간담회가 지난 2004년 10월 14일(목) 호텔 제이스에서 심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협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신규로 위촉된 심평원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변영우 회장, 이석균 부회장, 이경수 보험이사를 비롯한 이원락 심평원 대구지원 심사위원장,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등 대구·경북 비상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심평원 대구지원과 간담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과 대구·경북의사회에서는 2004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1월 29일(월) 오후 6시 30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 주관으로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주요사항 안내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경과 설명이 있는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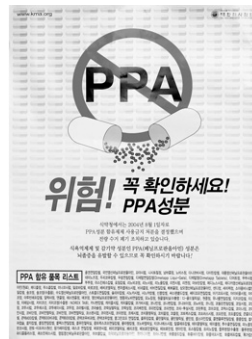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공형식) 주관으로 지난 2004년 4월 27일(화) 낮 12시 경주 청하 일식당에서 경북도내 의약단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사항 협의 및 원만한 협조체제에 의한 상호 보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변영우 회장, 조성범 보험이사, 박재영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2003년도 의협 회원명부 배부

의협에서 전국 회원이 수록된 2003년도 회원명부를 2권(I·II)으로 제작하여 4,300권을 송부해움에 따라 본회에서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급을 통해 지난 2004년 7월 16일(금) 개인화물과 택배를 통해 회원들에게 일제히 배부하였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안전성 관련 조치사항 및 급여금지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식욕억제제 및 감기약 성분인 PPA가 함유된 품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다시 한번 의약품 분류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1일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있는 ‘콘택 600’과 ‘코리투살’ 등 PPA가 함유된 유명제약회사 감기약 1백67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해 폐기토록 하였다.

식약청은 이들 감기약에 함유된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에 대한 연구결과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PPA 사태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위험, 꼭 확인

하세요! PPA성분' 이란 제목에 PPA 성분이 함유된 약품의 리스트를 실은 포스터를 제작, 전국 병의원 의료기관에 배포해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렸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일반의약품에서 뇌졸중 위험문제가 불거진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관리체계에 대한 기초부터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약물안전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부작용 사례보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안 관련 시군의회사회 방문 설명회 개최



본회에서는 지난 2004년 8월 27일(금) 고령군의회와 성주군의회를 시작으로 각시군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의료현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약대 6년제와 단독간호사법 제정, 의협 회계부정의혹 등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2004년도 정기신고에 모든 회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정 협회장 초청 의료현안 설명회 개최



지난 2004년 10월 19일(화) 오후 8시 대구시의사회관 3층 강당에서 대구·경북의사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김재정협회장 초청 의료현안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계 최대 현안인 수가협상과 관련해 '현행 의료수가 인상율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며 원가 보전을 75%에 불과해 개원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의 기대에 터무니없이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모종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세곤 상근부회장의 의료현안 설명, 박효길 보험부회장의 건강보험 주요정책 현안 설명 등이 있었으며, 회원들과의 대화에서는 수가 인상문제, 과잉실사, 본질을 왜곡하는 학회개최 남발문제, 예방접종문제, 의협회장 선거방식 문제등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시군의회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 개최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한 일선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와 의료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1월 21일(일) 오후 7시 감포바다횃집에서 시군의회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백승인 기획이사의 주요회무보고와 아울러 2005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결정이 최종 결정될데 대한 향후 의협의 입장과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변영우 회장이 상세히 설명하고, 특별회비 및 회원정기신고 저조에 대해 각시군의회사회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4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의료법 제32조의2의 규정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자격기준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 중에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선임된 후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그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신규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본회에서는 동 내용을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급에 안내하였다.

의학분업 철폐 선포식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의철모)’는 지난 2004년 10월 22일(수) 오후 6시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활동에 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철모 회원은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의약분업 철폐 구호를 외치며 “의약분업은 환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비용부담을 늘리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7일(일) 오후 2시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집회를 갖고,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한풀이 사물놀이와 통기타 공연 등 문화행사와 서울, 부산, 산청 등 각 지역의 의약분업 성토 및 철폐 선포식이 열렸으며, 의철모에서는 ‘의약분업 철폐 1000만명 서명 운동’과 보건복지부와 국회, 청와대를 항의방문 하였다.

제48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본회에서는 제48회 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지난 2004년 10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응시원서를 교부하였으며, 2005년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은 1

월 13일 치뤄지며, 2차 시험은 각 학회별로 치뤄지고 있고 응시원서를 교부하였다.

영남권 및 제주도 시국 합동토론회 개최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및 제주도의사회는 지난 2004년 11월 6일(토) 오후 7시 경주 콩코드호텔 루비홀에서 회장단 및 집행부 임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몰락하는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시국 합동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합동토론회에서는 정부에 의료계 현실을 감안한 수가계약을 요구하고 대한의협이 회원들의 열망에 반하는 수가계약에 임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의협 수가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분열하고 있는 의사단체를 집결시키고 회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에 영남권과 제주권이 선봉에 서기를 결의하였다.

사랑나눔 자선음악회에 사랑의 성금 기탁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17일(금) 오후 3

시 영천시민회관에서 제7회 사랑나눔 자선음악회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자선음악회에서는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와 이동목 육자랑 전달식, 초청가수의 공연, 합창 등으로 열렸으며, 본회에서는 이날 변영우 회장과 박재영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랑의 성금으로 3백만원을 기탁하였다.

포항시의사회 신년인사회 개최



지난 1월 4일(화) 오후 7시 귀빈예식장 5층에서 열린 포항시의사회 2005년도 신년인사회에는 오세진 포항시의사회장,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과 이원기 경북도의사회대의원회의장, 조성래, 이병채 원로회원 등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민의례가 있는 다음 오세진 포항시의사회장은 신년사에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의료환경이 주위 여건과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2005년도 희망을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심화되어 가는 장기 불황의 여파와 저수가, 수많은 규제와 악법 등 무엇보다 우리들의 가슴을 옥죄는 일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하였으며,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만이 살길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변영우 회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을 기대했으나 지난 한해동안 끊임없는 갈등과 국론 분열 속에 시달려야 했고, 의료계 또한 심각한 경영난에 자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새로 맞이하는 을유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향연주자인 이승목, 문경호씨와 포항시의사회 변일수, 문신길회원의 클라리넷 연주와 조성래, 이병채, 이원기회원의 건배제에 이어 덕담을 나누고 2004년 신입 개원 및 근무회원의 소개와 함께 신년 안부 인사를 묻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05 의료계 신년교례회 참석



지난 1월 5일(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5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김재정 의협회장, 본회 변영우 회장, 안명옥 국회의원, 유태전 병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지난해 12월 수가와 보험료에 의료계가 동의해준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지난 5년간 없었는데 큰 결실을 맺었다고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한다”고 치하했으며, 김재정 회장은 “김근태 장관이 큰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자존심 세워주는 장관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 유태전 회장은 의료산업을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IT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의료기술 개발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하였다.

대구시의사회 신년교례회 참석



지난 1월 3일(월) 오후 1시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무달 대구의사회장, 백용현 대구시의사회대의원 의장, 본회 변영우 회장, 의대 학장 및 병원장 등 대구시의

사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유년 신년교례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대구시의사회 박정태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 정무달 회장과 백용현 의장, 본회 변영우회장의 신년사, 신년 상건례,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단합된 회원의 힘으로 2005년을 위기에서 탈출하는 계기의 한해로 만들고 힘찬 을유년 새해 출발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신년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회 변영우 회장과 정무달 회장 등은 대구·경북 의사회 사무직원들과 함께 지난 한해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5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신년인사회와 시무식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적십자병원 효석농촌보건의료봉사상

한국농촌의학회(회장 최진수 교수)는 상주적십자병원 김원기 원장과 전남 무안군 도대보건의료소에 근무하는 이운아 보건진료원을 '효석농촌보건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최첨단 울릉군보건의료원 준공



울릉군보건의료원(원장 정만진) 준공식이 지난 11월 17일(수) 김용대 경상북도행정부지사, 이상득 국회의원, 오창근 울릉군수, 황중구 군의회의장 및 각급기관단체장, 경북 시·군보건(의료원장)소장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원 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이날 정만진 의료원장은 “울릉도에 최신식 병원이 준공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의료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총사업비 79억6천만원을 투입 병실20실, 최신응급실, 간호사숙소, 유족대기실, 분향실 각

3개, 종합병원 수준의 휴게실(로비)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평3천239㎡(1천40여평)규모다.

의료원 지하1층에는 중앙검사실, 현대식 장례식장, 약품창고, 전기 및 기계실, 산소공급실, 세탁실이, 1층에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한방,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약제실, 응급실, 방사선과, CT실, 원무과가 자리하고 있다.

또 2층에는 종합수술실,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입원실, 원장실, 환자 취사실, 간호사실, 결핵관리실, 임상병리실, 치과, 3층에는 간호사기숙사, 전산실, 대회의실, 건강증진실, 전산실, 휴게실, 보건사업과가 위치하고 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단일 건물로는 울릉도에서 최대의 예산이 투입됐고 울릉도에서는 최초로 엘리베이터 2기가 설치됐으며 입원실에는 모든 장치가 중앙집중식으로 설치되는 등 환자들은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천의료원 의료원실적평가서 호평

김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시청, 교육청 등 기관단체와도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또한 오지 마을 무료진료와 연간 1천명이 넘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공공보건사업 등을 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최신의료장비인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 요로결석과 담석 등을 치료하는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의료장비 현대화와 조경사업을 비롯해 깨끗한 침대, 장례식장 현대화 증축 등으로 병원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는 등의 노력으로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전국 33개 의료원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때 30위를 기록하던 김천의료원을 지난 2004년에는 16위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구미 차병원 확장기념행사 가져

포천중문의대 부속 구미차병원(의료원장 이현우)이 최근 505개 병상에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대형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화) 확장 기념행사에는 차경섭 이사장, 이현우 구미차병원장, 김관용 구미시장, 변영우 경북도지사

회장, 장의현구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유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구미차병원은 2002년 6월 병원 중·개축 및 보수공사를 착공, 지난 2월25일 준공한 뒤 의료진을 진료과목별로 복수로 배치하였으며 첨단 의료장비도 도입했다. 36병실(195병상), 대강당, 100대 주차규모의 대형 주차타워를 신설하고,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외래진료실 등 각종 시설을 4천586평에서 5천743평으로 확장했다.

22개 진료과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전문의 55명, 인턴 8명, 레지던트 12명이고 안과·정신과·여성의학과·치과를 제외하고는 전문의가 복수로 배치돼 있다.

포천중문의대는 2000년 5월 구미 중앙병원을 인수, 310병상 규모의 구미차병원으로 개설했다. 이후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최신 MRI 및 CT장비 등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진료 예약제도와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PACS(의료영상 전달시스템)와 OCS(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돼 '무처방전 시스템'을 실현,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의료봉사와 시민건강강좌, 환자와 방문객을 위한 문화행사를 통해 '쌍방향 의료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순천향대구미병원, MBC 사회봉사대상

MBC가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2004 MBC 사회봉사대상'에서 순천향대 구미병원 의료부문 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MBC 사회봉사대상의 심사는 추천받은 154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0명의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 실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11명의 수상자를 가리는 최종심사에서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의료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004년 11월 28일 상금 1천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순천향대구미병원 의료봉사단(단장 임한혁)은 지난 1979년부터 2004년 11월 현재까지 매월 빈곤 계층을 상대로 181차례, 1만 97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모자병원 협약

포항세명기독병원(원장 한동선)과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지난 2004년 11월 25일 모자병원 협약을 맺고 향후 전공의 위탁교육에 협조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종철 병원장과 어 환 교육수련부장 등 삼성서울병원 측 방문단이 포항을 방문해 이뤄졌으며, 양 병원 원장단은 전공의 파견에 합의했다. 포항기독병원은 1950년에 설립돼 현재 14개 진료과, 214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지역 중추병원이다.

포항성모병원, 류마티스 재활센터 완공

포항성모병원(의무원장 장석범)이 지난 2004년 12월 2일 오후 2시 류마티스·재활센터를 신축 완공하고 축복식을 가졌다.

이날 완공된 류마티스·재활센터는 2003년 8월에 착공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75평 규모의 초현대식 첨단 건물로 건축됐으며 지하 1층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치료용 풀장을 갖춘 수중 물리치료실, 지상 1층에는 스포츠의학센터, 2층 비만클리닉, 3층 류마티스센터와 재활센터, 4층에는 PET-CT실과 치과가 위치하고 있다.

류마티스·재활센터 신축을 통해 포항지역에서도 최근 노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해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류마티스·재활센터 내에 위치할 스포츠의학센터와 비만클리닉의 연계를 통해 비만,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의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된 최첨단 암 진단 의료장비인 PET-CT가 류마티스·재활센터 건물에 설치되어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지역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된다.

병원관계자는 "류마티스·재활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에 보다 선진화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의료의 발전과 지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병원, 싱가포르에 코리아클리닉 오픈

안동병원은 2004년 10월 4일 오전 11시 병원 10층 강당에서 싱가포르 파크웨이그룹 임척펑(Lim Cheok Peng)사장과 글레이글스병원의 로(LOW) 박사, 푸아카이홍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장,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 김휘동 안동시장, 서울대 문옥륜교수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민, 임직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클리닉' 오픈식을 개최하였다.

안동병원은 10월 11일에는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오픈식 후 본격적인 진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안동병원 싱가포르 클리닉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을 소개하고 알려 국내 의료수준을 한단계 높일 뿐 아니라 현지교민과 관광객, 그리고 주재원 및 기업인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 품위손상 단죄를 위한 의협 신고센터 개설

의협은 협회에 별도의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들을 내부신고 받기로 하였으며, 신고대상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일단은 의사들의 내부고발만 접수받으며 향후 일반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고방법은 신고대상 회원의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갖춰 의협 의정보험실 법무팀으로 하면 된다.

의협은 신고가 접수되면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 조사와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체징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며, 위원장에는 노영무 의협 부회장이 선임되었다.

진료비청구 EDI 요금 조정안 안내

2004년도 EDI 요금 관련 제4차 간담회에서 의·약 5단체와 (주)KT 및 심평원 간에 합의 결정한 2005년도와 2006년 10월까지의 EDI 요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던 바, 확정 통보된 EDI 이용요금의 세부내용을 안내하였다.

<합의내용>

- 2005년도 : 2004년 기준 3% 요금인하
- 2006년 10월까지 : 2004년 기준 6% 요금인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7호 규정에 의거 감염성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은 2005년 1월 1일부터 합성수지류(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관 처리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용기에 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은 분리하여 각각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처리토록 하고 위반시 300~1,0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토록 하는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중 일부 사항 및 전용용기 검사 기준이 변경되었다.

손상성폐기물	액상폐기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바늘 • 수술용 칼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물류중 액상 • 병리계폐기물중 액상 • 혼합감염성중 액상 	손상성폐기물과 액상폐기물은 플라스틱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탈지면, 주사기 등은 기존의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하며, 주사침은 분리하여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하여야 됨

인도네시아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단 출국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지역 긴급의료 구호를 위한 2차 긴급의료지원단이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한항공편을 통해 출국하였다.

2차 긴급의료지원단은 본회 변영우 회장(의협 부협회장)을 단장으로 의사, 간호사, 복지부와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인력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반다아체 지역에 들어가 마따이 난민촌에서 진료와 방역활동 등을 벌이게 된다.

변영우 긴급의료지원단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1차 의료지원단의 수고로 2차 의료지원단은 안정적인 의료활동에 곧바로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이번 2차 의료지원단이 민·관합동체제로 구성된 만큼 국가를 대표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출국에 앞서 열린 발대식에서 김세균 의협 부협회장을 비롯해 김동원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강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기획실장, 정동선 병협 사무총장, 최숙자 간호협회 인천시회장, 박해영 약사회 부회장, 김명호 한양대의료원장, 손숙자 국립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 긴급의료지원단의 활발한 의료구조 활동과 무사귀환을 기원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사무직원명부 발간



대한의사협회 시도사무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각급의사회 직원들의 사진을 등재한 「전국사무직원명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이번 명부의 발간은 중앙회 사무처 직원과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직원 상호간의 회무수행 과정에서

이름은 알지만 얼굴을 잘 알지 못하여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지면의 사진으로나마 해소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의사회라는 조직에 투신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전국 각급의사회의 사무직원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포항의료원, 경영평가 우수기관상 수상

포항의료원이 공기업 중 경영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포항의료원은 200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노인전문병원 유치 등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포항의료원은 1998년 이래 흑자 경영을 실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국공기업평가에서 6년연속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아왔으며, 올해 현 의료원 부지에 95억원을 투입 초현대식 노인전문요양병원(195병상, 지상1층·지상6층 규모)과 전문장례식장(지하1층·지상6층 규모)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포항의료원은 지난 1999년과 2002년에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상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의료일원화대책위 한의사 CT사용 관련 논의

지난 2004년 12월 30일(목) 의협회관 7층에서는 범의료계 전 직역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한의사 CT사용 허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 대책 논의와 함께 의료일원화

달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재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전혀 예상 밖의 일로 우리 의료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항소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회의에는 본회 변영우 회장이 참석하였다.



한동대선린병원, 인도네시아 의료구조팀 파송

강진으로 해일피해가 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부근 아체주로 긴급 의료구조팀을 지난 2004년 12월 29일 파송하였다.

이번 파송은 한국기아대책과 협력하여 의료진 김현태과장(외과), 신원혁과장(호흡기내과), 김정자 간호사, 최주연 간호사 등 5명이 현지로 긴급 파송됐으며 이들은 인도네시아 반군들이 활동하던 지역으로 접근이 어려워 다른 지역에 비해 구호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곳인 반다아체에서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재민 3,000여명에게 예방접종 등 진료활동을 실시했다.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의사회지) 개최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서는 원로 선생님 몇 분의 과거와 현재를 빛바랜 사진을 들추어 보며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모아 「원로 선생님의 미니 자서전」이라는 특집을 기획하여 발간키로 하였다.

또한, 원로회원들을 초청하여 지난 2005년 2월 5일 (토) 18:00 대구파크호텔 동보성에서 의사회지 특집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지고 편집위원들과 함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

- 변영우 회장, 정만진 편집위원장, 김광만·김재왕·이경수·이덕영 편집위원

■ 원로회원 참석자

- 이덕진 : 85세 (1920年生) 평인의원 (영천)
- 조성래 : 79세 (1926年生) 연일의원 (포항)
- 박창희 : 76세 (1929年生) 성누가의원 (안동)
- 김홍용 : 76세 (1929年生) 대구의원 (경산)
- 박재호 : 73세 (1932年生) 대산외과의원 (구미)
- 유환무 : 69세 (1936年生) 유내과의원 (경주)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회무안내와 회원들의 문예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의사회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고 편집방향 등을 설정하였으며, 2005년 특집에는 ‘원로 의사선생님의 미니자서전’이라는 주제로 원로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편집위원회의>

- 제1차 편집위원회 : 2004. 10. 21(목) 대구
- 제2차 편집위원회 : 2005. 1. 24(월) 대구
- 제3차 편집위원회 : 2005. 2. 5(토) 대구
- 제4차 편집위원회 : 2005. 2. 22(화) 대구

본회 윤리위원회 개최



의협 정관 제57조제1항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에 의해 구성된 본회 윤리위원회를 지난 2005년 2월 19일(토) 오후 6시 경주 코오롱호텔 포석정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신은식 윤리위원장은 의사들은 전문가 단체로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회원들의 징계나 엄벌을 주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윤리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하며, 이에 의사윤리강령이나 지침등을 모든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자고 하였다.

이어 윤리위원회 활성화와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윤리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등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의사면허수여 및 의사윤리선서식 가져



지난 2005년 2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주최한 2005년도 의사면허수여 및 의사윤리선서식에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김재정 의협회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본회 변영우 회장등과 신규의사국가시험 합격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면허수여식 의사윤리선서식에는 2005년도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들에게 국가의 품위 있는 의사면허수여 및 선서식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장차 의료업에 나설 새내기 의사에게 국가와 사회의 기대를 전달하는 한편 새내기 의사에게 의사면허의 소중함과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인교육하였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의협차원의 의미 있는 회원교육을 제공하여 의료인으로서의 보람과 자긍심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쓰나미 긴급의료지원단 의협 결과보고회 참석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25일 동·서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4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보고회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반

다아체지역에 파견된 변영우 단장(본회 회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의료진의 활동 내용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의협은 이날 의료지원활동에 헌신적으로 적극 참여한 김해룡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연구소장과 의약품과 의료 기자재를 지원해 준 건일제약과 경동제약 등에 각각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변영우 단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땀흘려 일한 봉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음 의료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참고하자”고 당부하였다.

건강대구프로젝트 금연선포식 참석



대구시의사회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금연, 비만, 스트레스, 절주, 간염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대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3월 3일(목) 낮 12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건강대구 프로젝트 출범 및 금연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해 본회 변영우 회장,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문영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등 내외빈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에서는 금연을 상징하는 담배 절단식과 금연 의지를 다지는 금연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었으며, 풍물패 공연과 경과보고, 내빈소개 및 인사, 금연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지난 2005년 3월 5일(토) 오후 6시 호텔 JS 루비홀에서는 2004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도 회무보고와 (가)결산보고 및 2005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입 시군회장 소개와 2004년도 주요

사업보고 및 회무보고, 일반회계 (가)결산서, 자산 및 각종 적립금 결산서를 보고, 2005년도 사업계획서(안)과 일반회계 예산(안)에서는 개원회원 회비를 5만원 인상하여 250,000원으로 책정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기타토의에서는 회비 인상시 징수방법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 되었으며, 특별분회 설치를 위한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본회 김장희 법제이사에게 위임하여 시도의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총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였다.



2004년도 회무 감사 수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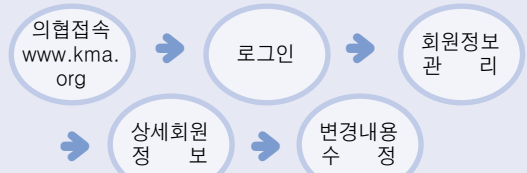
2004년도 회무감사가 지난 3월 12일(토) 오후 6시 본회 사무국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날 감사에서는 본회 회계와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하상호·유성호·정승수 감사와 본회 집행부에서는 변영우회장, 백승인·이봉구 기획이사, 천종욱 재무이사가 배석하였다.

회원정기신고 개인별 웹방식 실시

의협에서는 회원정기신고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신상신고서식(paper)을 폐지하고 웹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최종목표로 현재 1차적으로 시행초기 단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개별회원이 웹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회원 개인별 웹방식 신고 ●



2005년도 시군의사회 정기총회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환경 조성

2005년도 시군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의권확립과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새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심기일전하여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만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안동] 의료계 발전의 기틀은 회원 단합 도모



안동시의사회서는 지난 12월 16일(목) 오후 6시 30분 금강산가든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한 회원 단합 도모에 앞장서는 의사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본회 변영우회장, 김재왕 안동회장을 비롯하여 최중두, 최유근, 손장락 원로 및 70여명의 회원과 최상학 보건소장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재왕 안동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가 어려울수록 회원들의 단합이 중요한 만큼 각종 소모임이나 반모임의 활성화로 회원 단합의 장을 마련하자고 하였으며, 의사회 중점 사업으로 진행된 등반대회, 의학제, 건강걷기대회, 각종 연수강좌등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이어 변영우 회장은 축사에서 2005년도 수가계약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것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이럴때일수록 최일선에 있는 회원들이 회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화합 단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감사보고와 주요 회무 및 결산 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뒷받

침하는 1,014,000원 증액된 41,290,000원의 새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통과시키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영주] 정기총회서 새 회장에 이재석회원 선출

지난 1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영주 민속식당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이재석(서울산부인과의원) 회원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이날 정총에서 이기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2005년도 수가 계약에서 의원이 제일 어렵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 정도 진찰료 인상에 대해 이러한 수가인상 수치로는 우리 회원들이 살아남기 불가능하며 의료보험 원가 보전에 턱도 없이 모자라는 선에서 수가 계약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밝혔으며, 제일 먼저 의료 손실을 보전하는 뜻에서 의료 수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시켜 주어 의사들이 충분하고도 수준 높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의료계와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의사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폐회를 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이재석(서울산부인과의원)
- 부 회 장 : 이찬응(이찬응산부인과의원)
- 총무이사 : 정원모(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 재무이사 : 안광현(서울이비인후과의원)
- 법제이사 : 황성진(다인산부인과의원)
- 보험의무이사 : 손현석(손현석내과의원)

[경산] 회장에 장기호회원 재선임



지난 12월 3일(금) 오후 7시 30분 JS호텔에서 2004년도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장기호 회원을 재 선임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본회 변영우 회장, 경산시의사회 장기호 회장, 경산시보건소 구현진 소장등 내빈 및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총회에 앞서 하승우원장의 당뇨병치료의 최신지견외 1편의 초청강의가 발표되었다.

장기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의 임기중 회원들의 단합과 권익옹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회원들이 열심히 믿고 따라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본회 변영우 회장은 최근 2005년도 수가 결정이 회원들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고, 의료 수가를 현실성 있게 반영시켜 주어 의사들이 충분하고도 수준 높은 의료를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다시한번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된 역량으로 의료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 한해동안 의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이석균(청십자의원), 김덕수(사랑의원)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으며, 2004년도 주요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회칙개정에서는 임원의 구성을 현 '업무담당이사 7명, 반장 7명'에서 '업무담당이사, 반장을 여러명'으로 두는것으로, 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에서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회장 및 감사선출에서는 회원들이 추천한 현 장기호 회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 추대하고, 감사에는 최정규, 안면중회원을 선출하였으며, 장기호 신임회장은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함께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폐회를 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장기호(현대연합의원)
- 부 회 장 : 장유석(장유석외과의원)
이용우(장산방사선과의원)
- 감 사 : 최정규(최내과김방사선과의원)
안면중(하양연합정형외과의원)

[성주] 의료일원화 등 현안 논의



성주군의사회서는 지난 2월 17일(목) 오후 7시 남경식당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사와 한의사들간의 감기치료 홍보를 둘러싼 공방등 의료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방종경 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2004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안토의에서는 최근 '포스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에 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의료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칠곡] 회장에 이원석 회원 선출

칠곡군의사회서는 지난 2월 16일(수) 왕갈비식당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이원석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영조 칠곡군의사회장과 본회 변영우 회장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조 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감사보고 및 주요회무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

하는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안토의에서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된 환자는 마루타라는 내용에 대해 불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의사 전체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취재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회원들이 무분별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 그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키로 하는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이원석(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 부 회 장 : 이태규(왜관정형외과의원)
- 총무이사 : 박성열(삼성안과의원)
- 재무이사 : 김하균(석적중앙의원)
- 감 사 : 전용성(영남외과의원)

[경주] 의료봉사사업 적극 추진



경주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18일(금) 오후 7시 경주월드웨딩뷔페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장희 경주시의사회장과 변영우

경상북도지사회장,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김장희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변영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였다.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감사보고와 주요회무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62,185,213원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회무에 공이 큰 경주시보건소 의약계 순정희외 2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사업계획에서는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할수 있는 춘추계 야유회, 개원의·의대간 친선체육대회 개최와 경북의학회 및 학술대회 참가, 송년의 밤 행사등으로 회원들과 더 가까워질수 있는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연중 개최키로 하였으며, 보건소와의 간담회 개최, 여름철 건강관리 캠페인, 의료봉사 사업 지원 및 참여등으로 지역사회보건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영천] 회원 단합 도모를 위한 사업 구상



영천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2일(화) 오후 7시 흥티타운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협의와 회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새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지옥 영천시의사회장과 본회 변영우 회장, 서용덕 영천시보건소장, 이강원 영대영천병원 부원장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지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의사와 내과의사회에서 감약약 처방 포스터 부착과 관련한 공방은 한의사들이 의료계를 짓밟는 행태라며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영천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의사회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결산을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집행

부에서 마련한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의안토의에서는 연휴 당직근무는 기존 시행해 오던 방식을 유지하여 조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의사회의 단합과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과 임원진들이 독려하여 활성화시키기로 하는등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천] 새 회장에 정근재 회원



김천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3일(수) 오후 7시 한우명가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정근재(김천정신정신병원)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경옥 김천시의사회장과 본회 변영우 회장등 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박경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임기동안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어 2004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새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안토의에서는 기존 감사 1명을 2명으로 하는 회칙개정과 회무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두기로 하였으며, 임원개선에서는 회장에 정근재 회원을 선출하고 회무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정근재(김천정신병원)
- 부 회 장 : 민성기(민안과의원)
김영권(김영권정형외과의원)
- 총무이사 : 정세주(정세주내과의원)
- 학술이사 : 이영석(김천의료원)
- 기획이사 : 최인환(최인환결핵내과의원)
- 보험이사 : 이상식(이상식산부인과의원)

- 공보이사 : 권오영(권오영내과의원)
- 섭외이사 : 최계정(동산연합의원)
- 정보통신이사 : 구정완(구정완내과의원)
- 감 사 : 이경엽(김천남산산경외과의원)
신경호(신정형외과의원)

[청도] 새 회장에 박해동 회원 선출

청도군의사회서는 지난 2월 23일(수) 오후 7시 대어초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박해동(박해동외과의원)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재동 청도군의사회장의 인사에 이어 2004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권확립과 국민건강권 확보등을 위해 일선 의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모았다.

<임원명단>

- 회 장 : 박해동(박해동외과의원)
- 총 무 : 임용환(경북의원)

[포항] 의권신장 및 옹호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촉구



포항시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목) 오후 7시 귀빈예식장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권신장 및 옹호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와 반회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일반회계 137,180,000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오세진 포항시의사회장과 본회 변영우 회장, 이원기 의장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오세진 회장의 인사, 변영우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의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예재명(신세계산부인과의원), 한동

선(포항세명기독병원) 회원에게 공로패를, 문재수 포항 시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마종락 선린병원 총무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모두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100분의 100 본인부담제도 철폐건의외 9개 안건은 도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포항시의사회 자체안건으로는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일원화등 2개 안건을 처리하고 경조규정 개정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구미] 토요일 야간가산을 적용시간대 조정 건의



구미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신타페레스토랑에서 장의현 구미시의사회장, 김옥배 본회 부회장, 김관용 구미시장등 회원 90여명과 내외빈 10여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장의현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의료환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오직 회원 단합이라고 강조하고 의사회 조직의 버팀목을 잘 활용하자고 하였으며, 이어 김옥배 본회 부회장의 격려사와 금일봉을 전달하였으며, 김관용 구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의사회 회무에 공이 큰 류광동(구미시청 생활위생과), 손명희(선산보건소), 권준경(구미보건소)에게 감사패를, 오춘석(오이비인후과의원), 권치한(한마음연합소아과의원), 권기탁(권가정의학과의원), 표동철(형곡정형외과의원)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감사보고 회무 및 결산감사 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5년도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86,714,717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의

안토의에서는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공휴일과 동일한 가산률을 적용하고 야간가산을 적용시간대를 15시에서 13시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예천] 새 회장에 차광국 회원 선출

예천군의사회서는 지난 2월 24일(목) 오후 7시 청도복 어식당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차광국(제일의원)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백승기 예천시의사회장의 인사에 이어 2004년도 회무보고와 200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임원선출에서는 회장으로 차광국 회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회원단합을 위해 거둬낼것과 의료민주화 투쟁을 위한 선두에 서는 의사회로 나설것을 촉구하며 폐회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차광국(제일의원)
- 총 무 : 노영철(예천중앙의원)

[문경] 새 회장에 강찬규 회원

문경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5일(금) 오후 7시 영흥반점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강찬규(강찬규내과의원)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승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임기동안 물심양면으로 의사회 회무를 도와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함께 의사가 주축되는 의사상 확립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마련한 2005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임원개선에서는 회장에 강찬규 회원을 선출하고 의권확립과 국민건강권 확보등을 위해 일선의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임원명단>

- 회 장 : 강찬규(강찬규내과의원)
- 부 회 장 : 김규태(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 총무이사 : 이상일(문경중앙의원)
- 감 사 : 최석모(성모제통의원)

2005 연수교육

연수교육 대상자 공지사항

1. 근거

의료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본 협회 정관 제3조, 연수교육 시행규정

2. 목적

정규 의학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취되는 과학적 진보와 사회변화 그리고 의학발전에 발맞추어 최신 의학지식 및 의료기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인문사회의학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수행과 의료윤리를 유지하게 함.

3. 대상자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교육을 면제함.

- ①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
- ② 군복무중인 자
- ③ 전공의
- ④ 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과정)
- ⑤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봉직자
- ⑥ 질병, 해외체류, 휴폐업 등으로 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연말에 연수교육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공중보건의는 1999년까지 면제대상이었으나 2002년도부터 모두 이수대상임.

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4. 이수

- ① 승인된 연수교육 참석
참석시 등록대장에 성명, 면허번호, 근무처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점카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②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자율학습 참가
(연상한 3평점)
- ③ 학술지, 학회지 등에 논문게재
1편당 5평점, 10평점까지 인정
- ④ 사이버연수교육[신설]
1강좌당 1평점, 연상한 3평점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원(cme.kma.org) 접속, 강의수강 가능

5. 이수평점

1년에 최소 8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6. 미이수자 행정처분

- ① 1차 위반시 : 경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 처분
- ②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 자격정지 7일

회 원 동 정

경상북도자원봉사포럼 고문에 변영우 회장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자원봉사관련 정책개발과 자원봉사센터 육성방안제시 및 조사연구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대를 모색코자 경상북도 자원봉사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4년 12월 13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범도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원봉사포럼 창립 기념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본회 변영우 회장이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포항치매가족협회 초대지부장에 이원기 의장



포항에 치매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을 위한 한국치매가족협회 포항지부가 지난 2004년 10월 2일 오후 2시 노인의 날에 포항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4층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갖고 초대 지부장에 이원회 회원(포항, 이원기외과의원)을 위촉하였다.

초대 이원기 지부장은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치매에 대한 보다 빠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임이 결성된다”고 말하고 “포항도 현재 노인인구가 3만6천여명에 8.3% 치매유병률에 따라 3천여명의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의 창립에 따라 치매환자와 부양가족 등 1만여명의 치매가족들이 정보교환과 상담 등의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임된 송달호 김천의료원장



지난 5월 8일 연임(임기 3년)된 송달호(宋達孝, 64) 김천의료원장은 “지역 환자들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의료 수준과 서비스 향상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주 출신으로 경북대 의대를 나와 충남대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송 원장은 대구·경북 적십자혈액원장, 대구 적십자 병원장, 상주적십자 병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1년부터 김천의료원장으로 재임해 왔으며 지난 8일 재임명됐

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는 송 원장은 최근 오지 순회 무료진료 등 왕성한 의료활동을 펴고 있다.

울릉보건의료원장에 정만진 회원



5개월여 동안 공석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울릉군보건의료원장에 정만진 회원(영천 정만진소아과의원, 본회 부회장)이 지난 6월 1일(화) 취임하였다.

정만진 회원은 17년간 고향 영천에서 운영하던 소아과의원을 접고 울릉도행을 결심하였으며,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질병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의학 강좌를 동료 의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임된 변승열 포항의료원장



재임 중 병원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8일 연임된 포항의료원 변승열(邊承烈, 61) 원장은 “의료진의 수준높은 진료와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5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지난 흑자경영을 토대로 더욱더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경북 동해안 유일의 알코올 상담센터를 개설, 알코올 질환자들의 재활 및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 왔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인 가정간호사업을 실시, 적극적인 가정간호를 통해 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변 원장은 “가정에서 보호나 요양이 어려운 노인치매 및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 요양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임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말까지 병원내 장례식장도 신축, 서민들이 저렴하게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의료원은 359병상 규모로 지난 1999년부터 5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002년에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주동산병원장에 김종인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는 2005년 3월 11일 경주동산병원장에 김종인 교수(산부인과)를 내정하고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김중인 경주동산병원장은 경북의대 졸업('79),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공의('82~'86), 산부인과전문의 취득('86), 경북대학교 의학박사학위 취득('91), 계명대 교수('92),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산부인과장(2002~'03), 대한산부인과학회 상임이사 및 논문심사위원, 산부인과

초음파학회 기획위원, 미국 주산기학회 정회원, 세계초음파학회 정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김찬우 전의원 의협 고문 위촉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찬우 전 국회의원을 의협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김찬우 고문은 경북의대 출신 외과 전문의로 제11, 14,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안동 최유근회원 이육사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항일 민족 시인 이육사(李陸史 · 1904~1944)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순국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관이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촌리 생가 입구에 들어서고 이육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최유근 회원(안동, 최유근안과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육사 문학관이 선생 탄신 100돌을 맞아 성공적으로 건립돼 뜻깊다”며 “후손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의 회유와 압박에 꺾이지 않고 겨레의 정서로 아름다운 시를 빚은 육사 선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의대 이정호 교수 세계인명사전 연속등재



동국대 경주병원 이정호 교수(신장내과)가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 2곳에 연속등재되어 화제다.

동국대학교는 “이정호 교수가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의학 및 보건분야)」 2004~2005년도 판과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과학 및 기술분야)」 2005~2006년도 판에 2군데 연속등재 되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그동안 ‘복막의 대사성 손상 기전과 예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 및 국내 저명학술지,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인명사전 2곳에 연속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국제복막투석학회 아시아 핵심회원, 대한신장학회 학술위원, 수련교육위원, 윤리위원 및 대구·경북신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결핵 대구경북지부 운영위원회에 이석균 회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는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부 규정 제16조에 의거 차기운영위원회에 본회 이석균 회원(경산, 청십자의원)을 위촉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광역시 및 도의사회가 지명하는 1명이며, 임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경북의사산악회 회장에 문덕균 회원



본회에서는 의사회원의 친목도모와 의사단체의 단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악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산악회 결정 및 임원구성을 하였으며 문덕균(경주, 한빛연합소아과의원)회원을 경상북도의사산악회 회장에 선임하였다.

한남피부과학회대회장에 이봉구 회원



지난 2월 26일(토) 오후 3시부터 개최된 2005년도 제40회 한남피부과학회(영호남·충청권 약200명 규모) 대회장에 이봉구(경주, 이피부과의원)회원이 되었으며, 이번 학회에는 고도경주 남산에 대한 특별 강연과 피부과학에 대한 교육강연을 연재로 개최되었다.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개선대책위원회에 조성범 회원



의협 보험위원회·보험대책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 TF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조개편 대책위원회와 급여체계 개선 대책위원회, 사후관리 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후관리 개선대책위원회 위원에 본회 보험이사인 조성범 회원(경주, 한빛연합소아과의원)을 추천하였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성숙회원 별세



김성숙회원(포항세명기독병원)이 지난 2004년 7월 29일 향년 4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김성숙회원은 1981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의학박사를 취득 후 미국 Ledars-sinai medical Center 교환교수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포

항세명기독병원 병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도원회원 별세



김도원회원(경주, 김외과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21일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김도원회원은 195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50년 한국전(6.25) 참전(육군 연락장교), 1957년 육군군의원 제대 및 경북대학교 외과 조교근무, 1958년 외과전문의 취득한 후 196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학위 취득하였으며, 1966년~1971년 파월 민간의료단 의료반장(월남 도립병원 근무), 1971년~2000년 경주시 노동동 김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85년~1988년 경주시사회장, 1988년~1991년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1985년~2000년 경상북도의사회 중앙대의원, 1994년~1996년 경상북도의사회 제9대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서재주회원 별세



서재주회원(구미, 전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장)이 2005년 2월 2일 향년 7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故 서재주회원은 1957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을 거쳐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카톨릭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1979년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에서 교수 및 부원장, 병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후진양성을 위해 크게 기여하면서 시민보건향상과 참의료인상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의료사고분쟁의 해결책, 분쟁조정, 합의, 보상의 모든 것 **의료배상공제**

*보상한도액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면책금(자기부담금) :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특별약관 : 경호비용담보, 벌금담보, 형사방어비용담보, 관습상비용담보, 초빙/마취의담보

가입문의처 :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Tel.02-794-2480, 6587, 2474(ARS 8) Fax. 02-792-1361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회장동정

[관외활동]

1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4. 1	3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7. 29
2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4. 1	34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8. 10
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4. 8	3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8. 12
4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4. 14	36 인천 이봉영전회장 문상	2004. 8. 18
5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4. 17	37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8. 19
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4. 22	38 의협 의료정책포럼 참석	2004. 8. 21
7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4. 29	39 연명치료 중단 대토론회 참석	2004. 8. 25
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5. 6	4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8. 26
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5. 13	41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9. 2
10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5. 15	42 임진출 전의원 재판관련협의	2004. 9. 3
11 울릉의료실태조사 참석	2004. 5. 17	43 영리법인 관련 심포지엄 참석	2004. 9. 4
12 울릉의료실태조사 참석	2004. 5. 18	44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9. 9
1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5. 20	45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9. 11
14 영남 지역의사회장회의	2004. 5. 21	46 대한대체의학회 정총참석	2004. 9. 15
1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5. 27	47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9. 16
1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6. 3	4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9. 23
17 전국 보건소장 초청간담회 참석	2004. 6. 14	4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0. 14
1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6. 17	5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0. 21
19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6. 19	51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10. 27
20 영호남 의사 친선행사	2004. 6. 20	52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0. 28
21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6. 22	5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1. 4
22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6. 23	54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1. 10
23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6. 26	5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1. 18
24 교육부 및 복지부장관 면담	2004. 6. 30	5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1. 24
2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7. 1	57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12. 4
2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7. 7	5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2. 16
27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7. 8	5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2. 23
2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7. 15	60 의료계 인사 신년인사회 참석	2005. 1. 5
29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7. 16	61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5. 1. 29
3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7. 21	62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5. 2. 19
31 서울시의사회장 의료현안 협의	2004. 7. 24	6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5. 2. 24
32 교육부 및 복지부장관 면담	2004. 7. 26	64 의협 의료봉사평가회의	2005. 2. 25
		65 의사면허 수여식	2005. 2. 28

[관내활동]

1	제32회 보건の日 행사	2004. 4. 7	대구	43	경북의대 학장취임식 참석	2004. 9. 10	대구
2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4. 8	대구	44	제3회 테니스대회 개최	2004. 9. 11	대구
3	대구울산회장회의	2004. 4. 16	대구	45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9. 14	경주
4	포항의사산악회의	2004. 4. 18	대구	46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9. 16	대구
5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4. 20	경주	47	전국체전 상황보고회	2004. 9. 17	대구
6	중앙대의원간담회	2004. 4. 21	대구	48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9. 23	대구
7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4. 26	대구	49	시국선언 준비회의	2004. 10. 1	대구
8	김천직지초등학교 방문	2004. 5. 4	김천	50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10. 13	대구
9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5. 6	대구	51	시국선언 집회참석	2004. 10. 14	대구
10	의사회지 발간회의	2004. 5. 10	대구	52	경북의대 동창회의	2004. 10. 15	대구
11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5. 11	경주	53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10. 19	대구
12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5. 13	대구	54	의협회장 현안설명	2004. 10. 19	대구
13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5. 20	대구	55	의사회지 편집회의	2004. 10. 21	대구
14	황명주회원 문상	2004. 5. 24	포항	56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10. 28	대구
15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5. 27	대구	57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11. 4	대구
16	경상북도 금연행사 참석	2004. 5. 31	포항	58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11. 9	경주
17	배효근회원 독창회 참석	2004. 6. 4	포항	59	심평원 대구지원방문	2004. 11. 10	대구
18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6. 15	경주	60	무료개안수술 생방송	2004. 11. 12	대구
19	울산지청 방문	2004. 6. 15	울산	61	추계종합학술대회	2004. 11. 21	대구
20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6. 17	대구	62	심평원 위원장회의	2004. 11. 29	대구
21	경북도 구급대책위원회 개최	2004. 6. 18	대구	63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12. 2	대구
22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7. 1	대구	64	경산시 정기총회	2004. 12. 3	대구
23	구미시의사회 회원친선행사	2004. 7. 4	구미	65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12. 9	대구
24	한중 신경외과학회 참석	2004. 7. 9	대구	66	자원봉사 포럼참석	2004. 12. 13	대구
25	울산시의사회 방문	2004. 7. 13	울산	67	구급대책 회의참석	2004. 12. 15	대구
26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7. 13	경주	68	안동시 정기총회	2004. 12. 16	안동
27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7. 16	대구	69	사랑나눔 자선회의	2004. 12. 17	영천
28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7. 22	대구	70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12. 23	대구
29	회무관련 결재	2004. 7. 22	대구	71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12. 30	대구
30	김성숙회원 문상	2004. 7. 27	포항	72	대구시 신년교례회	2005. 1. 3	대구
31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7. 29	대구	73	포항시 신년교례회	2005. 1. 4	포항
32	경북체육회 이사회참석	2004. 7. 30	대구	74	회무관련 결재	2005. 1. 10	대구
33	조성범이사 문상	2004. 8. 3	대구	75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5. 1. 11	경주
34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4. 8. 7	울릉	76	회지 편집위원회의	2005. 1. 24	대구
35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8. 12	대구	77	서재주회원 문상	2005. 2. 3	구미
36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8. 19	대구	78	원로회원간담회	2005. 2. 5	대구
37	가족보건사업 평가대회	2004. 8. 20	경주	79	김인수법률고문방문	2005. 2. 7	대구
38	회무관련 결재	2004. 8. 20	대구	80	철곡군의사회 정기총회	2005. 2. 16	철곡
39	TBC 무료개안수술회의	2004. 8. 20	대구	81	성주군의사회 정기총회	2005. 2. 17	성주
40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8. 26	대구	82	영천시의사회 정기총회	2005. 2. 22	영천
41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9. 2	대구	83	김천시의사회 정기총회	2005. 2. 23	김천
42	회무관련 회관방문	2004. 9. 9	대구	84	포항시의사회 정기총회	2005. 2. 24	포항
				85	문경시의사회 정기총회	2005. 2. 25	문경

결의문

• 약대 6년제 시행 반대 결의문(2004. 6. 22)

•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공동 결의문(2004. 10. 9)



도대체 어찌자는 것인가?

정부는 의료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와 밀실 야합하여 약대 6년제 시행을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대다수의 개원 약국은 임의조제, 대체조제, 끼워팔기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약대 6년제가 시행된다면, 정부는 의료보험재정 절감 운운하면서 약사에게 불법 진료를 포함한 1차 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토록 의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도록 방치한 의협 집행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다 음 -

1. 정부는 약대 6년제 밀실야합 결정을 즉각 파기하라.
1. 현재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조치하라.
1. 정부는 모든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의료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라.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22일

경상북도 의사회

결 의 문

전라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의 회원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오명과 누명을 쓴 채 억압과 고통으로 점철된 나날을 뒤로 하고 오늘 한 자리에 모였다. 작금의 의료계 상황은 마치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분노의 폭발이 임박한 절대적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그렇게도 반대하던 영터리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시민단체를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 선동하여 강제 시행한 후 강압과 규제 일변도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해 왔다.

특히 의료보험재정이 바닥나자 2001. 7. 1 정부는 재정 건전화 정책에 의하여 차등수가제, 처방진찰료 통합, 야간 진료 시간대 2시간 연장 등 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조치를 강제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물가는 6~7%씩 오르는데 2002~2004년까지 3년간의 료수가를 2.65% 인상하는데 그쳤다.

의료계를 이와 같은 위기로 몰아넣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개탄하고, 더 이상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의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환자가 직접 조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1.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수가 계약제를 즉각 개선하여 고사위기의 의료계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의 약속을 이행하라.
1. 약대 6년제는 1차 의료를 약사들에게 맡기려는 치졸한 정책이다.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약대 6년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1. 의료시장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이다.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허용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을 지지한다.
1.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통계조작을 언론과 공모하여 의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작태를 당장 중지하라.
1. 의협은 전 회원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방안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10월 9일

전라북도의사회 · 경상북도의사회

편집특집



옥동자를 순산하기 위하여 열달의 산고를 치르듯이, 지난 한 해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청탁하며 수차례의 편집회의를 거쳐 경북의사회지 제29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 회지는 경북의사회의 기록이며 문예지이며 사진첩이며 또한 역사입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원로 선생님의 미니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경북의 동서남북 각 지역의 원로 선생님들이 살아오신 이야기와 삶의 지혜,

그리고 해묵은 사진을 함께 엮어 특집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이 특집을 위하여 사진첩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50~60년 전의 흑백사진들을 정리, 선별하여 보내주시고, 자료정리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여섯분의 원로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넓어졌지만 포항, 안동, 구미를 비롯하여 멀리 바다 건너 울릉도에서까지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기에 우리 편집위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은 물론 사진과 기록을 정리하느라 수고하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주신 선진애드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교정하고 확인하였으나 혹시 오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편집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 3

편집위원(정만진, 김광만, 김재왕, 이경수, 이덕영)일동

● 회지편집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위 원 장	정 만 진	울릉군보건의료원	054	790-647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위 원	김 광 만	김소아과권방사선과의원	054	221-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28B
	김 재 왕	김재왕내과의원	054	856-7111	안동시 동부동 74
	이 경 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구미시 황상동 280-9
	이 덕 영	하양중앙내과의원	053	856-4567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10

아모디핀, 1월말 현재

처방건수 100만건!

처방점유율 30%!

실제 임상에서의 우수한 약효 속속 확인! 더 큰 자신을 갖고 처방해주십시오.

발매 5개월만에 누적 처방건수 100만건.
2005년 1월말 현재 처방점유율 30%,
아모디핀의 실제 임상에서의 약효가
매달 확대되는 처방건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No.1 개량신약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모디핀, 계속 믿고 처방해 주십시오.



※처방건수 자료:
2004년 9월~2005년 1월 누계
(주)이수UBCare MRx 자료 및 한미약품
시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환산수치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직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험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